조선근로자들은 단결하라!

근로자

5 호 3월 15 일

평양 로동신문사발행 1949.

조선근로자들은 단결하라!

근로자

북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
기관잡지

제5호 (27)

1949년3월15일

내용

북조선로동당 하급당단체(세포 초급당부 면당부)들의 九개월간 사업총결에 관한 총화와 당지도사업 강화에 대하여

북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허 가 이

동무들!

(박 수)

제二차전당대회의 결정에의하여 우리당 초급 및 면당단체들은 지난 지도기관선거이후 九개월간에 걸쳐 실시한 사업들을 당회의에서 총결하였습니다.

하급당단체의 지도기관들은 자기사업을 총화하면서 전체당원들과 하급당단체들앞에서 당지도기관선거회의때에 당원들에게서 위임받은 과업과 제二차전당대회의 결정실행에 대하여 검열받았으며 그 총화는 사업기간에 있어서 그들이 자기에게 부과된 과업과 당중앙위원회의 제반시책들을 기본적으로 옳게 성과있게 실행하였다는것을 보여주였습니다。 당의 기본과업으로 제기된 북조선에서 달성한 민주개혁들을 공고확대하며 인민경제와 민족문화를 발전시키며 도시와 농촌 근로대중들의 물질 문화생활수준을 부단히 향상시키는 토대위에서 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수립하며 당을 조직적 정치적으로 더욱 강화하는데 있어서 당단체들은 모든힘을다하여 열성적으로 투쟁한결과 사업에 큰 성과들을 달성하였습니다。

一、하급당단체들의 사업총화에서 나타난 기본적 성과와 경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을위한 조선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에있어서 우리당원들의 아낌없는 희생적노력과 투쟁은 전체애국력량을 총집결시켜 선거의 빛나는 성과를 쟁취하였으며 당원들의 주동적역할에 의하여 一九四八년도 인민경제계획을 성과적으로 실행한결과 공화국의 二개년인민경제계획을 접수할수있는 물질적기초를 누축하였으며 금번 최고

인민회의 재二차회의는 · 二개년계획을 접수하였습니다。

조국의 민주주의적 완전통일자주독립을위한 전인민의 거족적투쟁에 있어서 그 어느부문을 물론하고 우리당원들의 희생적이며 결정적인 역활이 있었으며 우리당원들의 주동적 역활에의하여 인민의 투쟁은 승리적으로 진행되고있습니다。

제二차 전당대회결정에 근거하여 당 중앙위원회는 조국의통일과 독립을위하여 투쟁하는 전인민의 조직적 핵심력량과 그의 정치적지도력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투쟁의 완전승리를 촉진하기위하여 우선 우리당을 조직적 정치적으로 더욱강화하며 우리당의 지도력을 더욱 강화 시길것을 기본적인 중대과업으로 내세웠습니다。

그 결과에 당대렬에는 점차적으로 민주조국건설투쟁에서 단련되고 훈련 준비된 로동자 농민 로력인테리들중 가장 우수하고 선봉적인 열성분자들이 더증가되어 당대렬이 질적으로 강화되었으며 지금에 와서는 우리당은 八〇여만에 가까운 당원을 자기대렬에 집결시켰습니다。

당 세포와 초급당부는 당 장성과 관련되어 옳은 방향으로 확대되바 생산직장、농촌、어촌、중요국가기관 학교에 이르기까지 조국통일과 민주건설의 튼튼한 성책으로되는 곳에는 그 어느곳을 물론하고 우리당의 세포와 당원이 없는곳이 없게되었으며 그들 기초로한 수많은 초급당부들이 장성되었습니다。

당 대렬의 이와같은 량적 질적 발전은 근로인민의 선봉대인 우리당이 광범한 대중속에 튼튼히 뿌리박았으며 군중과 같이 호흡하며 대중의 무한한 지지와 존경을 받고있으며 조국건설의 각분야에서 결정적 역활을하고 있다는것을 말하여주며 우리당 하급조직들의 생활성과 당원들의 열성이 제고되였으며 그의 력량이 더욱 장성되었다는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당지도기관과 당간부구성에 있어서도 실지투쟁과 건설에서 훈련되고 검열된 주로 해방후에 인민속에서 다와 육성된 새로운 간부들이 많이 등용되어 정력적 퇴력이 풍부한 로간부들과 합하여 당과 인민과의 련결을 더욱 밀접하게하였습니다。 그리하여 九개월간에 당사업발전과함께 당원들의 열성이 제고되어 금번진행한 총결당회의들에 당원들의 정치적열성이 일반적으로 반영되었습니다。

그 대표적실례로써 평남도당단체에서는 금번에 실시된 세포사업총화회의에 참가한 전체당원수의 五〇%에 해당한 당원들이 토론에 열성적으로 참가하였으며 전체토론자의 三〇%이상에 해당되는 당원들이 비판에참가하여 당적립장을 망각하고 당과 국가사업에 해를주는 락후한 사상및 행동들과 또는 사

업을 조직지도하는데 있어서의 부족점들을 폭로하면서 그들과의 투쟁을 전개하였으며 사업의 발전에 대한 의견들을 제의하였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우리당내에있어서 비판과 자기비판은 당원들의 당성을 제고시키는 큰 무기로되었으며 당사업의 오유와 결점들을 적발시정하며 락후한 사상적경향과 투쟁하는 방향으로 발전되어갑니다。

허가이동지는 금번진행된 세포총회에서 일부당단체들에서 당원들의 열성적 토론과 비판으로 당내의 사업상 부족점을 적발 퇴치한 사실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보고에 지적하였다。

점차적으로 제고되는 당원들의 이같은 정치적 열성과 자각성은 또한 조국통일과 민주조국 건설사업에있어서의 위신있는 선봉적 활동에있어서도 똑똑히 보여주었습니다。

一九四八년도 인민경제예정숫자 초과달성과 一개월간단축운동에 있어서 우리당원들의 모범적투쟁은 강하고도 위대하였습니다。 이에대한 례로써 지배인 주종이동무가 지도하고있는 흥남비료공장 로동자 기술자들은 一九四八년도 인민경제계획을 一개월단축하여 완수하자는 호소로써 각공장 기업소의 생산경쟁을 높이게하여 각기 자기 계획완수에 무한한 고무를 주었습니다。 흥남비료공장은 자기가 호소한바와같이 년간계획실행을 一개월 단축시켜 十一월 二十八일에 완수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년간계획보다 一〇·五%이상을 초과완수하여 해방전 생산량을 훨씬 초과하였으며 질적으로 상당한 수준에 도달하게하여 전체 산업부문에 우수한 성적을 나타내게한 결과에 공화국 내각 우승기를 획득하였습니다。

해방후 애국근로인테리로 전변된 많은 기술자들은 우리의 공장기업소들을 복구하며 새로 건설하는데와 생산능률을 제고시키는데있어서 많은 창안들을하여 인민경제부흥발전에 많은 공훈을 하였습니다。 이에대한 례로써 당원의 임무를 다하기위하여 노력한결과 아오지탄광 기사 검영목동무는 채탄방식에있어서 종전의 잔주식을 타파하고 일제시대에 상상치도 못하던 一二〇메-터장벽식으로 개량함으로써 생산능률을 향상시켰을 뿐만아니라 석탄 채굴업에 일대개혁의 기원을 지었으며 본궁공장 오동욱동무는 카-바이트를 아세치렌으로 알콜합성공업화하여 알콜용 량곡을 一년에 약一〇여만석이나 절약케하였으며 평양화학공장 기사장 리원관동무는 一九四七년도 청진방적공장 복구공사에 커다란 역활을하였을 뿐만아니라 평양화학공장 복구공사에 있어서도 자기의 풍부한 기능과 경험 및 창의창안의 충분한 발휘로써 공사를 기한전 一개월에 완성하였습니다。 성진제강소 김영찬동무와 황해제철소 기사장 리문해동무 및 청진방적공장 기사장 리형수

동무들은 오늘 우리조국 산업건설에 귀중한 진보적 애국적 인테리로서 국가적 또는 사회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있는 전형적인 인물들로 등장되었습니다。

또 당원들의 애국적열성의 결과에 생산능률을 붙향상시키고 국가에 더많은 리익을 준 사실들을 볼수있습니다。 허천강발전부 서덕환 장순의、수풍발전부 리창한 장진강발전부 김하철등 로동자들은 발전기와 변압기수리에 부속품을 창안하였으며 아오지탄광 겸직혈 사동탄광 김고망동무들은 채탄방식을 개량하여 생산능률을 三배이상 향상시켜 수십만톤의 석탄을 증산하여 국가에 수백만원의 리익을 주었습니다。 성흥광산 최숙량동무와 수안광산 리복룡동무들은 광산업발전에대한 커다란 공헌을 한 여러가지 창안을 하였습니다。 기계공업에 있어서의 통성기계제작소 우경국동무는 수차바케트를 고안하였으며 화학부문에있어서 흥남비료공장 리영화 김홍수、본궁공장 유종두동무들은 여러가지 기술적 창안을 하였습니다。

농촌경리를 개선 향상하는 투쟁에 있어서도 당원들의 모범적 활동은 또한 위대합니다。 一九四七년도에는 一九四六년도 총수확량에 비하여 一九·二% 즉 二三〇만석 이상의 증산을 보았으며 一九四八년에와서는 一九四六년도에비하여 四〇·六% 즉 五三〇만석이상의 증가를보았습니다。 이 실적을 재취하는데 우리당원들의 선도적역활이 무엇보다 컸습니다。 황해도 신천군 유여배동무는 밀 정당수확을 四톤三四九키로로 제고하였으며 황해도 재령군 강지잡동무는 면화의 정당수확고를 二톤二九七키로로 제고시켰으며 평북 의주군 강영래동무는 옥수수의 정당수확고를 五톤八二〇키로까지 제고시켰습니다。

이상과같은 선진모범일군들은 당내에 수천여명에 달하며 이와같은 사실들은 우리공화국 북반부에서 실시할 一九四九—一九五〇년二개년경제 건설의 기초를 구축하였을 뿐만아니라 여하한 곤난과 악조건하에서도 능히 계획을 초과달성할수있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줍니다。

하급당단체들의 사업총화에서 나타난 대표적인 성과는 간단히 이렀습니다。 이상과같은 제반성과들은 오늘 우리당이 조국의 통일독립을위한 투쟁에 있어서 전조선인민대중을 단결하며 그들을 영웅적으로 조직동원한데있으며 또한 우리당은 전조선 인민대중의 무한한 신망과 존경을 받으면서 그 력사적 사명을 능히 감당하고 완성할수있는 강유력한 유일한 대중적 정당으로 발전강화되었습니다。

二、하급당단체들의 지도기관 사업총화와 사업검열에서 나타난 몇가지 결점

그러나 하급당단체들의 지도기관사업총화와 당중앙본부에서 실시한 함북 평북도당단체들의 사업검열결과는 아직 각급당단체들의 사업에 허다한 결점들이 존속되고있다는것을 보여줍니다。 국가건설사업을 당 정치적으로 보장하는사업이 미약하였다는 것은 다음과같은·사실에서 표현됩니다。

첫째로、그때그때에 일상적으로 제기되는 실행하지않으면 안될 국가및 경제건설사업에있어서 그과업을 실행하기위하여 당으로하여금 당의력량을 옳게 배치하며 당조직사업을 세밀하고 주밀한 계획밑에 진행하며 광범한 인민들에게 그 사업에대한 내용과 의의를 천전 해석함으로써 인민들을 자각적으로 그 과업실행에 동원되게 할대신에 일부당단체들은 사업의 실무적 량적성과를 달성하는데만 급급하여 분주히 돌아다니는데서 볼수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은 인민들의 정치적 열성을 제고시키지 못하며 사업의 성과가 있었다면 그는 확고한 성과로 되는것이 아니라 그때그때에 나타나는 시기적이고 림시적인 성과로 밖에 되지못하는것입니다。

둘째로、예정숫자를 실행하기위하여 애로와 난관을 극복한다는 구실밑에 일부 생산직장내 당단체 일꾼들은 생산직장 운영당국에 당적 협조사업을 보장할 대신에 자재구입만하는 경리일꾼의 역활을 한다든지 또는 그들의 사업을 비판만하는 제三자의 역활을 수행하고있습니다。 이러한 종류의 일꾼들은 당조직으로부터 활동을 제고하며 전체 로동자 기술자들의 일상적 요구와 곤난을 타개하여 제때에응하며 각자와의 일상적 밀접한 련락을 가지며 각자의 기능과 력량 및 성격을 잘알므로써 그를 적당한 위치에 배치하여 자기의 력량과 기능을 충분하게 발휘하게하며 로동자 기술자들의 사업의 성과와 창발성을 제때에 옳게 평가하여 높이 찬양함으로써 새로운 성과를 쟁취하기위한 용기를주며 우수한 선진경험들을 널리 교환하게하며 전체종업원들의 자각적 경쟁심을 추동시키며 각자가 자기맡은 과업을 고상한 자각적 책임하에서 실행하게하는데서 생산실적의 높은성과가 보장된다는것을 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종류의 일꾼들은 자기가 행정 경리사업으로서 눈에 보이는 큰 원료부족같은 문제들이나 해결하면 당사업이 다 되는듯이 생각하였기때문에 일이 잘못되는 경우에는 「당에서는 이러저러한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었는데 왜 사업이 지금도 락후되었는가」고 큰소리치면서 자기사업을 과대평가하며 간부들을 처벌하거나 좋아하는 전형적인 관료주의 분자들입니다。

이와같이 전설사업을 당정치적 조직적으로 보장하지못하는 부분적사실들은 생산직장내에만 있는것이아니라 다른 부면에있어서도 볼수있습니다。 특히

농촌부면에있어서 부분적 일군들은 당의 농촌에관한 정책을 약화하며 당사업을 행정화합니다。 농촌당단체들은 자기사업을 반드시 개인소유를 기초로한 농민들의 리해관계와 국가적 리해관계를 결부시키며 국가적견지에서 그들의 애국적 창조적열성을 높이며 노력과 창발성을 발휘하도록하게하며 국가건설사업에 열성적으로 참가하게하여야 할것입니다。

그러나 하급당단체들을 검열한 결과는 일부당일군들이 농민들을 국가사업에 조직동원함에있어서 농민들의 정치적 자각성을 고려함이없이 자기의 정치적수준을 표준하여 기계적으로 사업한 사실들에 대하여 허가이동지는 지적하였다。

농민의 개인경리운영에있어서 농민들이 자원적으로 동원되어 호상협조(소겨리반 품아시등)하는것은 찬양할수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일부농촌들에서 농민들을 동원하여 타농민의 농가에서 일들을 하게하는것은 가장 옳지못한 작풍입니다。 이상과같은 사실들은 두가지형태의 결과를 나타내고있습니다。

그 하나는 농민들에게 의뢰심을 조장하여주며 국가적의무를 실행함에있어서 책임감과 열성을 배양하지못하며 수다한 농촌건달군을 양성할뿐만아니라 농촌생산력 발전을 저하시킬수 있으며 다른하나는 당간부들이 당사업을 진행함에있어서 농민들을 교양하며 우리당의 정치로선을 해부시켜 설복하게하며 자각적으로 모든사업에 발동케하는 창발력을 도리어 조해할수있습니다。

이와같이 건설사업을 당적으로 보장하지못하는 부분적 사실은 경제건설부문에만있는것이아니라 인민위원회 사업협조에 있어서도 볼수있었다는 실례들을 지적하면서 허가이동지는 보고를 계속하였다。

그리고 당내사업에 있어서도 몇가지 례를 든다면 아래와같습니다。

당문제를 해결하며 당사업을 진행함에있어서 당열성자와 광범한 당원들의 의사를 참작하지않으며 그들을 문제토의에 참가시키지않거나 혹은 제한하는 사실이 허다합니다。

당규약에 엄연하게 적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립되지않는 회의들을 소집하는것이며 당지도급과 간부들을 구성함에있어서 당내 민주주의기본원칙인 선거관계를 고려하지않고 되는대로 간부를 조동하거나 혹은 임명하는것입니다。

당사업에 있어서 당이 가지고있는 광범한 당조직과 당원들을 발동시키는 대신에 모든 사업을 상부로부터 행정적으로 집행하려는것입니다。 당사업은 행정 경리 사업과는 판이하며 그러한 사업방법으로서는 당사업을 할수없습니다。

당사업의 성과는 광범한 당원들이 당사업에 자각적으로 열성있게 참가하여 자기의 의견을 충분히 제기하며 당문제를 해결하는데있어서 주인답게 책

임적으로 참가하는 전체 당원들과 당단체들의 창조적 창발성에 기초하여야합니다。

그러나 일부 당단체들에서는 중요한 당사업을 진행함에있어서 당원들에게 그 의의와 내용을 해석하고 그 실행 방침을 토의하여 당사업을 당원들의 력량과 창발성에 기초하는것이아니라 상부에서 수많은 간부들을 파견하여 직접 그들이 모든 사업을 집행하려하는 옳지못한 사업작풍을 지적하여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그릇된 사업작풍은 일부 당단체들에 있어서 일반적 현상으로 되어있습니다。 당조직지도사업의 이와같은 결함들은 일상적 사업에 있어서의 관료주의와 형식주의의 첫걸음으로 되고있습니다。 분석적 산 지도를 초급 및 면당부들에 줄대신에 일부군당부는 한달동안에 수차의 상무위원회를 소집하여 결정서를 채택하여 하부에 전달하고 그의 결과를 기다리는 사업을 하고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지도는 하등의 좋은 결과를 가져올수 없었던것만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일군들은 결국 승리는 투쟁과 꾸준한 실천적 노력에서만 쟁취되며 세포와 군중속에 깊이 들어가서 직접지도하고 방조하고 하부의 의사와 요망을 듣는데서만 얻어질수있다는 것을 알지못하며 책상에앉아서 결정서만 잘 꾸며 내려보내거나 분주히 돌아다니면 사업의 좋은 성과가 서절로 손에 쥐어지는줄만 아는 대표적인 관료주의자인것입니다。

당조직지도사업부면에있어서 당내 민주주의를 준수치않으며 관료주의와 형식주의를 범하는것은 그 리유가 어데있든지를 막론하고 당단체와 당사업에대한 당원들의 창발성과 열성을 저하시키며 당원들로 하여금 당생활에 있어서 자기들이 주인이며 주인답게 활동하여야된다는것을 알지못하게하며 다만 간부들과 상급당기관의 지시만 기다리고 기계적으로 움직이게하는 옳지못한 경향을 조성하는것입니다。

다음으로 이번 총결사업에서 나타난 기본결점의 하나인 당장성사업에대하여 지적하려합니다。

일부 당단체들에는 당장성사업에 있어서 가장 해로운 두가지결함인 관문주의적 경향과 당을 조합화하는 경향이 여전히 시정되지못하고 있는것을 지적하여야 하겠습니다。 일부당단체들은 광범한 근로인민들 특히 생산로동자들에대하여 그들을 항상 민주주의 건설 사업을 통하여 교양하며 당에대한 인식과 열성을 높여줌으로써 당에 입당하려는 지망을 제고시키는 준비사업을 진행하지않으며 당장성에 노력하지않고 다만 그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소위 무식하다는 구실로 입당을 거부하고있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이와반면에 당을 조합화시키는 경향에대하여 말한다면 일부당단체들에서는 검열되고 우수한 근

로자들을 개별적 입당절차로써 당대렬내에 받아들이면서 계통적으로 당성분을 개조할 대신에 아직 충분히 검열되지않은 자들을 당규약을 위반하면서 대량적으로 입당시키는 일들이 허다합니다。

당장성에있어서 일부당단체들이 범한 이와같은 착오와 결함들은 결국 민주건설사업에 있어서 검열되고 준비된 우수분자들을 당대렬로부터 탈리시키는한편 불순분자들이 당대렬에 들어올수있는 가능성을 초래하였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이와같은 엄중한 오유들을 시급히 시정하고 당장성사업을 당중앙위원회가 제시하는 로선에 엄격히 의거하여 진행하도록 각급당단체들의 각별한 노력이 있어야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당정치교양사업에서 나타나는 엄중한 결점들에대하여 말하려합니다。 오늘 우리당 정치교양사업에서 반드시 퇴치하지않으면 안될 결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당학습망조직에있어서 당원들의 정치적 리론수준을 표준으로 하지않고 그들의 사회적 지위를 표준으로 하였기때문에 학습체계에 있어, 많은 혼란성을 가져왔으며 한세포 학습회에 대을을 졸업한자와 문맹퇴치자가 함께 망라되고있는 형편이며 또한 자습당원에대한 규정을 옳게 하지 않았기때문에 자습능력이 없는 당원들까지 자습망에 망라시켜 많은 당원들을 사실상 당학습으로부터 제외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둘째로, 학습제강이 다수경우에있어서 당원들의 수준에 알맞지않는 어려운 내용으로 되였고 동일한 내용이 중첩되였으며 오늘의 조국의 정치적 생활과 결부됨이 부족하였으며 당원들에게 당로선의 정당성조차 인식시키는 내용이 부족하였습니다。 또는 전체당원들을 국제주의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며 당내에 있을수없는 협애한 부르쥬아민족주의적 편향을 말살하고 방지하는 사업에서 당단체들이 상당한 노올하여 적지않은 성과를 거두었으나 아직도 광범한 학습망들에서 이러한 내용을 계획적으로 체계있게 교양하는 사업이 미약합니다。

셋째로, 당정치교양사업의 진행방법에있어서 다수 강사들이 당상급기관의 강습회에서 배워온 내용을 그대로 기계적으로 옮겨주는 현상들이 허다하며 당학습회에 다수 비당원들을 참가시켜 당학습회를 군중화하여 그의 당성을 희박하게하며 다른한편 비당원 군중들에대한 교양사업도 사회단체들로하여금 원만히 진행하도록 협조하지못하는 결점들을 볼수 있습니다。

넷째로, 당원들의학습 특히 자습당원들의 자체교양을 검열하고 방조하는 체계가 수립되지못하였으며 토론회, 담화회, 특히 쎄미나르등을 적절히 조직하지 않았기때문에 당기관들과 지도간부들은 하

부일꾼들과 당원들의 학습정형을 파악하지못하고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각급당단체들은 당정치 교양사업을 당의 전체 중요사업의 하나로써 진행하지않고 이를 선전선동부의 부사업으로만 위임하여버리며 각급당부위원장들과 부위원장들이 이 사업에 관심을 덜 돌린 결함들을 볼수있습니다。

지난사업기간에 우리당사업에서 나타난 결점들은, 간단히 이러합니다。

이번 총결사업을통하여 나타난 당초급당단체들의 사업발전과정에 존재하였던 기본적결점은 당원들이 당세포생활에 있어서 자기에게 부여된 당규약상 권리와의무 또는 당사업에있어서 주인다운 책임적 역활과 창의적 열성을 발휘하도록 조직하지못한 각급당지도기관의 결점이있으며 우리당이 청소하고 당일꾼들의 사업경험이 적으며 당간부들과 당원들의 정치사상적 리론수준이 낮은데 있는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계속 당내에 강한 비판과 자기비판사업을 전개하여 불순한경향과 부패한 사상잔재들과 투쟁하여야 하겠으며 당원들의 정치리론학습을 제고하며 실지사업을 통하여 배우며 사업경험을 충분하게 체득하여야 하겠습니다。

일부당단체들이 범한 이와같은 제 결점과 오유들은 로동계급을 핵심으로한 근로인민들의리익을 위하여 끝까지 투쟁하는 우리당의 사명과 의무의 중대성에 비추어볼때 질로 참을수없는 엄중한 결점이라는것을 지적하며 이에대하여 전당의 특별한 주의를 환기시키는바입니다。

우리당은 조국의 완전자주독립과 민주화를위한 투쟁에서 언제나 주도적 역활을 수행하였으며 또 앞으로도 더욱더 견결하고 꾸준한 투쟁을 계속하여야할 과업이 우리에게 부과되어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우리가 이상에서 지적된 제반 결점들을 시급히 퇴치하지않는다면 우리당의 옳은 정책이 전체 당원들과 일반 군중속에 충분히 침투되지못할것이며 따라서 당은 앞으로의 새로운 투쟁에서 만족할만한 성과를 거두지못할것입니다。

三、우리조국에 조성된 정치정세와 우리당앞에 제기되는 과업

허가이동지는 우리당단체들의 이와같은 결점들에 비추어 앞으로의 과업을 제지하기위하여 우리조국에 조성된 정치정세를 간단히 지적하였다。

오늘 세계도처에서 발생되고있는 정치적 사변들은 그 모두가 국제 제국주의 반동진영과의 투쟁에 있어서의 민주진영의 위대한 승리를 시위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쏘련을 위시로하는 전세계 민주력량은 날이 갈수록 미제국주의를 선두로하는 세계제국주의진

영의 침략적 야욕을 무찌르고전 진하고 있으며 독립과 자유를 갈망하는 피압박인민들의 해방투쟁을 백방으로 방조하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쏘련은 우리민족을 일제 기반하에서 해방시켜 주었을 뿐만아니라 조국의 통일과 독립을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을 시종일관하게 원조하여 주었으며 자기군대를 우리조국강토로부터 완전히 철거한 오늘에 있어서 우리에게대한 원조를 더욱 강화하며 앞으로도 변함없이 원조하여줄것입니다. 이는 곧 우리조국인민의 투쟁이 고립된 환경에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강대한 국제민주력량의 지지와 방조를 받고있음을 하여주는것이며 우리들이 승리할 가장 강력한 담보로되는것입니다. 그러나 조국의 완전통일과 독립을 위한 조선인민들의 투쟁앞에는 아직도 대단한 난관과 장애물이 가로놓여 있습니다.

우리당앞에 제기된 과업들은 어떠합니까? 우선 우리에게는 우리당사업을 직채함에있어서 긴장성과 경각성이 더 강하게 요구되며 사상전선에서 당사업을 더욱 강화할것이 요구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사업면에있어서 고도의 긴장성과 경각성을 가지며 사업의 대소를 물론하고 우리사업에서 「라침반」적 역활을 노는 신축성있고 경험이 풍부한 산 리론으로 무장하여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리론은 다만 맑쓰—레닌주의뿐입니다. 맑쓰—레닌주의는 어떠한 환경과 복잡성가운데서라도 능히 곤난을 극복하고 앞길을 전망하는 힘으로되며 백전백승의 무기로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위에서 말한바와같이 오늘 우리당의 사업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허다한 곤난성이있으며 이 곤난성을 타개하는 유일한 「라침반」으로되는것은 맑쓰—레닌주의와 불쉐위끼당의 사업경험이며 또 맑쓰—레닌주의만이 이를 해결하여주는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오늘의 국내정치적 환경에서 당원들과 당간부들에게 맑쓰—레닌주의 교양사업을 강화하는사업은 우리당의 가장 긴급한 과업으로되는 것입니다.

다른방면으로 오늘의 환경에서 우리의 완전통일 자주독립을 하루속히 쟁취하기위하여서는 미제국주의자들의 민족분렬과 식민지노예화정책을 반대하는 일체 민주주의당파 애국력량을 공화국정부주위에 튼튼히 결속시켜 공화국정부의정강을 실행하는 투쟁에 매진하게하며 그들속에 우리당로선의 정당성을 침투시켜야 하겠습니다. 그러기위하여 당은 일부 우리당원들이 공화국 중앙정부가 수립된 사실에 도취하여 앞으로의 더 엄중한 투쟁과업을 망각하고 통일전선사업과 행동통일정책에 대하여 관심을 적게 돌리는 경향들을 반드시 퇴치하고 민주주의 제정당 사회단체들과의 민주주의 민족통일전선을 더 일층

강화하며 나아가서 애국적인 중간파와 우익세력들과의 행동통일정책을 더욱 강화하여야 하겠습니다.

당단체들은 솔선하여 공화국헌법과 정강과 제법령들을 인민대중속에 부단히 해석하여 그들의 정치적 열성을 높이며 그들로하여금 국가사업에 더욱 자각적으로 열성있게 매진하게함으로써 그들에게 우리당 영향을 강화하며 그들을 공화국 중앙정부주위에 더 튼튼히 집결시켜야 하겠습니다. 이렇게함으로써 당단체들은 하루바삐 미제국주의자들의 군대를 조국강토로부터 철퇴케하며 전체인민들과 절대다수의 제정당 사회단체들로부터 이미 고립되고있는 리승만 김성수 리범석등 매국도당들과 그 괴뢰「정부」의 정체를 폭로하여 그들을 더욱 고립시키며 매장하는 투쟁을 전인민적으로 전개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완전통일 자주독립국가쟁취를 위한 투쟁에서 신속히 승리를 획득하기위하여는 공화국·북반부에서 인민들이 달성한 민주개혁의 제성과들을 공고화대하며 인민경제와 민족문화를 발전시키며 도시와 농촌 근로대중들의 물질 문화생활수준을 부단히 향상시키는 토대위에서 공화국의 경제적 문화적 기초를 공고확대하는 투쟁을 강력히 전개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러기위하여 당단체들은 전체당원들의 정치적열성을 제고하여 공화국북반부의 二개년인민경제계획의 성과적 달성을 보장하여야 하겠으며 산업 운수방면에서 생산능률을 제고시키며 생산행정을 개신하며 로력조직을 세밀히하며 생산품의 질적향상과 생산의 합리화를 보장하며 로동자 기술일꾼들의 기술적창안을 광범히 전개하기위한 백방의 대책들을 강구할것이며 농촌경리 방면에서 농산물수확고를 더 일층 높은 수준으로 향상시키며 파종면적을 확장하며 영농방법을 개선하며 농작물 재배방법을 합리화하는 사업을 반드시 보장하여야하겠습니다.

또한 공화국 북반부의 지방정권기관들을 강화하며 금번 실시되는 도、시、군、구역인민위원회 선거사업을 높은 정치적 수준에서 집행하며 전체인민들의 열성적 자각적 동원으로써 또한번 거대한 승리를 쟁취하도록 보장하여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정치적과업들을 원만하게 수행하기위하여는 조국독립을 위한 인민의 투쟁에서 핵심적 주도적 역활을 하고있는 가장 강대한 정치적력량인 우리당을 조직적으로 강화하며 그의 전투력을 강화하는 사업이 중요하게 제기됩니다.

당을 더욱 공고화하는 부면에 있어서는 우선 당대렬의 순결성과 엄격한 규률을위한 투쟁을 더욱 강화하여야 하겠으며 당의 전투력을 강화하기위하여서는 당간부들과 전체 당원들을 백전백승의 맑쓰—레닌주의와 불쉐위끼당의 혁명적 투쟁경험으로 무

각성을 동원조직하여야 하겠습니다。

당내부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는 당사업을 행정화하는 폐단들을 근절하고 집체적사업방식을 강화하며 매개간부들과 당원들의 책임성을 제고시키도록하며 당내민주주의를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겠습니다。

모든 당적방침들과 대책들을 결정함에 있어서 반드시 그에 관계되는 간부들과 당원들의 참가밑에 심중한 토의를 거쳐결정을 채택할것이며 일단 채택되고 결정된 문제들을 실행함에 있어서도 그에 관계되는 간부들과 당원들을 사업집행에 동원하고 참가시키며 동시에 당회의에서나 당상급기관의 지시로써 위임맡은 과업실행에대한 해당일꾼들의 책임성을 높이도록할것입니다。

전체간부들이 일상적으로 하부 일꾼들과 당원들에게 접촉하며 그들속에 들어가 그들의 의견과 의사와 욕망에 귀를 기울이며 그들의 사업을 지도하고 방조하며 그들이 제기하는 문제를 해결하여 주도록 할것입니다。

둘째로、당사업을 진행함에있어서 사업상 비판을 억압하는 경향들과 무자비하게 투쟁하며 당간부들은 비판을 대담하게 접수할줄 알아야 되겠습니다。당내비판과 자아비판은 반드시 높은 당적 정치적 수준에서 진행하여야하며 일부 당단체들에서 볼수있는바와같이 다만 형식적으로 아무 진행하는 경향과 일부 당단체들에서 보는바와같이 당상급기관의 지적을 말로서만 접수하며 대담하게 결점들을 시정하려고 하지않는 경향들에 대하여 강력한 투쟁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셋째로、당단체들은 근로인민들의 요구를 제때에 살피며 그를 원만히 해결하여 주어야 하겠습니다。성 및 관리기관당단체들은 생산직장내 요구를 민첩하게 수용하여주며 로동자들의 작업복과 기타 일상생활 필수품과 보건의료시설들을 보장하여주며 직업동맹내당단체들은 로동자들의 창발적열성을 제고함으로써 주택을 수축하며 그들의 물질문화생활수준을 향상하기위하여 더욱 노력하여야 되겠습니다。

넷째로、전체당원들과 당간부들을 맑쓰—레닌주의사상으로 철저히 무장시키고 그들의 정치리론수준을 더욱 향상시키기위하여 백방으로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일부당원들과 당간부들이 학습을 게을리하는 불량경향들을 퇴치하고 그들을 전망없는 실무주의자로부터 구출하는 대책들을 더욱 강하게 세워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당원들에게 당로선의 정당성과 반동파의 투쟁에있어서 승리에대한 신념을 높여주며 계급적각성을 제고시키며 국제주의적 사상교양을 강화하는 구체적이고 체계있는 학습내용을 보장하여주며 매개당원들의 정치적 수준에 적합한 학습제강을 제시

정하여야하며 당내에서 사업지도방법을 개선하며 당단체들이 광범한 대중과 튼튼한 련계를 더욱 밀집하게 가지도록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제과업들을 성과있게 실행하기위하여는 우선 무엇보다도 우리당의 초급조직인 세포를 시급히 강화하는 문제가 어느때보다도 가장 중요하게 제기됩니다。우리당의 초급조직인 세포를 더욱 강화하며 세포의 활동이 더 풍부할것을 요구합니다。세포를 일층강화하며 세포활동을 더욱 풍부케하기위하여는

첫째로、각세포들의 사업을 생산별로 옳게 인식하고 구체적과업을 올바르게 제기하여야 하겠습니다。

둘째로、세포에 소속한 당원들을 당사업에 총망라하도록 분공 조직을 명확히 할것이며 이는 시기적 계절에 따라 기동성있게 조직할것입니다。세포가 크면 클수록 그 사업이 복잡하며 그에따라서 사업집행에있어 곤난의 비중이 큰것을 인식하고 사업성질에 의하여 민활성있게 세포를 조직할것입니다。

셋째로、세포회의는 당원들의 학교입니다。그렇다고해서 세포회의를 학습회와 동일시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그러나 어떤 당단체들에서는 학습회에서 취급할 문제를 세포회의에서 취급하는 실례들이 부분적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간혹 세포회의에는 정치문제나 정치시사문제에대한 토의로써 강연회의를 열고 비당원열성자들을 망라시켜야 하겠습니다。

넷째로、세포는 소속한 당원과 그 주위의 군중들에게 일상적으로 교양과 당적영향을 줄것이므로 그 범위는 대담히 광범합니다。

다섯째로、면당부는 군당의 지시를 옳게 접수하고 군당부와 세포와의 사이에서의 군당부의 방조적 역활을 충분히 높아야 할것입니다。

당사업이 부족하게 진행되는 원인은 당지도기관들의 지도방법이 불충분함을 보여주는것입니다。목선 우리당사업에 존재하고있는 부분적 결점들을 반드시 시정하기위하여는

첫째로、당사업지도방법을 철저히 개선하여야 하겠습니다。제반 경제과업을 실행함에있어서 당단체들은 당정치사업을 강화하며 당원들과 당외 군중들에게 해석선전사업을 강력히 진행함으로써 경제과업들의 수행을 정치적으로 보장하여야 하겠습니다。그러하기위하여는 민주건설의 협조사업을 산업에서나 상업에서나 농촌에서나를 불구하고 그 량과 질을 실질적으로 풍부하게하여야 하겠습니다。다시말하면 산업에서는 계획량만 보장하는것이 아니라 물품의 질이 좋아야하며 기업체들이 국가에 리익을 바치며 상업부문에서 계획실행함으로써 인민에게 제때에 값이 헐 물품을 팔게하며 국가의 즉 전인민의 소유인 재산을 랑비 파괴 절취하지 못하도록 전인민의 정

하여야 하겠습니다。

당학습체계를 정확하게 개편하며 당화습과 군중학습을 엄연히 구별하여 당정치학습에 당성을 제고하며 동시에 광범한 군중에게 정치적 학습을 원만하게 주도록 사업을 실시하여야 되겠습니다。 당단체들은 군중속에서 정상적으로 내용과 의의깊은 선전선동사업을 전개하며 특히 생산직장과 농촌에 당선전선동사업을 철저히 침투시켜야 하겠습니다。

당정치교양사업과 당선전선동사업에서의 엄중한 결점들을 시급히 퇴치하고 이 사업에 전변을 가져오기위하여 당중앙본부는 더욱 구체적이고 계통적인 연구로써 계획적으로 사업을 조직할것이며 각급당단체들은 반드시 이 사업을 당의 가장 중요한 전체적 사업의 하나로써 강력히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섯째로、하급당단체들에대한 지도사업수준을 더욱향상시켜야 하겠습니다。 당단체들을 지도함에있어서 일반적으로 보편적인 지도를 할것이아니라 오늘 우리당단체들의 사업발전수준이 균정치못하며 그 내용과 발전속도에있어서 현저한 차이가 발생된 조건위에서 그 구체적 환경에따라 구체적으로 개별적으로 각 당단체들을 지도하여야하며 특히 하급당단체들은 매개당원에게대한 개별적 지도사업을 구체적으로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 당기관들은 생산 운수 농촌 사무기관 당단체들에대하여 개별적 특수성에따라 지도방침과 대책들을 수립하고 사업을 일상적으로 방조하며 지도하여야 하겠습니다。

당장성사업에있어서 민주건설사업과정에서 검열되고 훈련된 우수한 로동자 농민 근로인테리들을 개별적 입당절차에 의하여 계속 당대렬내에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당은 자기대렬에 망라된 八〇여만의 당원들의 거의 전체가 신입당원이라고 볼수있는 당년한이 어린 당원이며 그 성분이 동일치않으며 사업경험이 적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신입당원들에대한 당조직사업과 당정치사업을 강화하여야 하겠으며 이러한 조건에서 당열성분자들을 양성하는 사업을 체계있게 조직적으로 진행하여야 하겠으며 세포핵심을 옳게 선발 조직하여 그들을 실지 당사업과 당정치학습과 특별단기 강습을통하여 교양하며 양성하여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당 세포핵심을 양성하는 문제는 새로운 의미에서 중요하게 제기됩니다。 그렇기때문에 핵심분자 양성사업을 면당부나 시 군당부 지도원에게 위임할것이아니라 시 군당부 위원장들이 직접책임지고 당적으로 이 사업을 세밀한 계획밑에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

하급당단체사업을 지도하는데있어서 무수한 결정서와 지시로써 사업을 하려고 하거나 당부의 부차적 일꾼들로써 하급당단체를 지도하려는 그릇된 작

풍을 일소하고 도、시、군당부 위원장과 당단체 중요 책임 일꾼들이 직접 이 사업에 참가하여 당의 산 지도사업을 보장하며 하급당단체들과의 밀접한 련결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여섯째로、근로대중들의 군중적 단체인 민주주의 사회단체들의 사업을 실질적으로 방조하며 강화하여야 하겠습니다。

당지도기관들은 당조사업을 지도방조하며 당조와의 련락을 긴밀히하며 당조사업을 실질적으로 강화하여야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들의 사업에대한 관심이 적어지는 경향을 시정하고 각급당부 위원장 또 부위원장들이 적접 사회단체사업을 협조하며 거기에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써 보고를 끝맺습니다。 간단히 결론한다면 지난동안 제二차전당대회이후 사업에서보는바와같이 우리당은 인민들의 기대에 어그러지지 않게 자기역활을 수행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당사업발전에대한 전인민들과 조국의 기대는 크며 우리당의 임무는 중대합니다。

우리당의사명을 전인민앞에서 능히 수행하며 재반 투쟁에서의 핵심적 지도적역활을 제고시키는 일은 우리당의 강대한 조직적력량을 동원함이없이는 도저히 생각할수도 없습니다。

전체당단체와 당원들은 당을 강화하며 당조직사업과 당지도사업수준을 높이는데 전당적 주의를 돌려야 하겠습니다。 (박 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一九四九년—一九五〇년도 二개년간 인민경제계획 실시에 있어서의 당단체의 과업에 대하여

북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
정치위원 김 책

동무들!

지난一월二十八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최고인민회의 제二차회의는 一九四八년도 인민경제예정숫자실행을 총결하면서 그 기초위에 우리공화국의 자립적공업발전의 기초를 축성하고 전체인민들의 물질문화 생활수준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위한 一九四九년—一九五〇년도 二개년 인민경제예정숫자를 접수하였습니다。

동무들!

지난 두햇동안 인민경제를 계획적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있어 우리공화국북반부인민들은 진실로 거대한 업적들을 성취하여 놓았습니다。 수다한 공장과 광산 기업소들을 파괴로부터 복구하였을 뿐만아니라 그를 확장 발전시키었으며 또한 새공장들을 시설하고 광산들을 개발하였습니다。

一、一九四八년인민경제계획 실행을 위한 우리당단체의 투쟁

항상 근로인민들의 선두에서 그 리익을 옹호하며 인민정권을 받들어 조국의 민주건설을위한 장엄한 력사적투쟁에 헌신하고있는 우리북조선로동당은 조국의 경제적토대를 튼튼히하고 근로인민들의 복리를 증진시키는 一九四七년과 一九四八년 량차의 인민경제계획이 수립될때 이를 전폭적으로 지지찬동하고 자체의 단련된 조직적력량을 동원하여 계획실행의 영예스러운 사업에 착수하였던것입니다。

우리당단체들은 계획실행에 광범한 군중을 자각적으로 동원시키기 위하여 대중속에서 예정숫자의 의의를 널리 해석선전하였으며 수다한 당원들이 계획완수를위한 자기의 직장에서 선봉적 모범을 보

이었습니다。

흥남비료공장 당단체에서는 인민경제계획에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있는 비료생산을 더욱 높이기 위하여 년간계획을 一개월 단축시킴으로써 국가에 더많은 리익을줄것을 결정하고 이를 실행하기위한 제반대책들을 수립한후 공장내의 열성적인 기술자 기능자들과 수차에 걸치는 각종협의를 통하여 그들의 역활을 충분히 발휘시킴으로써 난관으로되어있던 기술문제들을 해결함에있어 많은 성과들을 획득하였으며 우수한 당열성자들을 주요한 부문에 배치하고 당지도간부들을 발동하여 광범하고 철저한 군중정치사업을 전개하였던것입니다。 이리하여 류산계에있어서는 난관에 봉착하였던 류산생산을 로동당원 김호삼동무를 비롯한 六〇여명의 모범일군들이 二十三일간이나 합숙하여가면서 류산기의 정비와 대보수를 제때에 보장하였으며 기타 압축기의 보수와 부족자재의 창안동에 당원들의 모범적역활을 충분히 발휘케함으로써 류안비료의 년간생산량을 약속대로 一개월단축하여 十一월二十八일에 완수하였을뿐만아니라 류안비료의 질을 세계적수준에까지 제고시키었습니다。

서평양철도공장 당단체들은 공장에부과된 수리계획의 성과적실행을 보장하기위하여 지금까지 폐기하였던 기관차까지 재생시켜야할것을 기술적으로 해명하고 三十三명의 열성당원을 중심으로 우선 폐차一一七호의 재생에 착수하였던것입니다。 이리하여 먼저 부족되는 기술진영의 강화에 착안하고 당원들이 솔선 기술문제의 해결에 궐기하여 가장 난관으로 되던 빨부조절의 특수기능을 요구하는데있어서 우리로동당원 허남동무외 五명이 밤낮을 가리지않고 二개월동안에 드디어 이 문제를 해결하였을 뿐만아니라 많은 로동당원들이 수다한 선진적창안으로 심각한 애로를 타개하여가면서 一一七호기관차를 비롯한 八대의 폐차를 재생시키는 빛나는 성과를 쟁취함으로써 자기의 년간계획을 一二〇%로 초과달성하였습니다。 서평양공장의 이와같은 우리당원들의 애국적기풍은 전체 북조선철도공장 기관구들에 보급되어 수리능력을 급진적으로 제고시키고 전체폐기되였던 기관차 五十二대를 재생시켜 一九四八년도 전체 수송계획실행에 있어서 결정적 도움을 주었습니다。

황해제철당단체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생산하게된 선철생산계획을 보장하기위하여 만주탄만으로는 불가능하다고하던 해탄생산을 우리당원들의 선봉적역활로써 생산을 보장할데대한 구체적방책들을 토의하여 한병환 리호범동무등 三十一명의 우리당원들이 주동이되어 과내 전체당원들이 적탄혼합과 장입방법등을 기술적으로 연구체득하는 사업에 솔선

적출하고 철저한 와사도 소제와 바ー나조절등 고열에 견디면서 해탄로의 열량을 꾸준히 보장하고 와사의 방출을 없이하는·작업들에 모범적역할을 발휘함으로써 콕쓰의 소성시간을 단축시키었을뿐만아니라 생산품의 질을 높여 왜정시 월 최고 생산량을 초과하여 우량한 선철생산을 기한전에 보장하였던것입니다。

인민경제예정숫자를 협조함에있어 우리당단체와 당원들의 이러한 선봉적투쟁은 오늘 어느부문에서나 찾아볼수있는 보통일로 되어있습니다。지난해에 산업 및 운수기관에서 자기의 모범적역활로 말미암아 八九九명의 우리당원들이 최고인민회의와 내각으로부터 영예의표창을 받았는바 이는 표창받은 전체인원의 七八%를 차지합니다。이리하여 오늘 인민경제예정숫자 실행의 높은성과는 우리당의 역활과 분리할수없습니다。우리당의력량은 조국경제건설의 력사적과업을 보장함에있어 거대한 핵심으로 되고있습니다。

동무들!

우리당의 이와같은 핵심적역활과 전체 북조선인민들의 열성적참가로 말미암아 一九四七년도의 승리를 토대로하여 수립된 一九四八년도 인민경제예정숫자는 빛나는 성과로써 총결되었습니다。

산업부문에있어 방대한 기본건설사업의 승리적 진척은 생산속도의 급속한 장성을 가져왔으며 평양화학공장 강서전기제작소 및 평양기계제작소를 비롯한 수다한 중요공장 기업소들의 복구확장은 국가산업에 커다란 발전을 가져왔습니다。우리들은 이 행정에서 수다한 고급기술간부와 경리일군들을 길러 놓았으며 공작기계 차륜 전동기등을 비롯하여 과거에 만들지못하던 수십여종의 귀중한 제품들을 생산하게 되었습니다。로력조직과 생산조직의 부단한 개선으로써 로동생산성이 一九四八년에는 一九四七년도에 비하여 一三六·一%로 향상되었으며 생산원가는 평균 九·五%까지 저하되었습니다。

이리하여 전 국영산업부문은 一九四八년도에있어 一○二·九%로 초과달성하였으며 이는 一九四六년의 총생산량에 비하여 二·六배이상의 비약적장성을 가져왔습니다。

농산부문에 있어서 총 파종면적은 계획에 대비하여 一○○·五%로 수행하였으며 곡물수확고는 一一三·六%로 장성하여 一九四六년도 수확에비하여 一四○·六%의 높은 성과를 거두게되었습니다。

철도수송에 있어서는 화물수송을 一○○·九%로 초과완수하였으며 평원 및 만포선 일부에 전철을 부설하고 평양 및 원산의 철도공장들을 확장하여 수송력의 급진적발전에 광범한 전망을 열어 놓았습니다。

상업류통부문에 있어서 국가와 소비조합 상점망

확장에서는 一三三·九%를 실행하였으며 류통총액은 각각 一五一·一%와 一二四·一%로써 초과달성하여 국가와 소비조합류통비중을 급속히 제고시키었으며 시장물가를 저하시키고 도시와 농촌간의 생산품을 교류함에있어 거대한 공헌을 남기었으며 기타 도시경영 및 시설사업과 교육문화등 각부문이 모두 찬란한 승리로써 총결되었습니다。

이리하여 우리들은 인민경제를 계획적으로 운영한지 불과 두햇동안에 많은 산업부문에서 일본제국주의자들이 조선을 략탈하기 위하여 시설하여놓은 산업시설들을 우리들의 자립적운영으로 전인민의 복리를위하여 생산하는 토대로 만들어 놓았습니다。파괴되었던 운수수단—더우기 민족경제발전을 위한 긴절한 요구에 수응하여 철도시설들을 복구발전시키었습니다。그리고 량곡이 부족하던 공화국북반부를 식량을 자급자족할수있는 지역으로 전변시키어 놓았으며 필수품생산의 확충과 교역망의 정비는 시장물가의 대폭적인하를 가능케하여 근로인민들로하여금 안정된 생활환경에서 더욱 열성적으로 조국건설사업에 참가할수있는 조건을 지어놓았습니다。이것은 곧 우리들이 공화국북반부에서 실시하고있는 사회경제체제의 우월성과 우리들이 수립하고 우리들이 수행한 인민경제계획이 옳았다는것은 말하는것이며 조국경제건설의 선두에서 투쟁하고있는 우리당의 승리를 말하는것입니다。

二、一九四九년—一九五○년 二개년계획의 기본내용

동무들!

一九四九년—一九五○년도 인민경제부흥발전을위한 二개년계획은 진실로 이러한 토대와 조건과 가능성을 근거로한 과학적계획인것이며 우리민족의 통일화와 번영을위한 견결한 력사적과업으로 되는것입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최고인민회의 제二차회의에서 채택된 二개년계획의 기본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업부문에있어서 국영총생산액은 (一九四八년도 가격으로) 一九四九년에 백九十二억二천三백四十七만원 一九五○년에는 二백六十억五천三백四十九만원으로 정하였습니다。이리하여 국영산업총생산액은 一九四八년에비하여 一九四九년에는 一四三·二%로될것이며 一九五○년에는 거의 二배에달하는 一九四·一%로 장성될것입니다。

이 계획을 달성하기 위하여서는 거대한 기본건설사업이 진행되는바 이에투자되는 자금은 一九四九년에 三十四억九천五백만원, 一九五○년에 三十七억九백一만七천원에 달하다며。국영산업부문에있어 생산의 급격한 장성과함께 국영산업생산액

사하는 로동자 기술자 기능자 사무원을 포함한 전종업원수는 一九四八년에비하여 一九四九년에는 一一九·二%로부터 一九五○년에는 一四○·三%로 증가될것이며 로동생산성은 一九四八년에비하여 一九四九년에 一二○·二% 一九五○년에는 一三八·二%로 제고될것입니다。

생산조직과 로력조직을 더욱 합리적으로 재설하며 비생산잡비를 축소하여 생산원가는 一九四八년에비하여 一九四九년에 九·三% 一九五○년에는 一八·三%를 저하시킬것입니다。

농촌경제발전에 있어서 一九四九년 一九五○년간에 과종면적은 一九四八년에 비하여 一·九% 즉 四만三천五백九十七정보이상을 더 확장할것이며 그중에서 미곡과종면적을 五·五% 공예작물과종면적을 五二·六% 증가시키게될것입니다。수도과종면적을 확장할목적으로 대대적인 관개공사가 진행될것인데 一九四九년에 七천三백四十정보를 새로관개할것이며、一九五○년에는 七천三백一정보를 새로 관개할것입니다。

이리하여 곡물(미 잡곡) 총수확고는 一九四八년에 비하여 一九四九년에는 一·八%、一九五○년에는 七·九%를 증가하도록 정하였을뿐만아니라 농촌경제발전을 위하여 二개년동안에 三十一억四천九백二十九만八천원이 투자될것입니다。철도운수는 화물수송에있어서 一九四九년에는 一천五백만톤을 수송할것이며 一九五○년에는 一천八백만톤을 수송할것인바 이는 一九四八년에 비하여 一五三·七%의 장성으로 되는것입니다。

철도공장에서는 一九四九년에 九백三十一량、一九五○년에 一천四十八량의 기관차를 수리하게 될것입니다。해상운수에 있어서는 화물수송량을 一九五○년에는 一九四八년에비하여 二二三·六% 즉 백二十만四천七백톤으로 제고시키게될것입니다。

체신부문에 있어서는 一九四九년—一九五○년 二개년간에 많은 전신 전화선로를 증설하여 각도 중앙도지와 중요한 군 면간에 전신 전화 련락을 완전히 보장하게 될것입니다。

상품류통에있어서 국가와 소비조합에 의한 류통액은 一九四九년에 백五十九억九천五백만원、一九五○년에는 二백十一억八천九백五十만원에까지 높이도록 정하였습니다。

二개년계획은 정치 문화 교육방면에있어서 인민들의 요구를 만족히 할수있도록 방대한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보건부문에 있어서는 一九四九년—一九五○년 二개년간에 三十五개소의 병원과 二백九十九개소의 각종치료기관이 신설될것인데 특히 많은 전문병원들이 설립될것입니다。

동무들!

二개년계획은 우리인민경제를 비약적으로 발전시키며 그 기술적토대를 확고히 할뿐만아니라 근로인민들의 물질문화적생활수준을 향상시킴에있어 커다란 전변을 가져올것입니다。

二개년계획실행과함께 중요생활필수품공급에서 나타나는 몇개의 부분적숫자를 들어본다면 면직물의 인구 一인당 배당량은 二개년계획을 수행하는 一九五○년에 가서는 一九四四년에비하여 실로 一六·六배로 장성될것이며 견직물은 一九四九년도에 九배이상으로 장성될것입니다。고무신은 一九四七년도에 인구五인당 一족의비률로 생산하였다면 一九五○년에 가서는 一인당 二족의비률로 생산할수있을것이며 로동자 一인당 평균임금수입은 一九四六년에비하여 四·三六배로 장성될것입니다。

상품류통에 있어서는 국가와 소비조합상업 류통액이 一九四八년에 비하여 一九五○년도에는 약二배로 장성될것인데 이는 시장물가를 더욱 저하시키고 인민들의 소비품에대한 요구를 더욱 충족시키어줄것입니다。또한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에대한 각종 배급물자는 一九四八년에 六억七천九백二十一만六천원으로부터 一九四九년에는 十三억三천一백八十六만원으로서 약二배로 증가될것이며 그중에서 二억六천一백十四만二천원에 해당한 작업복、로동화등 물자들은 무상으로 배급될것입니다。

二개년계획은 로동자들을 더욱 안전한 조건에서 작업하도록 보장할것이며 로동자들의 주택은 一九四八년에비하여 四만六천여호가 더 증축될뿐만아니라 많은 합숙소들이 신설되여 로동자들의 주택상편리를 공여할것입니다。

또한 二개년계획에있어 초등의무교육제도가 완전히 실시되어 一백四十四만三천명의 학령아동들이 완전히 취학하게될것이며 인민의 체육향상과 문화적요구에 수응하기위하여 각종 경기장 체육관들과 영화관、극장、도서실들이 광범히 설치될것입니다。

그리고 각종 · 의료기관들과 방역시설들이 철저히 정비되어 공화국북반부에는 무의면이 하나도 없게 될것이며 사회보험에의한 치료사업과 정、휴양에서 근로인민들이 받는 혜택은 더욱 커질것입니다。

二개년계획은 또한 공화국 북반부의 인민경제를 부흥발전시킬뿐만아니라 앞으로 남반부의 파괴된 인민경제를 부흥시키고 기아와 도탄속에서 신음하는 남반부인민들의 생활을 구원하며 재건 향상시키는 토대로될것입니다。이와같이 二개년 인민경제계획은 우리공화국 전체인민들의 행복과 번영을 위한 긴절한 요구로 되는것이며 오직 이 과업을 승리적으로 완수함으로써만이 부강한 독립국가로 될수있는것입니다。

三、二개년계획의 승리적실행을 위한 당단체들의 과업

제二차전당대회는 북조선에서 달성된 민주개혁들을 공고화하며 인민경제와 민족문화를 발전시키며 도시와 농촌 근로대중들의 물질문화생활수준을 부단히 향상시키기위한 투쟁을 우리당의 당면과업으로 제기하였습니다。二개년계획은 우리공화국의 경제적토대를 튼튼히하고 근로인민들의 생활형편을 근본적으로 개선시키는 력사적 과업인만큼 이를 성과적으로 보장하는 사업은 우리당의 가장 영예로운 사업으로 되는것이며 이 계획실행에 우리당의 전력량을 바치어야하겠습니다。

각급당단체들은 전체인민들로 하여금 이 계획을 철저히 파악하고 전력량을 발휘하여 이 계획을 승리적으로 수행하도록할것은 물론、일체 기회주의적 동요현상과 무자비한 투쟁을 전개하여야할것입니다。지난 二개년동안의 우리들의 체험은 우리들이 능히 경제를 계획적으로 운영할수 있다는것과 또한 경제를 계획적으로 운영함으로써만이 민족경제의 급속한 발전을 촉진시킬수 있다는것을 말하고있습니다。우리들은 경제건설에 있어서 부문과 크고 작은것을 물론하고 모두 계획화하여 어떠한 곤난한 점이있더라도 충분한 자신과 용기로써 이를 극복해 나가도록 하여야할것입니다。

二개년계획은 우리들이 지금까지 쌓아놓은 모든 성과와 생산조건들을 기초로하고 그를 과학적으로 편성한만큼 예정숫자생산은 반드시 경상적인 긴장상태에서 제때에 보장되어야 한다는것을 철저히인식시키도록 하여야할것입니다。지금까지의 생산실적은 많은 경우에 비정상적으로 움직이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매개 계획생산에 직접참가하는 일군들이 예정숫자에대한 충분한 리해를 가지지못함으로써 책임생산량을 실지작업조직으로서 보장못하고 로동시간을 가장 효과적으로 리용할데대한 애국적 책임감이 부족한데 기인되고 있는것입니다。

二개년계획을 실행함에 있어서 우리는 이러한 결점들을 퇴치할것이며 생산능률을 더욱 제고시킴으로써 이 사업을 보장해나가야 할것입니다。예정숫자를 실행함에있어 일부지도일군들이 계획의 중대성을 망각하고 되는대로 사업하려는 옳지못한 경향들과 견결한 투쟁을 하여야할것입니다。전체인민들은 국가법령인 예정숫자실행에대한 책임감과 자신을 더욱 굳게가지고 어떠한 난관이든지 극복하면서 그 수행에 매진하여야 할것입니다。생산계획을 실행함에있어 현장일꾼이나 관리국내의 지도간부들을 물론하고 국가로부터 부과된 예정숫자에 대하여서는 모두 공통적인책임을 지게될것입니다。

일부 지배인들은 어떤문제에 대하여는 능히 지방적으로 해결할수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에서 해결하여줄것을 기다리며 빈번히 중앙으로만 문제를 가져옴으로써 책임전가의 구실을지으며 일부 관리국내 지도일군들은 이 문제들에 대하여 심각한 검토없이 다만 접수하여둠으로써 사무적으로 해결하고있는 경향들을 보는것입니다。

二개년계획실행에 있어서는 모든 생산부문에 참가한 일꾼들은 누구나 다 지금까지에 얻은 고귀한 경험과 창발성을 발휘함으로써 지방에있어서 가능한 조건들을 리용하여 계획실행에서 신성한 국가적임무를 감당하여야 할것입니다。예정숫자를 실행함에 있어서 또한 반드시 실행하여야할 중요한 과제는 품종과 품질에서까지 반드시 자기가 책임진 계획을 제때에 보장하여야 할것입니다。과거 우리들의 경험은 일부 무책임한 관리일꾼들이 계획을 쉬운 방법으로써 금액상으로만 맞추어 놓으려는 옳지못한 견해로써 계획에없는 품종을 생산하는데만 치중하든가 또는 생산하기쉬운 품종을 생산하는관계로 자기의 기본계획을 완전히 보장하지못한 현상들을 나타내게 되었습니다。

성진제강소에서는 기계부문에서 가장 긴절하게 수요되는 특수공구강은 생산하기 힘들다는 구실로써 二백톤계획에서 단 한톤도 생산하지않고 비교적 생산이 용이하고 높은 액수를 차지하는 동관을 一六一% 동선二三六%를 생산하여 금액상으로만 숫자를 채워놓고있으며 평양철도국에서는 화물수송에 있어서 종합적수송톤수만 채우기에 몰두하여 전용선수송과 근거리수송에 편중하였던것입니다。

기업소내 일부 당단체들은 자기의 계획실행에있어서 이러한 자유주의적 경향들과는 무자비한 투쟁을 전개하여야 할 뿐만아니라 계획생산의 련관성을 매개일꾼들로 하여금 심각히 파악하도록할것이며 그들로하여금 자기의 책임생산은 오직 규정된 품종과 규격을 계획대로 생산함으로써만이 옳게 실행된다는 인식을 철저히 주입시켜 주도록 하여야하겠습니다。二개년계획을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서는 모든 정비와 원료자재를 백방으로 절약하며 일체 람비현상을 퇴치하여、모든 가능성을 계획실행에 남김없이 리용하도록 하여야할것입니다。

평양화학공장복구공사에서 자재로력을 더욱 성과적으로 조직하여 二천여만원의 예산을 절약한것과 강서전기제작소에서 계상된 자재를 더욱 효과적으로 리용함으로써 예산보다 四백五十여만원의 경비를 절약한것은 경비절약의 좋은 실례로 되는것입니다。경비절약은 원가를 저하시키는 가장 중요한 투쟁입니다。

우리산업이 정상적으로 발전되고 있음에따라 평

균생산원가는 절차적으로 인하되고 있으나 아직도 부분적 기업소들에서는 허다한 오작품들을 생산함으로써 원가를 높이고있는 사실을 보는것입니다。 평양영제요업공장에서는 아직도 二五%이상의 오작품을 생산하고있으며 평양체신기계제작소에서는 역시 부분적으로 六〇%이상의 오작품을 생산하면서 이에대한 시정대책을 강구할 대신에 일제시대에 만들지못하던것을 만드는만큼 오작품을 낼수있다는 락후한 관념으로써 오히려 이를 합리화 시키려고 하고 있는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오작품생산을 근절하기위한 사회적투쟁을 가강히 전개 할것입니다。 오작품을 많이 생산하는 기업소의 책임자들에 대한 국가법령의 철저한 집행을 보장하기위한 사회적감독을 강화하여야 할것입니다。 경비절약을 위한 운동은 생산기업소에서 뿐만아니라 로동자 사무원들의 가정생활에까지 확대하여야 할것입니다。 가정경리에 있어서도 모든것을 계획화하여 지출에서 일체랑비현상을 철저히 근절하여 이 절약운동으로써 二개년계획실행을 협조하여야 하겠습니다。

二개년계획을 성과적으로 보장함에 있어서는 생산능률을 항상 높은 수준에서 보장할뿐만아니라 이를위하여 각급 당단체와 매개 당원들은 자기 거업소생산의 실지정형을 잘 파악하며 이를 옳게 분석하고, 그에대한 대책들을 세울줄알아야 할것입니다。

과학적인 생산합리화와 로력조직은 로동생산성을 제고시키는 가장 결정적담보로 되는것입니다。 해방후 조국건설을 위한 로동자들의 애국적투쟁은 평균 로동생산성을 비상히 높은 수준에까지 제고시키여 놓았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 기업소일군들은 로동자들의 장성된 생산능률을 옳게 평가하지못하고 일제시대의 낡은 관습에 접착되여 로동자들의 로동능률의 자유로운 발휘에 도리여 장애를 주고있는 경향들을 보는것입니다。

례를 들면 작년도에 황해제철소와 성흥광산의 일부 직장들에서 로력조직을 재편하여본결과 수다한 로력을 절약할수 있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황해제철소에서는 압연분괴직장에서 기술적 검토위에 로력조직을 재편한결과 이 二五개직장에서만 三백여명의 로력을 절약하였으며 성흥광산에서는 항내와 선광장에서만 로력배치를 재편성한결과 원가를 낮추고 생산량을 높이였을 뿐만아니라 약二백여명의 로력을 다른 긴급한 부문에 공급하였던것입니다。 이러한 경험들을 반드시 다른 기업소에서 옳게 리용하여야 할것입니다。 그리고 생산능률을 높이기 위하여서는 모든 설비와 기계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도록 하며 기계를 애호하고 기계의 휴전률을 최소한도로 축소시켜야 할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수안광산에서는 자기의 책임량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八대의 마광

미루가 정상적으로 운전되어야 할것이나 현재실동대수는 三대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남은 五대를 작업시킬데 대하여 상당한 관심을 돌리지않고 있으며 성흥광산에서는 一백四十대의 착암기를 보유하고 있으나 二十六대의 착암기는 경상적으로 휴전상태에 있는 결과 계획보장에 지장을 주고 있는것입니다。 생산능률의 효과적 발휘는 기계와 시설에서 뿐만아니라 기술리용에 있어서도 그러한것입니다。 한직장에서 작업성질상 자기의 기술과 기능을 최고도로 발휘할수없는 기술자 및 기능자는 다른 직장으로 전용케함으로써 소유한 기술을 계획실행에 성과적으로 발휘하도록 하여야할것입니다。

각급 당단체들은 로동자들의 임금문제와 옳은 도급제 기준량의 규정, 기본임금의 정확한 사정을 보장하기위하여 적극 진출하여야 할것입니다。 정확한 임금조직은 생산의욕을 높이는 주요한 요소로 되는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도시경영부문과 일부 수산부문에서는 이에대한 정당한 사정과 계산을 할대신에 사무를 간소화한다는 구실밑에 임금을 평균적으로 계산함으로써 로동자들의 생산의욕을 조해시키고 있으며 기타 직장들에서도 도급미의 분배는 많은 경우에 실행한 도급생산량에 따라 배정되는것이아니라 도급에 참가한 전체인원이 평분적으로 타가는 경향들을 보는것입니다。 현재 산업성 산하에서 도급에 참가하고있는 로동자들은 약 五〇%정도로 되고있으나 작업기준을 측정할수있는 작업부문은 광범히 도급제를 더 확장할것이며 표준로동력에 심중한 주의를 돌려 불합리한점은 제때에 제거하도록 하여야 할것입니다。

생산능력을 더욱 높이기 위하여서는 생산직장들에서 로동자들의 건설적 창발성을 널리 채용하여야 할것입니다。 공화국 북반부의 로동자 기술자들은 이미 산업의 당당한 주인으로써 열성적으로 생산에 참가하고 있으며 생산능률을 높이기위한 그들의 창발적 고안은 지난 한햇동안만하여도 二백五十여종에 달하는바 이에의하여 국가에 준 리익은 실로 二억원이상의 다대한 금액으로 되고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부분적 기업소들에서 로동자들의 새로운 건의들을 제때에 취급하지않고 지연시키고있으며 이를위한 그들의 고상한 로력에대하여 방조를 약하게 주고있는 사실들을 보는것입니다。 사리원방직에서는 로동자들이 제의한 직기자동장치의 비치를 리유없이 지연시키여 직포의 질을 저하시켰으며 평양화학공장에서는 사용무연탄의 성분분석의 요구를 제때에 들어주지않은 관계로 말미암아 일시생산에 지장을 가져오게 하였던것입니다。

二개년계획완수를위한 투쟁에있어서는 우선 관리

사업에 로동자들의 더욱 광범하고 적극적인 참가가 보장되어야할것이며 그들의 새 발명과 생산합리화를위한 로력애 각방면으로 방조를 주도록 할뿐만아니라 생산협의회의 성과를 옳게 리용하도록 하여야 할것입니다。

새 二개년계획은 로동보호사업의 부단한 개선을 예견하고있습니다。 생산능률을 높이고 로동시간의 절약을 도모할뿐만아니라 생산로동자들을 기분좋게 작업하게 하기위하여 각급 당단체들은 로동보호와 안전시설사업들에 더욱 높은 관심을 돌려야 할것입니다。 해방이후 우리공장기업소들의 로동보호에 대한 시설은 상당히 개선되고있으나 아직도 많은 기업소들이 이 문제에대하여 관심이 약한것을 지적할수있는것입니다。 로동안전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현재 중요기업소들에 배치되고있는 안전기사(기수)의 역할을 높이도록 하여야할것입니다。 때문에 그들에게 안전장치에대한 실무강습들을 주도록하여 그들의 사업에대한 능력을 풍부히하며 당단체들은 생산직장에있어서 안전훈련을 받지않은 신채용 로동자들에게 중요한 기계를 담당시키는 경향과 로동자들이 로동보호물자들을 옳게 쓰지않는 경향들과 적극 투쟁하여야 할것입니다。

인민경제를 운영함에있어서 자기사업에대한 숙련과 기술습득을 위한 투쟁은 오늘 우리공화국 북반부에 있어 전인민적과업으로 되는것이며 매개 당원들의 고상한 당적임무로 되는것입니다。

二개년계획의 실행과 앞으로 부과되는 방대한 산업건설의 력사적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우리들은 반드시 기술을 소유하여야 하겠습니다。 평양기관구 리종화(로동당원)동무는 기관차의 정시운전을 확보하기위하여 자기의 운전기술을 더욱 높임으로써 이를 해결할것을 결심하고 기관차 검수와 구조리론을 실지운전과 함께 철저히 체득하고 기관차의 성능을 완전히 파악함으로써 고장을 근절시켜 작년八월부터 평양—신성천간을 一왕복에 스물두시간을 요하던것을 一왕복에 九시간씩 매일 二왕복을 보장하고있습니다。 기술을 습득하기위한 투쟁에있어 이 동무들의 좋은 경험을 널리 장려하여야 할것입니다。 기술전습제를 더욱 강화하여 매개 당원들은 자각적으로 이 사업에 참가하고 이 사업을 보장할것이며 수지로 배운성과를 발표 검토할 기회를 줄뿐만아니라 전습에서 우수한 성적을 가져온 로동자들에、대하여는 제때에 사정하여 급수를 올려줌과함께 이를 일반에 주지시켜 그들의 기술습득을위한 의욕을 더욱 고무하도록하여야 할것입니다。 특히 기술을 습득하기위한 투쟁에있어 기대되는것은 생산직장에있어 기사와 기수들의 역할입니다。

김일성수상께서는「낡은 기술자들은 새로 자라나는 로동자들을 배워주며 기능로동자들과 숙련로동자들은 새로들어온 로동청년들을 자래우며 배워주어야 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시였습니다。 해방후 三년유여 쏘련의 많은 선진기술자들이 우리나라 인민경제부흥발전을 위한 건설복구사업에있어 성심으로 기술적원조를 주었으며 또한 많은 기술자들을 양성배출케하여 주었습니다。 이러한 기술을 이미 습득한 기사와 기수들은 새로 자라나는 기술자들을 일상적으로 원조하여 낡은 보수적관념에 집착될것이아니라 새로운 선진기술의 습득에 용감히 후진들을 이끌고 나아가도록 하여야할것이며 또한 앞으로 쏘련의 우수한 선진과학기술을 배우며 이미 습득한 기술향상에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것입니다。

생산능력을 제고하는 투쟁에서 기본건설의 확장은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것입니다。 二개년계획내용에는 방대한 기본건설계획이 포함되어있는바 건설사업은 반드시 예정계획대로 확보하도록 보장하여야할것이며 이 사업을 생산보다 二차적으로 취급하고 탄광 광산들에서 생산이 급하다는 구실로써 기본건설일군들을 류용하는 일들이 없도록 하여야 할것입니다。 건설공사에 있어서 동일한 성절의 공사들에서는 어느부문을 물론하고 국가기관에 있어서는 임금지출의 균일화를 기하도록 하여야할것이며 청부제를 폐기하는 사회적 관심을 높여야 할것이며 아직도 많은 공사부문에서는 춘공기한이 촉박한다는 구실밑에 무원칙한 투기적 임금을 지불하여 기술자들의 이동을 조장시키고 다른 부문의 로력수급에 장애를 주고있는 현상들을 보는것입니다。 기본건설사업에서 이와같은 무원칙한 사실들이 없도록하여야 할것이며 지역적으로 가능한 부문에서는 각 공사장들에서 기술자와 기능자들을 호상 교류하는 대책들을 세워 기술리용을 효과적으로 보장하도록하며 사택건설들은 그 급수와 규격을 규정하여 설계를 동일하게하고 건구공장들을 설치하도록하여 기본건설사업을 간편하고 문화적으로 추진시키도록 하여야 할것입니다。

생산직장내 로동규률을 더욱 강화하기위한 사업에 당단체들의 높은역할이 더욱 요구되는것입니다。 해방후 三년동안 로동규률은 점차로 강화되고있으나 아직도 많은 부문에서 四八〇분 로동시간이 충분히 리용되지못하고 비규률적인 조퇴와 지각들이 근절되지않아 이는 로력계획에 착오를 가져오게되며 계획보장을 위한 시간외작업을 초래케하여 로동법령을 약화시키고 국가지출을 가중하고 있는것입니다。 례를 들어 평양철도공장에서 지난 한햇동안에 계획보장을 위한 시간외로동은 九천八백七十五시간

인바 동공장의 결근 지각 조퇴등 랑비시간은 一만一천一백十시간에 달합니다。 신창탄광에서는 책임량달성을 위하여 五만一천五백六十五시간의 시간외로동을 리용하였으나 로동규률이 강화되지못함으로써 랑비시간은 五十二만二천九백七十시간에 달하였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들이 만약 로동시간을 옳게 리용하도록 조직하였다면 시간외작업은 조금도 필요하지 않았을것입니다。 二개년계획실행을 위하여서는 고상한 로동규률준수를 위하여 철저히 투쟁하여야할것이며 직장내부 규칙을 더욱 강화하여 四八○분로동시간을 엄격히 준수하도록하며 또한 응원로력을 조직하는것 보다도 우선 무단결근을 먼저 퇴치하여야하겠습니다。

생산조건의 향상과함께 로동자들의 전국 증산운동은 점차적으로 높은 수준에서 추진되고있습니다。 그러나 이 운동을 지도함에있어서 증산시간을 로력조직과 작업방식들의 합리적인 검토로 재편성함으로써 생산을 한계단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계기로서 인식하지못하고 기간만 규정하여 자재의 보장과 보수문제에대한 충분한 고려도 없이 선동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결과 이 사업은 많은 경우에 기대하는 성과를 거두지못하고 기간이 끝나면 일단 제고되였던 생산능률이 도리어 저하되는 사실들을 보는것입니다。 앞으로 증산경쟁은 로동자들의 생산의욕을 옳게 받들어 그 조건들을 보장하여 생산을 더욱 높은 수준에서 추진시키기위한 사업에 특별히 관심하여야할것입니다。 증산경쟁은 량적생산과함께 제품의 질을 높이는 문제에 더욱 관심하여야할것이며 기간을 마친다음에는 숫자만 총결할것이아니라 생산행정에서 나타난 모든 문제들을 분석하며 경험을 살리도록하며 매개 로동자들로하여금 생산을 발전시킴에대한 새기대를 가지고 이 운동에 참가하도록 하여야할것입니다。 천내리 세멘트공장에서는 작년 五·一절증산기간에 증산목표를 달성하기위하여 생산합리화운동을 전개하고 세멘트포장작업을 계획화하여 五명의 인원을 절약하고 생산능률을 三배이상으로 제고하였으며 이 방법은 지금 각 세멘트공장들에 널리 채용되어 능률을 높이고있으며 신의주방직공장에서는 작년 三·一절증산에서 비로소 한사람의 직공이 기계두대를 보는 운동을 전개하여 그 경험으로 현재 八대까지보고있는바 이러한 사실들은 증산운동의 좋은 경험으로 되어야할것입니다。

각급 당단체들은 로동자들의 생활을 더욱 향상개선시킴에있어 더욱 높은관심을 돌려야할것입니다。 인민경제계획실행 과정에있어서 생활필수품 생산의 증대와 물가저하정책으로 말미암아 로동자들의 생활수준은 점차적으로 개선되고있습니다。 그러나 이

직도 일부 기업소들에서는 이를위하여 더할수있는 조건들을 잘 리용하지않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일부 직업동맹단체들은 자기에게 부과된 임무를 잘 인식하지못하고 로동자들의 생활개선은 오직 행정관리측에서만 보장하여 줄것으로 기대하고있는 경향들을 보는것입니다。 이리하여 근로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향상을위한 로동자들의 자체적 조직이나 사회적보장을 줄 문제들에 대하여서는 깊은 주의를 돌리지않을 뿐만아니라 국가로부터 이 사업을 위하여 위임받은 문화비의 사용까지 그 적지않은 부분을 옳지않게 랑비하여버리는 사실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각급당단체들은 로동자들의 생활형편을 높이는 사업에 더욱 적극적 노력을 하여야할것이며 아직도 남아있는 잠재노력을 가급적으로 생산에 진출케하며 그들의 수익을 높이도록하는 방향에 관심을 돌릴뿐만아니라 각종 문화조직과 생활조직을 지도하는 사업에까지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할것입니다。 농림부문에있어서 중요한 과업은 영농법을 개선함으로써 토지리용률과 정당수확고를 더욱 높이며 관개사업과 하천시설에대한 전인민적협조를 강화하여 모든힘을 부강한 민주조국건설을위한 사업에 복종시키도록 하여야할것이며 삼림애호와 삼림증식을위한 사회적관심을 높이도록 하여야할것입니다。 공예작물 증식을위한 사업은 二개년계획에서 중요한 과업의 하나로 되고있습니다。

김일성수상께서는 제二차전원회의의총결연설에서 「공예작물에 대하여는 풍부한 수확고를 보장하는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기위하여 금년부터는 면화가 잘되는 지대구역에 거주하는 농민들은 자기경지면적의 대부분을 면화재배에 리용하여야 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시였습니다。

농촌당단체들은 공예작물 증식에대한 문제에 더욱 주의를 돌려 공예작물 경작지를 소유하고있는 농민들은 경쟁적으로 이 사업에 참가하여 국가에 공업원료를 더많이 주도록하며 주택주위와 공터들에는 피마자등 유용한 식물들을 심도록하여 적은 공지라도 남김없이 리용하는 관습을 장려하여야 할것입니다。

농촌경리가 윤택하여짐과 함께 특히 국가상업과 소비조합상업일군들의 높은 역할이 요구되는것입니다。 공업생산품과 농촌 여유작물들을 제때에 교역하며 농촌과의 관계를 긴밀히 보장하며 농촌에서 간상배의 조작을 근절하도록 하여야할것입니다。 이를위하여 상업류통부문에 종사하는 일군들은 더욱 상업기능을 련마하고 상품취급에 정통하여 인민들의 긴밀한 요구를 항상 연구하고 이를 정확히 수응할수있도록 하여야하겠습니다。

각급당단체들은 직업동맹단체들의 사업에 일상적으로 주의를돌려 그들로하여금 직장내에있어 예정숫자생산의 실지정형과 로동자들의 실지형편을 구체적으로 장악하도록하며 로동자들의 교양사업과 생활수준을 높이기위한 사업들에 자기의 광범한 력량을 옳게 발동시키도록 하여야하겠습니다.

이상과업들을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서는 각급당단체들의 사업지도를 강화하여야하겠습니다. 지난해 우리당단체들의 사업지도에서 나타난 주요한 결점의 하나는 예정숫자실행을 협조함에있어 당단체사업을 강화함으로써 이를 보장할대신에 행정사업을 직접대행하는 그것입니다. 이결과 행정일군들의 책임감을 약화시키며 일시예정숫자를 달성하기위하여 비정상적으로 제고되었던 생산수준은 매개당원들의 높은 자각적정치수준에서 지속되지못하며 생산행정에서 수다한 결점들을 계속존재시키고있는 현상들을 보게되는것입니다.

二개년계획실행을 협조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지도방법들을 시정하고 군중정치 사업을 일상적으로 강화함으로써 매개당원들로 하여금 고상한 당적립장에서 이 사업을 보장하도록 하여야할뿐만아니라 특히 직장내 초급당부사업강화에 주력하여 그들로 하여금 군중속에 들어가며 군중으로부터 배울줄 알도록 하여야하겠습니다.

흥남비료공장내 당초급단체들은 군중속에 깊이 침투하여 사업을 전개할 대신에 당사업을 대개 명령과 지시들로써 수행하는 관료주의적 경향들을 나타내고있습니다. 이러하여 현재 공장내의 一백五十三개세포의 위원장들이 모두 책상을 붙들고 앉아서 전부 한개씩의 전화통과 련락원들을 두고 현장에 내려가기를 싫어하며 로동시간중에 당사업들을 처리하기위하여 작업중에있는 당원들을 불러올려다가 과업을주며 보고를 받는것을 보통으로 하고있는 것입니다.

생산직장 당단체들은 특히 행정지시와 결정들을 철저히 집행하도록 하여야할것입니다. 많은 우리당단체들에서 나타난 결점의 하나는 상급당기관의 지시와 결정보다 행정기관의 결정과 지시들을 등한히 취급하는 경향들을 보는것입니다. 당단체나 매개당원들은 행정명령과 지시들을 철저히 연구하며 그 실천에 항상 모범을 보이어야 할것입니다.

二개년계획실행에 있어서 특히 강조할것은 반동, 파괴, 암해에대한 경각심을 더욱 높여야할것입니다. 우리 공화국북반부에서 민주전선의 토대가 나날이 견고하여가고 공화국 전체인민들이 중앙정부주위에 굳게 단결되어갈수록 반동배들과 그 앞잡이들은 아주 미련한 방해공작에 더욱 조급하여 가고있습니다.

우리민족의 거창한 과업인 二개년계획을 수행하는 과정에있어서는 놈들의 최후적 발악적 책동은 더욱 심각하여질것입니다. 공장에서 철도에서 농촌에서 적은 고장과 사고들에 대하여서도 이를 기술부족과 실책으로써만 규정할것이 아니라 높은 주의와 긴장성으로써 그들이 숨어들 여지를 철저히 분쇄하여 생산을 보장하며 국가와 인민의 재산을 튼튼히 보호하여야 하겠습니다.

동무들!

나는 최고인민회의 제二차회의에서 채택될 一九四九년—一九五〇년 二개년인민경제계획실행에 대한 우리당단체들의 실지협조방침들을 이상과 같이 제의하면서 전체당원들이 우리당중앙위원회와 인민공화국중앙정부의 주위에 더욱 굳게 단결되어 중앙정부정강을 높이받들고 조국건설의 위대한 력사적투쟁에 모든힘을 다 바치어 최후의 승리를 쟁취할것을 확신합니다.

도、시、군、구역 인민위원회 대의원 선거 실시와 당단체들의 과업

김 열

一、인민위원회는 진정한 인민의 주권이다

우리당의 주도적역활에의하여 빛나는 승리를 확보한 一九四六년十一월三일 선거는 조선 민족 력사 발전에있어서 새 페지를 기록하였다。

이 선거는 반동세력에대한 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과 민주력량의 완전한 승리로 끝났으며 인민위원회가 인민각층속에서 가장 신임과 지지를 받는 진정한 주권형태라는것을 일층 명확하게 증명하였던것이다。

이 선거의 승리적결과에 의하여 조선인민들은 자기력사에 있어서 처음으로 자기의 인민주권기관을 창설하고 그 주권기관에 자기들의 가장 우수한 대표들을 선거하며 또 자기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수있는 완전한 가능성을 가지게되었다。

조국과 민족의 영예를 위하여 전체인민의 최선봉에서 투쟁하는 우리당은 인민위원회의 선거승리를 보장함에 있어서나 인민정권기관을 공고발전시킴에있어서 핵심적역활을 담당하였으며 우리조국의 북반부로 하여금 민주조국창건의 튼튼한 기지를 구축하는 투쟁에 전당의 힘을 기울였다。

력사적인 十一월三일 선거로부터 시간은 불과二년四개월이 경과하였지만 이 동안에 우리조국 북반부에는 정치 경제 문화생활에있어서 거대한 전변들을 가져왔으며 북조선으로 하여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정치경제적 강력한 민주기지로 변화시키었다。

인민위원회는 제반 정책들과 민주개혁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광대한 인민대중의 검열을 받았으며 그 실천을 통하여 군중、가운데에 허물수없는 위신과 신뢰를 집결하고있다。이 새형태의 주권기관만이 우

리조국발전에 가장 부합되는 진정한 인민의 주권이라는것을 엄연히 증명하여 주고있다。

정권이 인민의 수중에 집중된 우리조국의 북반부에서는 인민위원회의 지도하에서 조국의 정치 경제 문화생활의 전면모를 근본적으로 혁신시키는 제반 민주개혁들을 승리적으로 실시하였으며 그의 제반 성과들을 부단히 공고발전시키고있다。

토지개혁의 결과에 조선농촌발전의 질곡으로 되어있던 봉건적 토지소유관계는 청산되었다。토지의 주인공으로된 농민속에서는 조국과 인민을 위한 애국심과 애국적 생산의욕이 고도로 제고되고있다。

인민위원회는 토지개혁을 실시하는데만 그치지않고 토지개혁의 성과를 확고히하며 농촌경리를 발전시키기위하여 농민들에게 선진적 영농방법을 체득케하며 농우 농구 우량종곡 비료들을 보장하여주며 신규개간、휴간지복구、관개시설 수리사업등 제반 대책을 계속실시하여왔다。결과로 우리조국의 북반부는 식량이 풍족하게된 지대로 변화되었으며 농민들의 물질문화수준은 근본적으로 개선되었다。

중요산업국유화의 결과는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속에서 조국과 인민을위한 정치적열성과 생산의욕이 비상히 제고되었으며 국가의 전체자원이 인민의 물질 문화적수준을 향상시킴에 리용되었으며 반동의 경제적토대를 근멸하게되었다。

인민위원회는 쏘련군대가 지어준 유리한 조건과 그들의 끊임없는 형제적 방조하에서 일제의 고의적 파괴와 전재등으로 극심한 황폐상태에 있었던 모든 생산시설을 복구케하였으며 二차에 걸친 인민경제계획달성에 승리적성과를 쟁취하고 새 二개년계획을 향하여 장엄한 전진을 하게하였다。

인민정권의 정확한 시책으로 말미암아 우리 조국창건의 핵심적 주력부대로되는 로동자들의 물질문화생활수준도 급진적으로 장성되고있다。

인민위원회는 교육문화부면에서도 빛나는 성과를 보장하였다。

긴 숫자를 라렬하지 않는다하더라도 우리 조국북반부에 있어서는 일제시대에 대다수의 학령아동들이 취학하지못하던 상태로부터 머지않아 전반적 초등의무교육제를 실시할수있는 단계에까지 이르렀다。

이처럼 一九四六년 十一월三일 력사적 민주선거에 의하여 수립된 도、시、군 인민위원회들과 一九四七년二월二十四일 二十五일、동년 三월五일 선거를 통하여 수립된 면、리(동)인민위원회들은 진정한 인민주권기관들의 위력을 중시하였으며 우리 민주조국창건을 보장하기위한 불패의 정치 경제적 토대를 축성하여 놓았다。

이상과 같은 성과들은 오로지 우리당 중앙의 정

확한 정치노선과 정책에 의하여 각급 당단체들이 그 승리를 확보하는 투쟁에 있어서 주동적 역할을 놀았던 결정체이며 그 넷가로서 이루어진 결과인 것이다。

그러나 약소민족의 권리와 자유와 독립을 침해하며 그들을 월가의 주인들의 지배하에 예속시키려는 미제국주의군대가 진주한 우리 공화국남반부는 어떠한 정권하에서 어떤 길을 걸어왔는가?

쏘련군대의 결정적승리로써 일본군대가 투항한지 훨씬 오래서야 우리조국의 남반부에 상륙한 미군은 조선인민들의 창의에 의하여 수립된 인민위원회들을 탄압 해산시키고 일본제국주의의 재판으로서 낡은 식민지통치기구를 그대로 존속시키었다。

미제국주의자들의 음흉한 식민지예속화 정책의 결과에 공화국남반부에는 인민의 아무러한 정치적자유와 권리도 보장되지못하고 인민과 고립되고 절연된 친일파 민족반역자 매국노들의 반동독재「정권」이 수립되었다。

남반부에는 반동경찰제도가 수립되고 학살과 테로와 사형이 반동통치의 유일한 수단으로되고 경제는 파멸되고 광범한 인민대중이 파산과 기아에서 신음하게되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그들의 식민지노예화정책에 항거하며 자기의 인민적권을 요구하여 궐기한 해방민족의 모든 민주주의적 창발력들을 억제하며 온갖 민주세력들을 탄압 학살하였다。 그들은 조선민족을 분렬시키며 우리국토를 량단하기위하여 소위「유·엔조선위원단」의 미명하에서 무력과 테로와 학살로써 망국단선을 강행한후 조선인민들의 어떠한 계층의 지지도 받지못하는 매국역적들의 망국「국회」와 반동 괴뢰「정부」를 위조하였다。

지금 이 친일파 멸족반역자들의 집단인 망국괴뢰「정부」는 미제국주의의 거수기로서 위조하여낸 소위「유·엔신조선위원단」을 받들어 모시고 미군장기주둔과 남조선의 미국식민지화 군용기지화를 위하여 광분하고있다。

이러한 반동매국적「정부」나「지방정권」은 조선인민들의 강력한 반항과 증오와 분격에 부닥치고있으며 그 힘에의하여 머지않은 앞날에 타도 분쇄되리라는것은 의심할바가 없다。

이상과 같이 진정한 인민의 주권인 인민위원회를 지방주권기관으로하여 발족된 공화국북반부는 민주조국창건의 기본토대로서 민족적 부흥과 재생의 길로 발전케되었으며 인민의 수중에 주권이없는 공화국남반부는 몰락과 멸망과 예속의 길로 나가게 되었다。

이러한 공화국북반부와 남반부의 판이한 정세는 통일과 자유와 독립과 민주발전을 위하여서는 진

정한 인민의 주권인 인민위원회를 공화국의 지방주권기관으로 하는때만이 그 승리와 륭성을 담보할수 있다는것을 증명하는것이다。

二、도、시、군、구역 인민위원회
대의원선거의 력사적의의

지난 一월三十一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二차회의는 공화국의 정치적기초인 지방주권기관 도、시、군、구역인민위원회 선거를 실시할데대한 결정을 채택하였다。

현하 우리조국에 조성된 복잡첨예화한 정치정세하에서 실시되는 이 선거는 중대한 력사적 의의를 가지게되는것이다。

오늘 공화국헌법이 실시되고 공화국 중앙정부가 수립된 조건하에서 공화국헌법에 의하여 지방주권기관들을 새로 선거하고 그를 일층 민주화하며 주권기관들을 상부로부터 하부말단에 이르기까지 일층 확고발전시키는것은 가장 절박한 문제로 되는 것이다。

공화국헌법 제二조에는「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은 인민에게있다。주권은 인민의 최고주권기관인 인민위원회를 근거로하여 행사한다。」라고 규정되어있다。

오늘 전체 지방주권기관선거를 실시케된것은 공화국헌법의 요구에서만 출발되는것이 아니라 조국에 조성된 정치정세와 실지생활상 지방주권기관들의 강화를위한 절박한 필요로부터 출발되는 문제이다。

공화국북반부에 있어서의 정치 경제 문화생활의 급격한 발전 장성에따라 수많은 도、시、군、면、리인민위원들이 대규모적으로 확장된 국가사업에 등용되었으며 이에따라 많은 도、시、군、면、리인민위원회들에는 적지않은 인민위원들의 결원을 초래하고있다。

또한 인민정권을 강화하며 제반 민주건설을 촉진시키는 투쟁과정에서 모범적 헌신성을 발휘함으로써 인민들의 두터운 신망과 지지를 받고있는 우수한 새 국가적 인재들이 인민속으로부터 많이 육성되었으며 그들을 공화국의 정치적기초인 각급인민위원회에 광범히 등용할 필요를 느끼게된다。

공화국 북반부에 있어서 지방주권기관을 선거할 필요는 여기에 있는것이다。

또한 우리조국에 공화국이 선포되고 공화국중앙정부가 수립되어 쏘련을 위시한 제민주주의국가들과 국교를 설정하고 국제민주진영의 당당한 일원으로서 진출하고있는 오늘에 있어서 공화국의 남반부를 친일파 민족반역자들의 반동독재「정권」의 통치하에 오랫동안 방임하여둘수없는 까닭에, 공화국 남반부에도 지방 인민주권기관선거를 실시하는

문제는 가장 중대한 의의를 가지는것이다。

남조선 친일파 민족반역자들이 미제국주의자들의 조정하에서 조국과 민족의 리익을 미제국주의 침략자들에게 팔아먹기위한 망국멸족의 반동적책질행에 로골적 발광을 하고있는 현하의 조건하에서 이 선거가 우리조국의 남북지역에서 동일한 시기에 실시되지 못하는것은 불가피한 사실이다。

그러나 이 선거의 시기야 어떻게 나누어지든지간에 조국의 통일과 자유와 독립을 위하여 거족적 투쟁에 총궐기한 조선인민들은 국토의 완정을 보장하며 완전자주독립을 촉진시키는 일층 강력한 구국대책으로되는 이 선거의 승리를 반드시 쟁취하고야 말리라는것은 작년 八·二五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의 승리적 성과가 여실히 증명하여주고있다。

이상과같이 이번에 실시되는 도、시、군、구역인민위원회선거는 공화국 지방주권기관을 더욱 확고발전시킬뿐만아니라 국토완정을 확보하며, 완전자주독립을 일층 촉진시키는 대책중 하나로되는 거대한 력사적 의의를 가지는것이다。

三、지방주권기관 선거 준비 사업에 있어서의 당단체의 과업

금번 지방주권기관 선거에 있어서 우리조국 북반부에 있어서의 이 사업의 승리적성과를 보장하는 문제는 우리당앞에 거대한 사명을 맡겨주었다。

이미 해방후 우리조국 북반부에서의 민주건설 도정에서 체험한 바와같이 우리당의 주도적 역할과 헌신적투쟁이 없이는 이 력사적 위업의 승리를 예견하기어렵다。

우리당은 지나간 모든 위대한 력사적 위업을 달성하는 과정에있어서 우당들과 통일전선을 굳게하면서 인민들에게 우리조국이 나아갈 앞길을 비쳐주는 등대로 되였다。

우리당은 자기의 실천과 투쟁을 통하여 광범한 인민층으로부터 무한한 존경과 신임과 지지를 받고있는 정당이며 그들로부터 우리조국의 운명을 해결함에 있어서 막대한 신뢰와 기대를 받고있는 정당이다。 그렇기때문에 금번 실시되는 지방주권기관 선거의 승리적성과를 확보하는 문제는 우리당 각급당단체들과 전체 당원들에게 맡겨진바 그 사명이 거대하며 그 책임이 엄중하다。

우리는 이번 선거사업의 승리를 보장하는 중책을 완수하기위하여 지난 八·二五선거당시에 있어서의 사업상 결함을 랭정히 비판 분석하는 문제로부터 출발하여야하겠다。

지난 八·二五 최고인민회의 선거에였어서 우리당의 역할이 얼마나 거대하였는가 하는것은 여기에 새삼스럽게 언급할 필요도 없지만 그 사업과정에서 적지않은 결점들이 부분적으로 존재하였다는것을 또한 자인하여야하겠다。

우선 일부당단체들은 선거사업준비에 있어서 그 착수가 늦었으며 일부 당간부들 가운데는 선거사업 초기에있어서 과거의 승리에 도취하여 자만자족하고 락관시하는 경향들이 있었다。 따라서 선거사업을 자연생장에 방임하여 수공업적인 구두협의식으로 사업하면서 당 상급의 결정과 지시를 당회의에서 연구토의하지 않으며 소속관하 당단체에 그 집행을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지시를 전달하지않는 현상들이 있었다。

선거사업이 당을 공고화하며 인민정권과 민주건설을 공고화하며 반동과의 가혹한 투쟁을 전개하는결과에 성과가 이루어지는 전당적 사업이라는것을 망각하고 선전사업이나 하면 되겠거니하는 막연한 락관을 부분적 일꾼들이 가지고있으며 사회단체내의 당원간부를 단지 일개의 선거위원이나 선전원으로 배치하는것만으로써 만족하고 전사회단체를 조직적으로 발동시키는 사업을 등한히한 경향들이 적지 않았다。

다음으로 일부 당단체들에서는 우리당의 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 정책을 정당히 파악하지못하고 우당파의 긴밀한 련락을 취하지 못하였거나 혹은 우리당의 립장을 망각한 사실들이 있었다。

그리고 여러 지방들에서 우리당단체들은 유권자들의 정확한 등록사업을 협조 보장하는 문제에 깊은 관심을 돌리지 않았으며 많은 지방에서는 유권자등록을 조잡하고 무책임하게 형식적으로 처리해 버린 사실들이 있었다。

다음으로 선거선전사업은 그 동원된 범위와 전재된 활동에 비하여 내용이 빈약하였으며 구체적으로 뭇되고 일반적 추상적으로 된점들이 적지않았다。 부분적으로 선거선전사업은 형식적구호에 머물렀던 사실이있으며 때와 장소와 대상을 엄밀히 구별한 각계 각층별 선전과 매개 유권자들에 대한 호별방문과 개별적인 선전해석사업이 충분히 진행되지못하였다。 결과 선거의 의의를 인민속에 깊이 침투시키지못한 부분적 현상들이 있었다。 또한 가장 준비된 선전원을 선발하는 문제에 있어서 당적으로 심중한 검토와 보장이 있어야할것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당단체에 있어서는 인원수나 채우기 위하여 불충분한 선전원들을 배치하는 현상들을 묵과하였으며 당간부들이 직접 군중속에서 출현하는 사업들이 미약하였다。

다른 방면으로 여러 당단체들은 선거선전사업에 있어서 군중들의 여론과 반영을 심중히 취급하지 않고 천편일률적인 선전을 진행한 사실도있다。

八·二五선거 준비과정에서 나타난 결함들은 많

셋째로, 유권자등록에대한 사업을 협조 보장함에 있어서 조잡하고 무책임한 형식주의적 사업작풍을 일소하고 면밀한 조사를 통하여 한 사람의 루탁자도 없도록 보장할것이며 미급된 부분에 대하여서는 재조사사업을 철저히 제시기에 실시하도록 하여야할것이다.

특히 자기가 맡은 지역에 있어서의 조사등록사업을 손쉽게 완필하기위하여 형식적으로 등록사무를 처리집행하려는 태만적경향과 투쟁하여야 할것이다.

넷째로, 선거선전사업에있어서 과거의 경험을 충분히 검토하여 모든 조직적력량과 기능과 사업방법들을 활용하여 인민정권의 우월성을 충분히 해석선전할것이며 금번 선거의 정치적의의를 철저히 인식시킴으로써 전인민적인 긴장성가운데서 선거가 진행되도록 보장하여야할것이다.

우리조국을 식민지예속화하려는 미제국주의자들의 야망과 그 주구 친일파 민족반역자들의 매국적행위를 선거행정을 통하여 철저히 폭로함으로써 인민들로하여금 반동들에대한 적개심과 증오심을 일층 높이게하며 고도의 애국적헌신성으로써 새 二개년 인민경제계획 달성에 더욱 자신있게 나아가도록 하여야할것이다.

우수한 선전원들을 선발하여 군중대회, 보고회, 강연회, 좌담회, 예술공연, 라디오방송, 출판물 선전등 각양각색의 선전선동 사업형식들을 리용할것이며 특히 지난 八·二五선거의 체험상 가장 효과적인 계층별 좌담회 호별방문 개별적 해설사업등의 방법들을 활용하여야할것이다.

각계층의 대상수준별에 의하여 군중들이 즐기며 군중들로 하여금 흥미를 느낄수있는 선전상 기술문제에 특히 류의할것이며 군중의 여론과 반영을 제때에 포착하여 그들의 요구에 민첩히 수응하도록 하부실정에 능통된 기동성있는 사업방법들을 강구하여야할것이다. 특히 각급 당지도간부들은 일상적으로 보고강연등으로 군중앞에서 출연하여야 할것이다.

복잡첨예화한 국제국내정세하에서 진행되는 금번 선거는 반동들에대한 커다란 타격을 가져오게 되느니만큼 반동들의 갖은 발악적책동과 음모와의 치열한 투쟁속에서 진행된다는것을 잊지말아야 할것이다.

지난 선거실시과정에서 경험한바와같이 반동들은 갖은 악랄한 파괴음모와 기만적요언과 위선적 선전으로써 선거진행을 장애하려고 할것이다.

우리는 수차에걸쳐 진행된 선거사업을 통하여 많은 경험을 얻었다. 금번 선거진행에있어서 이 과거경험들을 세밀하게 분석하며 실지사업에 충분히 충당하여야할것이며 각급 당단체들과 매개당원들은

은 당단체들과 당지도간부들이 사업상 성과에 도취하여 결점을 잘 보지 못하며 특히 하급당단체들과의 긴밀한 련락을 미약하게하여 하부 사업정형을 포착하지 못하는데에 그 기본원인이 존재하는것이다.

× × ×

금번 선거에 있어서 이러한 제반 현상과 결점들을 퇴치하고 선거사업을 성과있게 진행하기 위하여 아래와같은 몇가지 과업들을 제시한다.

첫째로, 당중앙본부는 금번 선거에 있어서도 전번 선거와같이 공동립후보제로 선거에 참가하기로하였다. 이것은 오늘의 정치적정세와 실지사업경험에 비추어 볼때 가장 옳은 정책이기 때문에 각급 당단체들은 이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할것이다.

민전 립후보자는 우리조국의 통일과 독립과 민주화를 보장하는 투쟁에있어서 가장 모범적 헌신성을 발휘할수있는 실지사업에서 훈련되고 검열된 애국적 인물들로써 추천되며 선출되도록 보장하여야할것이다.

조국과 인민을 애호하며 인민을 위하여 자기의 전력과 자기의 기능을 바치며 조국과 인민의 리익을 위하여 어떠한 난관과 애로에 봉착하든지 그를 타승하고 나아갈 인물들만이 민전 립후보자로서의 자격을 갖게되는것이다.

둘째로, 각급당단체 지도간부들로부터 매개 당원에 이르기까지 금번 선거의 정치적 중요성을 심각히 인식하고 과거의 승리에 도취하며 자만자족하는 결과로써 사업을 자연생장성에 방임하는 일체현상들과 무자비하게 투쟁할것이며 준비사업에 민속하게 착수하며 당상급기관의 결정과 지시를 당회의에서 엄밀히 연구토의하며 소속당단체에 민첩하게 전달하고 그를 집행하기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지시를 내리는동시에 계속적인 검열사업을 실시하여 그의 실행을 당적으로 보장하여야 할것이다.

금번 진행하는 선거는 八·二五선거에비하여 사업상 여러가지 곤난성을 가지고있다.

그것은 선거사업 진행에 동원되는 인원수와 도시, 군, 구역인민위원회 대의원으로 당선되어야할 인원이 많으며 선거구 분구등 각 선거조직이 숫자적으로 많을뿐만아니라 지역상 도시로부터 산간벽지에까지 여러지역에 널리 분산적으로 조직되게 되는데있다. 때문에 각급 당지도기관과 당간부들은 선거준비사업을 세밀한 계획밑에 진행하여야 할것이다.

각급 당단체들은 선거사업을 통하여 당을 일층 공고히하며 당단체들의 조직적력량과 사업방법들을 제때에 검열하여 오유와 결점을 시정하며 각 기관내에 소속된 전체당원들을 조직적으로 발동시킴으로써 전체 인민들로하여금 우리당의 로선과 정책을 더욱 열성적으로 지지케하여야 할것이다.

전인민적인 애국적각성을 일층 제고시키며 반동의 흉악한 기만책동과 파괴공작을 제때에 폭로분쇄하는 만반의 대책들을 강구하여야 할것이다。

각급 당단체들과 당원들은 선거규정을 위반하는 일이 없게하며 전체인민들이 자기의사를 자유스럽게 원만히 표시하도록 보장하여야 할것이다。

다섯째로, 선거 실시 과정에있어서 설지사업을 통하여 우당들과의 긴밀한 련계를 가지며 우리당을 핵심으로한 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 산하의 전력량을 일층 집중 결속시키어 조국의 민주주의적 재건과 부강조국건설을위한 우리당로선의 실현을 일층 촉진시켜야 할것이다。

그리고 광범한 대중적사회단체들의 사업을 옳게 방조하여 그의 력량을 선거사업에 총 발동시켜야 하겠다。우리는 전당을 동원하여 공화국 지방주권기관선거의 승리를 확보함으로써 공화국정부의 위신을 가일층 제고시키며 공화국정부의 정권을 전조선적으로 실현시키는 추동력이 되게하며 미제국주의자들의 침략정책과 남조선 친일과 민족반역자들의 야망을 여지없이 분쇄하는 무기로 되게하여야 할것이다。

우리는 금번 선거를 통하여 해방후 三년동안에 장성된 조선인민들의 정치적각성과 애국열성을 또다시 시위하여야 하겠으며 공화국 북반부의 위대한 민주건설에서와 조국의 국토완정과 완전자주독립을 위한 거족적 구국투쟁에서 단련되고 장성된 조선인민들은 외국의 간섭이 없이 자기손으로 능히 자기조국의 운명을 해결하며 자기 정권을 운영할수있으며 또 운영하고있는 위력한 인민이라는 것을 또다시 한번 전세계에 시위하여야할것이다。

우리당 각급당단체들과 전체당원들은 국토의 완정을 확보하여 완전자주독립을 촉진시키는 투쟁중 하나로 되는 력사적 위업을 달성함에 있어서 반드시 거대한 승리를 쟁취할것이다。

쓰딸린의 저서

「레닌주의의 기본에 대하여」를 깊이 연구하자

기 석 복

「레닌주의의 기본에 대하여」란 쓰딸린의저서는 맑쓰—레닌주의의 저명한 저서중의 하나이다。 그는 맑쓰, 엥겔쓰, 레닌의 가장 탁월한 저서들과함께 동등한 지위에 서고있다。

쓰딸린은 본저서에 레닌주의에 대한 고상한 해석과 심대한 리론적 창시를 주었을뿐만아니라 레닌의 이름과 튼튼한 련계를 가진 새것과 특징적인것을 첨부하였으며 또 맑쓰주의적 리론의 발전에 새것을 부여하였으며 또 위대한 레닌의 학설을 새계단에 올려세웠다。

쓰딸린의 저서「레닌주의의 기본에대하여」는 레닌주의를 창시함에서와 레닌주의를 옹호하는 사업에서 막대한 역할을 리행하였다。즉 쓰련에서 레닌주의의 학설의 승리를위하여 레닌주의의 원수인 뜨로쯔끼 부하린과 및 부르조아민족주의자들을 폭로하며 진멸하며 당대렬의 공고화를 위한 사업에서 막대한 역할을 리행하였다。

이저서는 쓰련에 거주하는 여러인민들의 언어로써 출판 번역 되었을뿐만아니라 전세계의 많은 민족언어로 번역 출판되었다。「레닌주의의 기본에대하여」라는저서는 볼쉐위끼당의 투쟁적 리론기초로 되었다。이저서는 쓰련에서의 사회주의 창설을위한 투쟁에 볼쉐위끼당을 사상 리론적으로 준비시켰으며 전세계 근로 인민들을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에로 호소하였다。 이저서는 볼쉐위끼들과 전세계 근로인민들을 새사회를 창조하는 선진적 우주관인 맑쓰—레닌주의로써 무장시켰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계 근로인민들은 쓰련공산당(볼쉐위끼)을 모범으로 하여 쓰딸린의 저서「레닌주의의 기본에 대하여」와「쓰련공산당(볼쉐위끼)력사」를 연구하는것이다。

× × ×

쓰딸린의 저서「레닌주의의 기본에대하여」는 一九二四년상반기에 출판되었다。 이저서를 첫번

발간할때에 「레닌과 레닌주의에대하여」라고 명칭하였다。 이저서에는 一九二四년 四월초 쓰웰드롭쓰크대학에서 강술한 쓰딸린의 강의가 포함되었다。 쓰딸린의 저서 「레닌주의의 기본에대하여」가 발간되기 얼마전 즉 一九二四년 一월二十一일 전세계근로인민과 볼쉐위끼공산당의 수령이며 볼쉐위끼공산당과 쏘베트국가의 창조자인 우라지미르·일리츠·레닌은 모쓰크바부근 프르끼촌에서 서거하였다。 이야말로 전세계근로인민과 볼쉐위끼공산당에게 거대한 손실인것이었다。

「레닌의 서거에 조우한 쏘베트련맹의 로동계급은 레닌당의 주위에 일층 굳게 단결하가에 이르렀다。 슬픔의 날에 계급의식있는 로동자들은 각각 레닌의 유훈의 계승자인 공산당에 대한 그들의태도를 숙려하고 결정하였다。비당원 로동자의 입당원서가 몇천벌씩이나 당중앙위원회에 송치되었다。 중앙위원회는 선진한 로동자들의 이 운동에 호응해서 선진한 로동자들을 대중적으로 당에 채용할것을 선언하고 레닌의 서거를 기념해서 당원모집할것을 선언하였다。 새로운 몇만명이라는 로동자가 당에 들어왔다。 당의 위업과 레닌의 위업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겠다는 각오를 가진 사람들이 들어온것이었다。 이때 단기간에 二十四만명이상의 로동자가 볼쉐위끼당의 대렬에 가입하였다。 당에는 가장 의식적이요 혁명적인 가장 용감하고 규률있는 ●●●로동자의 선진한 부분이 들어왔다。 이것이 레닌기념당원모집이었다。」(「쏘련공산당(볼쉐위끼)력사」四六四—四六五폐지)

이 레닌적호소와 레닌의 학설과 사업의 위대한 계승자인 쓰딸린의저서 「레닌주의의 기본에대하여」에는 레닌—쓰딸린당이 얼마나 고귀하다는것이 명백하게 론증되었다。

쓰딸린의 이 저서가 발간되는 모멘트에 볼쉐위끼당은 전시 공산주의정책으로부터 신경제정책으로 전환하는 어려운 전환을 벌써 실천하였고 새경제기초위에서 로농동맹을 공고히하고 쏘베트사회주의공화국동맹의 형성을 준비하였으며 진행하였고 제一차세계전쟁과 공민전쟁으로 파괴된 국가의 경제를 회복함에 관한 사업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이것이 그당시 아직 쏘련에있어서 부흥기의 ●난관이 벌써 없어졌다는것을 의미하는것은아니다。

주지하는바와같이 공민전쟁으로부터 평화적사회주의건설에로의 전환기는 볼쉐위끼당의 력사에서와 쏘련국가의 력사에있어서 중요한 시기의 하나이였다。

이 전환기는 경제봉쇄적환경에서 특히 국내의 거대한 난관들을 극복하면서 진행되었다。 「볼쉐위즘의 적인 쏘련공산당(볼쉐위끼) 대렬내의 반당적요소는 이시기의 처음부터 끝까지 레닌당에 적대해서 필사적인 투쟁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반당적요소의 지도자는 뜨로쯔끼였다。 이 투쟁에있어 그의 조력자는 까메네브、지노비예브、부하린이였다。반대파들은 레닌의 서거후 볼쉐위끼당의 대렬내를 부패시키고、당을분렬시키고、쏘련에서의 사회주의의 승리에대한 불신을 당에 전염시킬수있다고 기대하였다。 실지에있어 뜨로쯔끼파는 쏘련내에 별개의 당을 부르죠아지의 새로운 정치적단체를 즉 자본주의를 재흥시키는 당을 창립하려고 기도하였다。

당은 레닌적기발아래、레닌적중앙위원회의 주위에、쓰딸린동지의 주위에 집결하여 뜨로쯔끼파와 레닌그라드에있어서의 그들의 새로운 도배、즉 지노비예브、까메네브의 신 반대파까지도 함께 타파해버렸다。 힘과 자원을 축적해서 볼쉐위끼당은 새로운 력사적 계단、사회주의적공업화의 계단으로 우리나라를 인도한것이었다。」(「쏘련공산당(볼쉐위끼)력사」四八四—四八五폐지)

一九二三년가을에 당의 수령 레닌선생께서 병석에 누워 일어나지못하였고 아직까지도 전쟁으로서 과괴된 인민경제의파괴를 청산하지못한 결과에 생긴 국내의 경제적곤난은 얼마만큼 첨예화하여졌을때 쏘련공산당(볼쉐위끼) 대렬에는 뜨로쯔끼주의자들과 기타 반레닌적분자들은 당을 분렬시키며 또 그의 지도를 전복시키기에 적당한 모멘트가 닥쳐왔다고 떠들었다。

레닌의 명과 서거와 또 조성된 복잡한 국제환경과 국내의 경제적난관을 리용하면서 당내부의 반레닌적 분자들은 당을 반대하여 그의 지도를 반대하여 그의 정책을 반대하여 투쟁을 전개하였다。 그때와 그 이듬해에도 뜨로쯔끼주의자와 기타 당의 원쑤들은 국내의 형편을 개선하는 문제에 대한 어떠한 구체적 제의들도 제출하지않았다。 그들은 당내부에 프락치야를 복구하며 레닌당의 기본을 와해 시키려고 하였다。 그때 사회주의의 원쑤들은 쏘련에서 레닌적 로선으로부터 당을 다른 방향으로 돌리려고 시도하였으며 자본주의적 복구에 필요한 조건들을 그들 자신이 준비하려고 하였으며 또 그들은 쏘베트주권의 붕괴를 예언하였고 당내부의 프락치야와 그루빠의 자유를 강조하였다。

十四차당대회전 一九二三년말에 직업동맹에대한 론쟁이 전개되었을때 뜨로쯔끼파와 기타 반레닌분자들은 당의 주목을 직업동맹에대한 론쟁에 돌리게하였으며 이론쟁은 급속히 전당을 휩쓸었기때문에 심각한 투쟁이 전개되었다。 이론쟁은 장구한 기한에 걸쳐 당의 주목을 중요한 과업의 해결로부터격리시켰다。 그러나 그론쟁은 뜨로쯔끼주의자들에게 아무려한 방조를 주지못하였을 뿐만아니라 도리어 그

들에게 다만 수치스러운 치욕적실패가 돌아갔을뿐이었다。당의 원쑤들은 이 문제에 대하여 치명적인전멸을 당하게되었다。

一九二四년一월에 소집된 十三차 당 콤페렌치야에서 전당적으로 전개된 직업동맹의 론쟁의 총화에 대한 쓰딸린의 보고를 청취하고 론쟁이 발생하게된 국내에 조성된 조건과 환경을 지적하고 자기의 결정서에 뜨로쯔끼적견지를 심의하였다。이 콤페렌치야는 뜨로쯔끼견지의 반 레닌적내용을 폭로하고 당은 그들을 비롯한 맑쓰주의로부터 물러선 부르죠아적 경향과의 투쟁을 전개하여야되겠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一九二四년 五월에 소집된 十三차당대회에서 十三차 콤페렌치야의 결정을 전폭적으로 승인하였다。이렇게 벌써 그때에 혁명적력량에 대하여 로농동맹에대하여 사회주의적로씨야를 네프로씨야로 전환하려는 시도를반대하는 투쟁에서 당은 완전무결한 승리를 쟁취하였다。

쓰딸린이 레닌의 묘사앞에서 당의 명의로 말한 위대한 맹세 즉 당의 명칭을 깨끗이 보전하며 로동자와 농민의 동맹을 공고히하며 당의 통일을 눈동자와같이 보전하며 쏘베트국가를、인민간의 친선을、붉은군대를 있는 힘을다하여 공고히하며 당을 레닌적중앙위원회주위에 결속시키며 쏘련에 있어서의 사회주의의 승리를 위한 투쟁에 당과 로동계급을 격려동원하였다。쏘련공산당(불쉐위끼)과 쏘련인민과 전세계진보적 인류들 앞에서의 쓰딸린의 위대한 공로는 그가 프로레타리아트혁명의 어려운계단에서 당의 추악한 원쑤인 뜨로쯔끼주의자들로부터 당과 레닌주의에대한 광견(狂犬)의 돌격적환경으로부터 백전백승의 레닌주의의 기치를 높이들고 앞으로 전진한데있는것이다。

쓰딸린대원수께서는 벌써 그때에 뜨로쯔끼주의의 반혁명적반역적내용을 폭로하였고 뜨로쯔끼주의의 사상적 진멸은 공산주의로 향하여 나아가는 쏘련인민들의 장래승리를 보장하는 필연적조건으로 된다는 것을 당에 가르쳤으며 론증하여 놓았다。당은 레닌의 유언대로 충실하게 나아갔으며 또 단기간에 쓰딸린의 지도밑에서 거대한 성과들을 쟁취하였다。그러므로 쏘베트국가는 얼마마한 기한에 걸치는 평화적휴계를 쟁취할수있었다。그와같이 국내환경도 변경되었다。

새경제정책도상에서 벌써 一九二四—一九二五년 경제년도에 국가의 인민경제부흥에 있어서 결정적 승리를 달성하였다。이 당시에 쏘련국가의 농촌경제도 전전수준의 八七%에 도달하게 되었다。쎄、쎄、쎄、르의 대산업은 一九二五년에 전전 산업생산품의 四분지三에 달하는 생산품을 생산하였다。一九二四—一

九二五년간에 쏘베르국가는 벌써 기본건설자금으로 三八五밀리온루불리를 투자할수있었다。그렇기때문에 인민경제에서의 사회주의적진지는 더한층 공고하여졌다。쏘베트국가내의 경제적상승은 로동자 농민의 생활상 형편의 장래개선을 장취할수있게하여주었다。이러한 기초위에서 대중의 정치적 적극성은 몹시 장성되었으며 또 국내에서의 불쉐위끼당의 위신과 영향도 대단히 장성되었으며 프로레타리아트의 독재도 공고하여졌다。그러나 주지하는바와같이 이기간에 산업에있어서 사회주의적 요소의 비준은 겨우 八〇%였고 개인적요소는 二〇%에달하였다。그때에 있어서 농촌경리는 분산된 수천만 개인경리가 대표적이었다。그러므로 불쉐위끼당앞에는 새로운 거대하고도 중대한 과업이 나섰나니 이는 곧 아직 「전반적으로 사회주의적경제가 되지못한 경제로부터 사회주의적사회의 물질적토대로 반드시 되어야할 그러한 사회주의적경제」(쏘딸린)로 전환할것을 완성하여야 할것이었다。

공산당(불쉐위끼)앞에는 쎄、쎄、쎄、르에서의 사회주의운명에 대한 문제 쏘련의 사회주의건설과 발전의 전망과 성격에 대하여 쏘련에서의 사회주의건설의 로선과 방법에 대하여 쎄、쎄、쎄、르에서의 사회주의 승리의 가능성과 그의 건설적 조건에 대한 문제들이 가장 이대하게 나섰다. 쏘딸린이 서도하는 불쉐위끼당은 이 모든 문제에 대하여 가장 정당하고 명백한 대답을 주었으며 또 불쉐위끼당은 국내의 인민경제는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할것을 쏘련인민들에게 가르쳐주었으며 또 당은 새 경제정책의 도상에서 쏘련에서의 사회주의적경제건설의 원만한 가능성을 증명하였으며 이경제를 반드시 어떻게 건설하여야할것과 이 건설을 어더로부터 시작하여야 될것을 명시하였다。불쉐위끼당은 모든 력량과 재료들을 저축하여 가지고 국가의 공업화로 쎄、쎄、쎄、르의 사회주의승리에로 방향을 정하였다。

사회주의의길로 나아가는 쏘련국가의 장래발전을 위한 투쟁에있어서 뜨로쯔끼주의의 사상적조류를 진멸하는 사업에있어서、위대한 레닌주의적 학설의 창시자와 발전자 그를 옹호하는 사업에있어서 쏘딸린의 저명한 두개의 로작「레닌주의의 기본에대하여」와「十월혁명과 로씨야공산주의자들의 전술」은 결정적역할을 리행하였다。쏘딸린의 이 두개의 저서에는 사회주의적혁명의 장래발전에대한 전망이 예견되었고 쎄、쎄、쎄、르에서의 사회주의의승리를위하여 쏘련공산당을 사상적으로 또는 리론적으로준비하여 놓았다。쏘딸린이 이 저서에 발전시킨사상과 명제는 쏘련공산당(불쉐위끼)을 새로운 위력으로 고무시켰으며 또 레닌주의학설의 승리에 대한 신뢰감

전시킬수없다。 레닌주의는 맑쓰주의의 계승이며 그의 최고계단이다。

쓰딸린은 새시대의 맑쓰주의로서 레닌주의에 대하여 진정한 과학적규정을 내리우면서 다음과같이 말하였다。『레닌주의는 제국주의와 프로레타리아혁명시대의 맑쓰주의이다。 정확히 말하면 레닌주의는 일반적으로는 프로레타리아혁명의 리론과 전술이요 특수적으로는 프로레타리아독재의 리론과 전술이다。』(「레닌주의의 기본과 레닌주의의 제문제」 十一페지 모쓰크바판) 레닌주의에대한 이 쓰딸린적규정은 그 력사적근거를 깊이 해석하여주며 맑쓰주의와 레닌주의간의 유기적 련결을 해명하여주며 생활성이있고 발전하는 학설로、로씨야의 혁명운동과 쎄、쎄、쎄、르에서의 사회주의 승리를 위한 볼쉐위끼당의 제반투쟁을 위한 무한한 의의를 가지고있다。

레닌과 쓰딸린은 맑쓰주의를 창발적으로 리해시키기위하여 실생활과 실제의 산사실들을 참작하면서 새로운 결론과 명제로써 맑쓰주의의 낡은 부분적 명제를 바꾸는것을 두려워하지않으면서 맑쓰주의를 퇴각시키려는 도구마(敎理)를 반대하여 투쟁을 계속 진행하였다。 그렇기때문에 쓰련에있어서의 위대한 사회주의적 十월혁명을 준비할수 있었으며 또 진행할수 있었고 쎄、쎄、쎄、르에서의 사회주의 승리를 보장할수있었다。

쓰딸린은 이 저서에 레닌주의의 력사적 근거를 과학적으로 해석하였고 레닌주의를 발생시킨 국제적환경을 깊이 분석하여 놓았다。 쓰딸린이 지적한바와같이 레닌주의는 一九〇三년에 발생한 완전무결한 학설이며 三개의 혁명의 시련을 경과한 학설이다。 레닌주의는 만국의 혁명적운동을 종합한것이다。 쓰딸린이 말한바와같이 레닌주의는 「로씨야뿐만아니라 제반 국제적발전에 뿌리를 박은 인터나쇼날적 현상이다」 레닌주의는 맑쓰주의에서 혁명적내용을 뽑아내어 그를 악화시킨 국제적기회주의자들과의 투쟁에서 장성하였다。 레닌주의는 맑쓰주의를 부활시켰을 뿐만아니라 로동계급의 새로운 투쟁조건에 적응하면서 그를 더앞으로 발전시켰다。

주지하는바와같이 맑쓰와 엥겔쓰는 아직 자본주의가 독점적 자본주의로 되지 못한 패권기 또 제국주의로 아직 발전되지못한 시기 또 프로레타리아트혁명은 아직 직접적、실제적 필연으로 되지못한 시기에 살았다。 그러므로 쓰딸린이 말한바와같이 「레닌주의는 자본주의의 모순이 절정에 달한 때인 프로레타리아혁명이 직접 실천의 문제로 된때인 로동계급이 혁명을 준비하던 옛시기는 끝나고 자본주의를 정면으로 습격하는 새시기에로 넘어온때인 제국주의의 조건하에서 자라났으며 또 형성되였다」(「레닌주의의 기본과 레닌주의의 제문제」 一三페

을 당내에 더한층 높이였다。 당은 쓰딸린의 령도밑에서 사회주의의 각색 원쑤들의 만행을 물리치며 그들을 레닌적로선으로부터 숙청하면서 레닌이 가르친길로 나아갔다。

× × ×

우라지미르・일리츠・레닌은 인류의 위대한 영재이며 볼쉐위끼당과 쏘베트국가의 창시자이며 수령이며 맑쓰—엥겔쓰의 학설의 위대한 계승자이며 선진과학의 대가이다。

「쏘련공산당(볼쉐위끼)력사」에 지적한바와같이 「바로 레닌과 레닌주의자가 맑쓰주의리론을 전진시킨다는 이 리유때문에 레닌주의는 맑쓰주의의 한층 높은 발전이며 프로레타리아트의 계급투쟁의 새조건하에서의 맑쓰주의이며 제국주의와 프로레타리아트의 혁명시대의 맑쓰주의이며 지구의 六분지一에서 사회주의가 승리한 시대의 맑쓰주의이다。」(쏘련당사 六二二페지)

그러나 레닌주의의 원쑤 제二국제당을 비롯하여 이미 실패를 당한 활동가와 멘쉐위끼 뜨로쯔끼주의자 지노비예브와 부하린파들은 이미 알려진바와같이 레닌주의와 당을 반대하여 투쟁을 진행하였으며 레닌주의를 맑쓰주의에 대립시키려고 시도하였다。

이러한 목적으로써 그들은 레닌주의의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프로레타리아트독재에 대한 학설을 떼앗아버리면서 맑쓰주의를 의곡하였으며 또 그들은 위대한 레닌의 학설의 국제적의의를 부정하였으며 레닌주의가 맑쓰주의의 최고계단이란것을 부인하며 그들은 레닌주의가 맑쓰주의에 부여한 모든 새것들을 부인하려고 시도하였다。

쓰딸린의 저서 「레닌주의의 기본에대하여」에 레닌주의에대한 증오스러운 원쑤들의 제반기도에 치명적타격을 주었다。 쓰딸린은 이저술에 맑쓰주의의 최고계단으로서의 레닌주의에 대한 제문제를 철두철미하게 해결하였으며 또 레닌이 맑쓰주의를 더 앞으로 로동계급의 새로운 투쟁조건에서 어떻게 발전시키는가를 보이였으며 레닌의 학설의 제반 기본문제들을 심각히 해석하여놓았으며 이 위대한 학설에 새로운 결론과 명체를 부여하였다。

쓰딸린은 레닌주의의 견지를 영명하게해석하였고 그의 력사적근거를 규정하여 놓았으며 레닌주의가 맑쓰주의의 혁명적내용만을 부활시켰을뿐만아니라 프로레타리아트의 새로운 계급투쟁의조건에서 그를 앞으로 더 발전시켰다는것을 지적하였다。

쓰딸린은 이 저서에 맑쓰주의와 레닌주의가 유일한 학설로서의 그의 부단적련결성과 계승성을 깊이 해석하였으며 창시하여놓았다。 쓰딸린이 지적한바와같이 레닌주의를 맑쓰주의로부터 분리시킬수없으며 더우기 레닌주의를 맑쓰주의에 대

지) 쓰딸린은 一九세기의 말엽과 二〇세기초엽에 발생한 자본주의의 새 시기인 제국주의의 가장 중요한 모순들을 지적하면서 이저서에 로씨야가 프로레타리아트혁명의 학설과 전술의 조국이며 레닌주의의 근거지로 된다는것을해석하여 놓았다。

쓰딸린이 지적한바와같이 로씨야는 제국주의의 기본모순들의 결절처로 되었으며 짜리즘의 리해와 국제자본주의의 리해와의 교차된 나라로되었다。「이러하기때문에 여러가지의 모순이 특히 란포하고 또한 특히 참을수없는 성질로 말미암아 실로 로씨야에서 그 모순들이 어디에서보다도 쉽게 발로되었던 의미에서 뿐만아니라、또는 로씨야가 서구의 금융자본을 동양의 식민지와 련결시키는 서구라파 제국주의의 가장 중요한 지주이었던 까닭으로、뿐만아니라、또한 제국주의의모순을 혁명적방법으로써 해결할수있는 실재적력량이 오직 로씨야에만 있었던까닭에 로씨야는 마땅히 제국주의의모순들의 결절처가 되어야할것이었다。」(『레닌주의의 기본과 레닌주의의제문제』모쓰크바판 十九페지) 이러한 력량으로 하여금 로씨야의 프로레타리아트는 세계에서 가장 혁명적이었다。

쓰딸린공산당(볼쉐위끼)의 지도밑에서 로씨야의 혁명적농민과같은 그런 성실한 동맹자를 자기의 배하에 가지고있은 세계에서 가장 혁명적인 프로레타리아트가 그선두에 서서 나간 가장 위대한 인민적혁명이 일어났다。레닌이 지적한바와같이 이러한 혁명은 중로에서 중지될수없었다。그러므로 로씨야는 반드시 이미 지난 一七세기의 영국과 一七八九년의 불란서부르죠아혁명의 시기에 대하여서는 말할 필요조차없으며 또 독일에서의 一八四八년보다 더 훨씬 발달된 프로레타리아트를가지고 가장 진보적인 조건에서 이혁명을 수행하여야할것이었다。벌써 一九〇二년에 레닌은 로씨야의프로레타리아트가 로동계급의 국제적혁명의 선봉대로 로씨야에서의지주—자본가 반동정체를 가장 진보적인조건에서 전복시킬수있으리라고지적하였다。주지하는바와같이 이 레닌의 유언을 혁명의 제반실천이 증명하여놓았다고、쓰딸린은 말씀하였다。그러므로 로씨야는 레닌주의의조국으로 되었으며 전세계혁명운동의 경험의 과학적종합체로 되었으며 또 로씨야공산당원들의 수령은 그의창조자인 레닌이다。

다음으로 쓰딸린은 자기의 저서에 레닌주의의 방법의 중요한 특징을 론술하면서 이 방법의 법칙과 요구를 규정하였으며 어떠한 력사적조건에서 레닌주의의 학설 전술 및 방법들이 단련되었으며 또 혁명투쟁의 실례가 어떻게 제二국제당의 기회주의자들의 낡아빠진 도구마(敎理)들을 타살시켰다는것을 보이였다。쓰딸린이 지적한바

와같이 레닌주의의 방법은 맑쓰주의의 방법을 더 앞으로의 발전을 의미하는 그의 유물론적변증법적방법이다。「레닌의 방법중에는 그것은 대체로 이미 맑쓰주의학설에 있는것이니 그는 맑쓰의 말과같이 「그 본질상으로서 비판적이며 혁명적」인것이다。실로 이 비판적 및 혁명적정신이 철두철미하게 레닌의 방법에 일관되었다。그러나 레닌의 방법이 맑쓰가 준 그것의 단순한 부활이라고만 생각한다면 그는 옳지못하다。사실에있어서 레닌의 방법은 맑쓰의 비판적및 혁명적방법、즉 그의 유물론적변증법을 다만 부활시킨것만이 아니라 또한 그것을 구체화시켰고 앞으로 더 발전시킨것이다」(『레닌주의의기본과 레닌주의의제문제』모쓰크바판 제三三페지)

레닌주의자가 기회주의의 각색분자들보다 다른점의 중점문제는 맑쓰주의의 피상적 인식으로부터 생활에있어서 그의창발적발전과 발효에있으며 환경에 맞추어 맑쓰주의의 실천방법과 수단을 제정하며 이 방법과 수단은 환경이 변함에따라 변하게되는 거기에 있다。

쓰딸린은 이저서에 볼쉐위끼당과 혁명운동에있어서 혁명적학설의 위대한역할과 비상한의의에 대하여 특히 지적하였다。그렇기때문에 사회발전 로동운동 프로레타리아트의 혁명및 공산주의적건설에대한 학설을 과소평가하는 실천자들의 견해는 레닌주의에 전적으로 배반되는것이며 사업상 막대한 위협으로 된다。그러므로 쓰딸린이 말씀한바와같이 「리론은 즉 전세계로동운동의 경험을 그의 일반적형태로써 취하여놓은 그것이다。물론 리론이 만일 혁명적실천과 련결되지않는다면 그는 근거가없는것이될것이요 그와 마찬가지로 만일 실천이 혁명적리론으로서 자기의 길을 밝히지않는다면 그것은 맹목적이 될것이다。그런데 만일 리론이 혁명적실천과 분렬될수없는 련결처에서 기성된것이라면 그는 로동운동의 위대한 힘으로 변환될수있는것이다。왜 그러나하면 그러한 리론이 오직 그러한리론만이 운동에 자신과 지향력과 또한 주위의 여러가지 사건의 내부적련락에 대한 리해력을 줄수있는까닭이며 그러한 리론이 오직 그러한 리론만이 실천에 도움을주어 계급들이 현재에있어서 어떻게 어디로 움직인다는 그것뿐만아니라 또한 그 계급들이 가까운 장래에있어서 어떻게 어디로 움직이게 되리라는것을 리해하게할수있는 까닭이다。다른사람이아니라 바로 레닌이 다음과같은 유명한 론단을 발표하였으며 몇십번이나 그것을반복하였다。혁명적리론이없어는 혁명적운동도 있을수없는것이다」(『레닌주의의 기본과 레닌주의의 제문제』 모쓰크바판 제三五페지)

쓰딸린은 공산당(볼쉐위끼)을위한 리론의 중요한의의의 역할에대한 레닌선생의 주장을 다시금 지적

하면서 다음과같이 말씀하였다。「우리당을 둘러싼 복잡한 국제적 국내적환경으로 말미암아 특히 우리당과같은 그런당에 있어서 리론이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있다함을 잘 리해하였다。 레닌은 벌써 一九〇二년에 우리당의 이 특수한 역활을 미리 헤아리면서 그때에 벌써 다음과같은것을 말하여두지않으면 안될것으로 간주하였다。

「선봉적 투사의 역활은 오직 선봉적 리론으로써 지도되는당만이 실행할수있는것이다。」……레닌이 리론에 붙여준 그높은 의의의 가장 명료한 표현으로는 이러한 사실을、즉 다른사람이아니라 바로 그 레닌이 유물론적철학에있어서 엥겔쓰로부터 레닌에 이르기까지의시기에 과학이준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합성하며 또 맑쓰주의자들사이에 반유물론적사조들을 각방으로 비판하는 가장중대한 임무를실행한 그 사실을 들어야할것이다」。(『레닌주의의기본과 레닌주의의 제문제』 모쓰크바판 三五一—三六페지)

이저서에 쓰딸린은 자연생장성의 『리론』에대하여 미행주의적사상으로 또 각종기회주의자들의 리론적기초로보아 무자비한비판을 주었다。「자연생장성의「리론」은 기회주의의 리론이며 로동운동의 자연생장성앞에 굴복하는 리론이며 로동계급의 선봉 즉 로동계급의 당의 지도적역활을 사실상으로 부정하는 리론이다」(쓰딸린) 또 쓰딸린께서 이어 이저서에 다음과같이 자연생장성의「리론」을주장하는 기회주의자들의 반동성을 폭로하였다。「자연생장성앞에 굴복하는 리론은 자연생장성운동에 의식적 질서있는 계획적성질을 붙여주는것을 결정적으로 반대하는것이니 그 리론은 당이 로동계급의 선두에서 나가는것을 반대하며 당이 대중을 의식적 수준에까지 궐기시키는것을 반대하며 당이 운동을 인도하는것을 반대하는것이요、그리론은 운동에있어서의 의식적요소들이 운동의 제길로 나아가는데대하여 간섭하지못하도록하는것이요、그리론은 당이 자연생장성운동에 다만 순종할뿐이어서 그운동의 뒤에 끄을려 가도록 하며고하는것이다。자연생장성의 리론은 운동에 있어서의 의식적요소의역활을 더욱 적게 맏들려는 리론이며「미행주의」의 사상이며 온갖 기회주의의 기본인것이다」(『레닌주의의기본과 레닌주의의제문제』모쓰크바판 三七—三八페지)

다음으로 제국주의에 대한 레닌의 학설의 기본내용을 해석하면서 프로레타리아트혁명에대한 레닌주의적리론이 발생한 그 기본적 명제들을 특히 지적하면서 쓰딸린은 레닌적리론의 특징을 깊이 밝혀하였고 제국주의시대에서의 프로레타리아트혁명의 전재조건들을 분석함에대한 태도가 어떻게 변하여자

며 또 제국주의 시대의 새로운 조건에서 일반적으로 사회주의적혁명의 도안이 변한다는것을 론술하였다。

쓰딸린은 프로레타리아트혁명에 대한 레닌적 리론의 위대한 력량과 생활성에 대하여 깊이 창시하였을 뿐만아니라 사회주의혁명의 리론을 앞으로 더 영명하게 발전시켰으며 이미 레닌이 발견한 제국주의시대에서의 자본주의의 불균형적 발전법칙을 앞으로 더 발전시켰으며 또 그러한 조건에서 한국가내에서의 사회주의의 승리에대한 레닌의 리론을 더앞으로 발전시키며 또 레닌이 발견한 자본주의의 불균형적 발전법칙은 한국가내에서의 사회주의승리에 대한 레닌적리론의 직접적 리론적、전제조건이며 또는 출발처로 되었다。

부르죠아민주주의혁명이 사회주의적 혁명으로 계속 장성함에대한 레닌의 사상을 론술하면서 쓰딸린은「벌써 레닌선생이 一九〇五년 즉 로씨야첫혁명의 전야에 자기의 유명한 저서「두개의 전술」에 부르죠아민주주의혁명과 사회주의변혁을 한 련쇄의 두 고리로써 로씨야혁명의 전개에 대한 한개의 완전한 도해로써 그린것이 공연한 일이아니었다」고 지적하였다。

쓰딸린은 十월혁명의 사회주의적성질을 부정하는 뜨로쯔끼의「계속、혁명론」의 지지자와 한국가내에서의 사회주의 승리의 가능성에 대하여 불신임하는자들에게 치명적타격을 주었으며 또 어 뜨로쯔끼의「리론」의 반(半)멘쉐위끼적본질을 폭로하였다。쓰딸린은 이「리론」의 지지자들은「로씨야혁명에있어서 농민의 중대한 역활을 리해하지못하였으며 농민의 혁명적에네르기의 위력을 과소평가하였으며 농민을 인도할수있는 로씨야프로레타리아트의 실력과능력을 과소평가하였고 그리하여 부르죠아지의 영향으로부터 해방하는 사업과 그들을 프로레타리아트의주위에 결합하는 사업을 어렵게 한 까닭이다」라고말씀하였다。

사회주의혁명에대한 레닌의 리론을 지지하면서 자본주의발전의 새조건에서의 부분적국가들에서 사회주의혁명의 승리의 가능성을 명시하면서 쓰딸린은 다음과같이말씀하였다。

「이전에는 부르죠아지를 쳐서 이기려면 모든 선진국들이나 그렇지않으면 어쨌든 다수의 그러한 나라들의 프로레타리아들이 공동으로 진출하지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하면서 한나라에서의 혁명의 승리는 불가능한것이라고 간주하였었다。지금에는 이러한 견지는 벌써 실지에 맞지않는것이다。지금에는 그러한 승리가 가능하다는데로부터 출발하여야한다。왜 그러냐하면 제국주의환경에 있어서서의 자본주의각국의 발전의 불균등 및 비약적성질과 피할수없이 전쟁에로 이르게하는 제국주의내부의 파탄적모순의 발전

과 세계의 모든 나라에서의 혁명운동의 장성―이 모든것은 어느한나라에서 프로레타리아트의 승리가 오직 가능한 일열뿐만아니라 또한 필연의 열로 되게하는까닭이다。로씨야혁명의 력사는 이에대한 적접증거가되는것이다。이에있어서 반도시 기억하여둘것은 부르죠아지의 전복은 오직 필요한 몇가지 조건이 갖추어있는 경우라야만 성공적으로 실행될수있다는것이다。그러한 조건이없이는 프로레타리아트가 주권을 잡는데 대하여서는 생각할 필요도없는것이다」(「레닌주의의 기본과 레닌주의의 제문제」모쓰크바판五六―五七페지)

이어서 쓰딸린은 위에 지적한, 그러한 조건들이 없이는 사회주의혁명의 승리를 한국가내에서 달성할수없다는것을 명시하면서 레닌의 저명한 저서「공산주의에있어서의「좌익」소아병」에 규정한 혁명의 기본법칙을 인용하였다。쓰련에있어서의 사회주의승리의 가능성을 부인한 볼쉐위끼당의 원쑤 뜨로쯔끼주의자들과 지노비예브주의자들과의 맹렬한 투쟁에서 쓰딸린대원수는 쎄、쎄、쎄、르에서의 완전한 사회주의사회의 창건의 가능성에대한 레닌의 리론을 지지하면서 아리론을 앞으로 더발전시켰다。

쓰딸린은「레닌주의의 기본에 대하여」와「十월혁명과 로씨야공산주의자들의전술」과「레닌주의의 제문제」란 저서에 쓰련에있어서의 사회주의창설의 내부조건에대한 문제와 쎄、쎄、쎄、르에서의 사회주의의 종결적승리에 대한 조건들에 대하여 철두철미하게 론증하였다。쓰딸린은「레닌주의의 제문제」라는 저술에 다음과같이 지적하였다。

「우리는 자기의 수중에 완전한 사회주의적사회를 건설하여 놓은데 필요하고 또는 충분한 모든것을 가지고있으므로 우리는 그것을 완전히 건설할수있는것이며 또 건설하여 놓아야할것이다」쓰련에있어서의 완전한 사회주의사회의 창건의 가능성에 대한 레닌、쓰딸린의리론은 쓰련에있어서의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에 쓰련공산당(볼쉐위끼)과 로동계급을 격려하였으며 또 그들에게 이 승리에대한 신념과 전망을 주었다。

지금 중부동남제구라파 제민주국가들에서도 이 레닌 쓰딸린의 한 국가에서의사회주의건설에 대한 리론에 기초하여 자기국가들에서의 사회주의적사회를 창건하고있다。쓰련인민은 공산당(볼쉐위끼)의 지도밑에 레닌 쓰딸린의 학설을 실쟁함에서 론증하였고 쎄、쎄、쎄、르에서의 사회주의적승리를 쟁취하였다。

× × ×

쓰딸린은「레닌주의의 기본에 대하여」란 저서에 사회주의혁명에 대한 맑쓰―레닌주의적리론의 제반 중요한 부면들을 앞으로 더 발전시켰다。즉 프

로레타리아트의 독재와 그의 공고에 대한 수단과 조건들에 대한 학설 볼쉐위끼당과 프로레타리아트독재의 기본적력량으로 그의 발전법칙에 대하여 이 독재의 최고원칙으로 로동자와 농민의 동맹에 대하여 프로레타리아트혁명의 리론과 전략 전술의 가장중요하고 복잡한 문제에서의 하나인 식민지민족문제에 대한 학설들이다。쓰딸린의 저서「레닌주의의 기본에 대하여」의결론에 레닌의 사업방법을 명백하게 해석하여놓았다。

맑쓰와 엥겔쓰는 프로레타리아트를 가장 철저하고 완전무결한 과학적세계관으로 무장시켰고 프로레타리아트의 력사적 과업을 해결함에 대하여 즉 공산주의적사회를 창설함에 대한 유일한 길은 프로레타리아트의 독재를 경유하여서만 된다는것을 가르쳤다。쓰딸린은 이저서에 맑쓰와 엥겔쓰가 프로레타리아트독재의 시기가 장구하거나 혹은 짧거나간에 프로레타리아트는 주권을 장악하고 경제 정치 문화 조직적대책들을 취하고있다。그것은 낡은 자본주의 사회대신에 새 사회주의적 사회를 창조하기위하여 불가피하다는것을 이미 예견하였다고 론술하였다。맑쓰와 엥겔쓰는 동시에 프로레타리아트의 헤게모니야에 대한 사상 민족 식민지문제에 대한 기본적사상에 대하여 초안을 작성하여놓았던것이며 프로레타리아트의 전봉대로서의 당에 대한 학설의 기본초안을 작성하여놓았는데 그에는 로동계급이 그러한 당어 없이는「주권을 쟁취하는 의미에있어서나 자본주의사회를 변혁하는 의미에있어서 자기의 해방을 쟁취할수없을것이다」(쓰딸린)

레닌은 새로운 력사적환경에서 이 맑쓰와 엥겔쓰의 사상을 각방면으로 더발전시켰다。레닌은 혁명에있어서의 프로레타리아트의、헤게모니야에 대한 맑쓰와 엥겔쓰의 사상을 짜리즘과 자본주의를 전복하는 사업에서만아니라 프로레타리아트의독재에 있어서의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사업에서도 도시와 농촌의 근로대중을 지도하는 프로레타리아트의 지도의 정연한 체계로 발전시켰다。

레닌이 가르친바와같이 쓰딸린은 자본주의를 혁명적으로 소멸할 방법과 프로레타리아트의 정치적패권으로서의 프로레타리아트독재에 대한 맑쓰와 엥겔쓰의 학설을 재생시켰고 또 앞으로 더 발전시켰다。「프로레타리아트독재는 낡은 사회의 세력과 인습을 반대하는 류혈적 및 비류혈적 폭력적및 평화적 군사적 및 경제적 교육적 및 행정적의 강경한 투쟁이다」(레닌)

「레닌주의의 기본에 대하여」와「레닌주의의 제문제」에대한 자기의 저서에 쓰딸린은 프로레타리아트독재에대한 레닌의학설을 각방면으로 더 앞으로 발전시켰다。쓰딸린이 가르친바와같이 프로레타리

아트독재는 프로레타리아트혁명의 기본내용으로된다。 프로레타리아트 혁명은 프로레타리아트독재를 경유하여서만 그의 운동 그의발전력 그의 성과를 가질수있다는것을 쓰딸린은 루차 지적하였다。 프로레타리아트독재는 프로레타리아트의사회주의혁명의 무기로 전복된 계급의반항을 분쇄할뿐만아니라 외국무장간섭자들로부터 국가의 보위를 조직하며 공산주의의 완전한 승리까지 프로레타리아트의 사업을 수행할수있는 능력을 가진 그의 중요한기관으로 되었다。

쓰딸린은 프로레타리아트독재를 자본주의로부터 공산주의로 과도하는 전력사적시대로 보아야한다는것을 가르쳤다。「이력사적시대는 사회주의의 완전적 승리에대한 경제적및 문화적 전제조건들을 만들기위하여서만 필요한것이아니라 프로레타리아트에게 첫째로 나라를 관리할만한 힘으로서의 자체를 교양하며 단련할 가능성을주고 둘째로 사회주의적 생산의 조직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소부르죠아층들을 고쳐 교양하며 개조할 가능성을 주기위하여서 필요한것이다」(「레닌주의의제문제」五〇—五一페지) 프로레타리아트독재가 부르죠아 사회의 평화적 발전의 결과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부르죠애의 국가기구 즉 부르죠아 군대 부르죠아의 관리기관 및 부르죠아의 경찰기관을 소탕한 결과에 발생하였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쓰딸린은 착취계급 즉 자본가와 지주주권의 전복과 프로레타리아트의 주권장악은 다만 사업의 시초라는것을 지적하였다。「모든사업은 주권을 지지하며 그를 공고히하며 그를 백전백승의 것으로 만들기위함에있다」(쓰딸린)

그러므로 쓰딸린께서는 프로레타리아트독재의 과업은 전복된 계급들의 반항을분쇄하며 쏘베트주권을 공고해하며 외부의 적들과의 싸우기위한 군대를 조직하며 사회주의사회의창건을 위함에 있다는것운 루차 가르쳤다。

쎄、쎄、쎄、르에서 볼쉐위끼당과 쓰딸린의 령도밑에 쏘베트인민은 강경하고 장구한 투쟁에서 사회주의사회의 창건에대한 이 과업을 실천하였다。 쎄、쎄、쎄、르에서 사회주의의승리와 함께 프로레타리아트독재의 겨지가 더한층 확대공고되였다。

레닌과 쓰딸린이 창건한 붉은군대는 쏘베트조국보위에있어서 이미 공민전쟁에서 외국무장간섭자들의 참공을 격파하고 쏘베트조국와 자유와 독립을 고수하였다。 쏘련의 조국애호전쟁시기에있어서 조국의 충직한 옹호자인 붉은군대는 독일팟쇼들을 자기의조국으로부터 구축하였을 뿐만아니라 적들을 적들의 소굴에서 소탕시켰으며 적들의 기반에서 수년간 신음하던 구라파 인민들을 구원하였고 그 구원된 국가내에서의 민족적독립국가생활을 보장하여주었다。 그뿐만아니라

이 정의의 쏘련군대는 세계평화와 안전의 초소에서 약소·민족과 식민지민족들의 해방과 독립을 보장하는 자기들의 력사적 사명을 리행하는 과정에서 아세아의 식민지민족 특히 우리조선민족을 일본제국주의의 근四〇년간의 철쇄에서 해방시켰고 이 해방된 우리의 조선민족들에게 자유로운 독립적 인민민주주의적공화국을 수립할수있는 유리한 제조건들을 지어주었다。

레닌은 벌써 一九一七년에 쓴 저명한자기의 저서「국가와혁명」에 프로레타리아트독재의 국가에대한 맑쓰와 엥겔쓰의 학설을 옹호하며 그를 앞으로 더 발전시켰다。 그러나 주지하는바와같이 불행한 죽음은 레닌에게 쏘베트국가내에서의 쏘베트주권의 경험에 의하여 프로레타리아트독재의 국가의 학설을 앞으로 더 연구발전시킬 사업을 방해하였다。 이 위대한 과업은 그의 제자이며 가장 철저한 계승자인 쓰딸린이 실천하였다。

쓰딸린은 자기의 저서「레닌주의의 기본에 대하여」에 프로레타리아트독재의 국가에 대한 레닌의 학설을 발전시켰으며 프로레타리아트독재는 근로대중의 압박과 착취를 목적하는것이아니라 그내용으로 보아서 원칙적으로 다른 새로운 것이며 이 국가의 과업은 그들을 각종 압박과 착취로부터 완전히 해방시킬것과 공산주의의건설이다。

쓰딸린은 쏘련공산당(볼쉐위끼) 제十八차당대회에서 잔술한 자기의 력사적보고에 사회주의건설의 풍부한 경험의 기초위에서 프로레타리아트국가의 리론 쏘베트국가에 대한 맑쓰—레닌의 학설을 더앞으로 발전시켰다。 쓰딸린은 자본주의의 포위의 환경속에서 공산주의시대의 국가에 대한 문제를 새롭게 작성하여 내세웠다。 쓰딸린이 지적한바와같이 자본주의적포위가 남아있는한 외부의 습격의 위협이 소멸되지않는한 공산주의에있어서도 국가가 조락되지 않고 내외의 환경에 적응하여 국가의 기능이 변한다。 프로레타리아트독재의 국가에 대한 레닌과 쓰딸린의 학설로 무장한 쏘련공산당(볼쉐위끼)은 공산주의의 승리와 근로대중의 사회주의적쟁취를 옹호하기위한 로동자와 농민의 중요한 무기로된 쏘베트국가의 위력과 력량을 계속 공고시켰다。 이러한 당의 공고정책에 대한 결과는 특히 제二차세계전쟁에서 명백히 표현되었다。 자원적이며 평등적인 위대한 레닌—쓰딸린의 원칙에 기초하여 창설된 쏘베트의 다민족국가는 자기의 경제의 조직과 발전에있어서 자기군대의 정치적 전투적정신과 가능과경험에있어서 또 전쟁가간을 통하여 통일성과 인민들간의 인내성이 원쑤들보다 더한층 강세하였고 우월하였다는 것을 전세계에 시위하였다。 쏘베트국가의 이 위대한 력량은 세계에서 가장 견고하고 선진적인 제도 즉 쏘베

트제도인것이다。

쎄、쎄、쎄、르의 인민들간의 칠선은 전쟁의 재반시련을 치험하였으며 볼쉐위끼당은 쏘베트인민의 조직적 선도적력량으로되였다。 레닌은 로씨야에서 로동계급의 혁명적투쟁경험을 연구하면서 쏘베트주권을 프로레타리아트독재의 국가적형태로 창시하였다。 레닌은 프로레타리아트독재를 로동계급의 지도에의하여 비프로레타리아트계급의 피착취대중들과 프로레타리아트의계급적동맹의 특별한 형태로 규정하였으며 프로레타리아트독재는 최고형태의 민주주의라는것을 특별히 지적하였다。

쏘딸린은 자기의 저서 『레닌주의의 기본에 대하여』에 프로레타리아트의 국가적 형태로서 쏘베트에 대한 리론을 앞으로 더 발전시켰으며 쎄、쎄、쎄、르에서의 정치적기초로 국가적조직체의 새형태로 쏘베트의 의의와、력량이 어디에있다는것을 아주 명백하게 설명하였다。

『쏘베트가 직접 대중자체의 조직체인데에 있는것이니 다시말하면 대중이 새국가의 건설과 관리에 참가하는것을 최고한도로 쉽게하며 낡은 구조의 파괴를 위한 투쟁 및 프로레타리아트적 새 구조를 위한 투쟁에있어서 대중의 혁명적 에네르기자발성 창조적재능을 최대한도로 터쳐놓는 가장 데모크라적이요 따라서 가장 권위있는 대중의 조직체인데에 있는것이다。』(『레닌주의의기본과 레닌주의의제문제』 모쓰크바판七四—七五폐지) 쏘베트주권의 이러한 특징을 쏘딸린은 지적하면서 쏘베트주권은 전세계에서 대중적 또는 가장 민주주의적조직체로 될뿐만 아니라 『계급사회의 모든 국가조직체중에서 가장 국제주의적인데 있는것이다。 왜 그러냐하면 쏘베트주권은 온갖 민족적압박을 깨뜨리며 여러가지 민족의 로력대중의 협동에 의거하면서 동시에 그 대중을 단일적국가동맹에 련합시키는것을 쉽게하여 주는까닭이다。』(『레닌주의의 기본에 대하여』모쓰크바판七六폐지)

레닌과 쏘딸린의 제의에 의하여 쏘련공산당(볼쉐위끼)으로하여금 준비되였고 또 一九二二년十二월에 창설된 쏘베트 사회주의련맹공화국이 소베트로씨야의 인민의 국가적련맹으로되였다。 이러한 련맹은 레닌과 쏘딸린의 위대한 원칙에 기초하여 구성되였으며 즉 이 원칙은 각 민족과 인민들의 자원적 또는 평등적인 권리를 보장하여주는 동시에 그들이 자원적으로 본련맹의 성원으로 가입하였다。

『그리하여 쏘베트공화국은 찾아내여야하며 마침 찾아얻어낸 정치적 형태가 되는것인바 그형태의 범위안에서는 프로레타리아트의 경제적 해방과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가 완성될것이다』(쏘딸린)

주지하는바와같이 생활은 이 쏘딸린의명제를 완

전무결하게 확증하였다。

볼쉐위끼당의 지도를 받는 쎄、쎄、쎄、르의 인민들은 쏘베트의 위력에 의거하여 쎄、쎄、쎄、르에서의 사회주의의 승리를 쟁취하였고 이력사적승리를 쏘딸린헌법에 법적으로 고착시키었다。

위대한 사회주의적 十월혁명의 승리의결과에 로씨야에서의 쏘베트제도의 생활성과 진보성은 확증되였고 특히 이번 조국애호전쟁에있어서 새로운 력량으로 출연하였다。 그러므로 쏘딸린은 十월혁명二十六주년 자기의 기념보고에 다음과같이 지적하시었다。『쏘베트제도는 평화적건설기에있어서 국가의 경제 문화 상승의 훌륭한 조직적형태로서 뿐만아니라 전쟁시기에 적에게 치명적타격을 주기 위하여 인민의제반력량을 동원하는 훌륭한 형태로 되었다는것을 전쟁의 교훈은 말하여준다』

十월혁명의 산아인 쏘베트제도는 쏘련인민과 쏘련군대에 위대한 불가항력을 주었다고 쏘딸린은 十월혁명二十七주년에 대한 자기의 보고에 지적하였다。

쏘딸린은 자기의 저서『레닌주의의 기본에대하여』에 프로레타리아트독재의 기초로서 로동자농민의 동맹에 대한 레닌의 학설을 지지하였으며 앞으로 더발전시켰다。 그뿐만아니라 쏘딸린은 여기에서 농민문제에 대하여 맑쓰—레닌주의적 분석을 광범히 전개하였다。 또 쏘딸린은 계속하여 농민문제는 즉 주권과 사회주의사회의 창설을 위한 그 투쟁에있어서 로동계급의 동맹에 대한 문제이며 또『이러한 의미에 있어서 농민문제는 프로레타리아트독재에 대한 일반적문제의 한부분이요 또한 이러한 문제로서 레닌주의의 가장 긴밀한 문제들중의 하나가 되는것이다』(『레닌주의의기본과 레닌주의의 제문제』모쓰크바판八〇폐지)

레닌과 쏘딸린은 위대한 사회주의十월혁명의 엽마전에 로씨야에서의 주권과 새로운 사회주의제도의 승리를 위한 투쟁에있어서 로농동맹의 가능성을 부인한 쏘련공산당(볼쉐위끼)의 기타 원쑤와 뜨로쯔끼 및 멘쉐위끼들을 반대하는 결정적투쟁을 진행하였다。

레닌과 쏘딸린은 항상 로동계급과 그의 로농동맹의 승리의 가능성과 필연성 및 혁명에있어서의 프로레타리아트의 지도적역활의 필요성을 증명하였다。 쎄、쎄、쎄、르에서의 사회주의적 十월혁명의 위대한 경험은 레닌과 쏘딸린의 이명제를 원만하게 확증하였고 농민문제에 관한 기회주의자들의「리론」이 전혀 무능력하다는것을 적라라하게 폭로하였다。 주지하는바와같이 레닌주의의 원쑤들은 十월혁명후에 로농동맹에대한 레닌의 학설을 반대하는 공격을 조금도 멈추지않았다。 역시 그들은 사회주의건설에 근로농민의 망라에 대한 가능성과 로동자측

으로부터의 농민에게 대한 지도의 가능을 부인하였으며 따라서 그들은 또농간의 룰가파와 충돌과 혁명의 실패를 예언하고있었다。

쓰딸린은 농민문제에 관한 레닌의 학설을 지지하면서 그를 발전시키면서「레닌주의의 기본에 대하여」란 자기의저서에 쏘베트농민에 대한 뜨로쯔끼의 비방을 철저히 폭로하였으며 사회주의건설에 수천만 농민대중의 망라의 가능성을 부인하는것은 맑쓰주의를 변절하는것이며 사회주의혁명에대한 레닌의 학설을 부인하는것으로밖에는 인정할수없다고하였다。그러므로 쓰딸린은 자기의 저서에 부르죠아민주주의혁명당시 또 로씨야에서의 十월혁명시기와 쏘베트주권의승리후 시기에있어서의 농민문제에 대한 레닌주의의 기본적 전술적구호의 심대한 내용을 분석하여놓았고 쏘베트농민의 특성을 지적하는 동시에 벌써 그때에 쏘베트의 조건에있어서 레닌의 가르친길로 농촌경리의 발전을 위한 농촌의 사회주의적혁신을 위한 원만한 가능성이 조성되었다는것을 예언하였다。 또 쓰딸린은 프로레타리아트가 주권에 서고있는한 로농대중을 응당히 리용할수있다는것을 증명하였다。

「주권을 잡은 프로레타리아트가 공업과 농업을 결합시키며 사회주의적 건설사업을 항상시키며 또 필요한 로대 즉 그토대가없이는 사회주의적 경제에로 넘어갈수없는 그런 필요한 토대를 프로레타리아트의 복재하에 확보하기위하여 그 후비군을 리용할수 없으며 또 리용하여야한다는것을 말하는것이다」(「레닌주의의 기본과 레닌주의의 제문제」모쓰크바판 九八―九九페지)

쓰딸린은 농촌경리의 사회주의적 개선에 대한 위대한 과업을 실천하는데 볼쉐위끼공산당을 고무하였을뿐만아니라 이 과업의 실천적 구체적로선을 작성하였나니 즉 농촌경리의 단합화와 쏘련에있어서의 꼴호즈제도의 공고아였다。쌔、쌔、쌔、로에서의 꼴호즈제도의 승리와 관련하여 쏘련의 농민들은 쏘베트주권의 견고한 토대로 변천된것이 농민문제에 관한 레닌 쓰딸린적학설의 생활성을 명백히 확증하여주었다。쓰딸린의 지도밑에서 레닌의 유언대로 꼴호즈제도의 력량 로농동맹의 력량을 볼쉐위끼공산당이 공고시켰고 이 공고된 력량들은 지난 쏘련의 조국애호전쟁에서 가장 우월한 력량으로 더한층 명백히 표현되었다。그러므로 조국애호전쟁에서 로농동맹은 일층 더 공인하여졌다。그럴기때문에 이 동맹을 와해시키려던 원쑤들의 시도는 완전히 실패되었다。쓰딸린어 위대한 사회주의十월혁명二十七주년 자거의 기념보고에「우리의 꼴호츠농민은 적극적으로 또는 조국에 대한 그 의무감을 충분히 인식함으로써 적에게대한 승리를 달성함에있어

서 붉은군대를 방조하였다」고 말씀하였다。

十월혁명의 얼마전 제一차세계전쟁전야에 쓰딸린은 레닌과함께 로씨야에있어서의 모든 민족들의 로동계급이 단결할수있다는 원칙을 지지하였고 민족문제에 관한 맑쓰주의적강령을 작성하였다。

이 강령의、기본내용은 이미 쓰딸린의 론문「맑쓰주의와 민족문제」레닌의 론문「자결에 대한 민족적권리에 대하여」또「민족문제에 관한 비판적소론」이란 론문에 론술되었다。

一九一三년에 발표한 쓰딸린의 유명한 저서「맑쓰주의와 민족문제」에 로씨야에서의 민족문제를 해결하는 영명한 창안을 내세웠고 민족에게 대한 맑쓰―레닌주의의、 정역한 학설을 분석하여놓았으며 또 민족국가의 형성과 민족운동이 어떻게 표현되었는가에 대하여 맑쓰주의적으로 깊이 해석하여놓았다。쓰딸린은 불쉐위즘의 기본구호인 독립적국가를 형성할수있는 민족적 자결에대한 민족의 권리를 창시하였으며 민족문제에 있어서의 제반기회주의자들에게 치명적 타격을 주었다。

「맑쓰주의와 민족문제」에 대한 자기의 저서에 전개한 쓰딸린의 리론적 명제들은 로씨야에있어서 十월혁명전과 또 그후에있어서나 볼쉐위끼당의 민족문제에 대한 옳은 해결을 위하여 진행한 투쟁이 기초로되었었다。 쓰딸린은「레닌주의의기본에대하여」란 자기의 유명한 저서에 민족문제에관한 레닌의 학설을 더한층 빛나게 발전시켰다。여기에있어서 쓰딸린은 제二국제당이 내세운 문제보다전혀 다르게 레닌과 볼쉐위끼당과함께 민족문제를 내세웠다。다시 말하면 제二국제당은 주권과 프로레타리아트혁명에 대한 일반적문제와 하등의 련결이 없는것과같이 보았다。그러나 쓰딸린은 다음과같이 지적하였다。「민족문제는 프로레타리아트혁명에 대한 일반적문제와 부분이며 프로레타리아트독재에 대한 문제의 부분이다」

다음으로 쓰딸린은 민족문제의 해결에있어서 레닌주의의 중요한 출발점을 해석하면서 식민지에 대한 문제와 민족문제가 련결성을 가졌다는것을 리론적으로 창시하였고 프로레타리아트독재를 위한 투쟁에있어서 민족문제에 관한 당의 옳은 정책이 위대한 의의를 가지고였다는것을 역시 명시하여주었다。위대한 사회주의적 十월혁명의 경험은 레닌 쓰딸린이 지도하는 볼쉐위끼당만이 로씨야의 변경(邊境)의 락후한 민족들까지 혁명화할수있었고 프로레타리아트혁명과「농민전쟁」과의 련결을 실천할뿐만아니라「민족해방전쟁」과의 련결을 실천할수있었다。

위대한 사회주의적 十월혁명은 로씨야에있어서 외부와 내부의 적들의 제반책동(毁壞)를 타파하였고

론토한 승리를 쟁취하였다。

로씨야에있어서의 제국주의자들의 주권을 전복한 위대한 사회주의적十월혁명은 쎄、쎄、쎄、로의 인민들간의 형제적 협력의 토대를 구축하였고 인민들간의 중요한 민족적 적개심의 매개자로된 제국주의자들의 주권을 영영숙청하여버렸다。

쎄、쎄、쎄、로에서의 제반민족들의 근로자들의 형제적동맹을 지지하며 옹호하면서 프로레타리아트독재의 중요한 기본의 하나로 인추하면서 쓰딸린은 「레닌주의의 기본에 대하여」란 자기의 저서에 인종차별론과 흑색 백색 또는 문명하고 비문명한 민족적 분별정책을 주장하는 파시쓰트적 인종차별론에 대하여 치명적타격을 주었다。

「레닌주의의 기본에 대하여」란 쓰딸린의저서에 심대하게 전개시킨 명제와 사상으로 무장한 볼쉐위끼공산당은 부르죠아민족주의자들과 제반 각종민족경향자들을 진멸시켰고 쎄、쎄、쎄、르에서의 인민들간의 친선과 동맹은 쓰딸린의 직접 지도밑에서 승리를 쟁취하였으며 또 쎄、쎄、쎄、르인민들의 이 형제적동맹은 쓰딸린헌법에 고착되었다。

레닌 쓰딸린의 민족정책의 옳은 실천에의하여 또 쎄、쎄、쎄、르에서의 사회주의승리와 볼쉐위끼공산당의 막대한 교양사업에의하여 쏘련인민들의 성격이 근본적으로 변경되었으며 그들에게 예전에있던 호상 불신임적 감정이 소멸되었고 그들간의 친선적 감정이 발달되었고 유일한 동맹적 국가체계에있어서 쎄、쎄、르의 인민들간의 진정한 형제적 협동적 통작은 개선되었다。특히 제二차세계전쟁당시에 쏘련인민들의 친선은 더한층 공고하여졌다。그뿐만아니라 전쟁당시에 역시 쎄、쎄、쎄、르는 제반 자유애호인민들과의 련결이 확장되었고 공고하여졌다。여기에서 야수적민족주의의 사상과 히틀러의 인간증오의 인종차별론에 대하여 완전무결한 승리를 쟁취한 인민들의 친선에 대한 레닌 쓰딸린의 민족정책과 사상의 위력성과 생활성이 더한층 표현되었다。

쓰딸린은 자기의 저서 「레닌주의의 기본에 대하여」에 프로레타리아트계급투쟁의 지도에 대한 과학으로서의 전략전술에 대한 맑쓰—레닌주의적 학설을 해석하였고 더 발전시켰다。

쓰딸린은 혁명에있어서의 프로레타리아트의 전략과 전술의 고전적 규정을주었고 맑쓰—레닌주의적 전략과 전술의 중요한 임무를 규정하였다。

「전략은 혁명의 기본적력량과 및 그의 후비군에 대한것을 대상체로하는것이다。전략은 그(該)계단의 전기간을 통하여 대체로는 변동됨이 없으면서 혁명이 한계단으로 부터 다른계단으로 넘어가는것과 관련하여 변경되는것이다」(「레닌주의의 기본과 레닌주의의 제문제」모쓰크바판一一八페지)

쓰딸린은 이어서 전술은 전략의 한부분이며 그에 복종하는것이며 그를 수응하는것이다라고 말씀하였다。

「전술은 프로레타리아트의 투쟁과 조직의 여러가지형태、그형태들의 교대 그형태들의 련결에대한것을 대상체로 하는것이다。전술은 혁명의 그계단의 기초위에서 혁명의 만조(滿潮)와 퇴조(退潮)앙진(昻振)과 침체(沈滯)에 따라서 몇번이든지 변경될수있는것이다。」(「레닌주의의 기본과 레닌주의의 제문제」모쓰크바판 一二〇페지)

쓰딸린이 지도하며 레닌 쓰딸린의 리론으로 무장하는 볼쉐위끼공산당은 레닌 쓰딸린의 전략과 전술을 완전히、습득하면서 자기의 생활과 자유를 위한 쏘련인민의 투쟁에 대한 지도적모범을 그들에게주었다。그뿐만아니라 레닌과 쓰딸린의 전략과전술에 대한 리론은 쏘련인민의 조국애호전쟁에있어서 세계사적승리를 쟁취하였으며 전후 민주진영의 제 민주주의국가들에서의 독립과 자유와 인민경제의 자립적발전과 부흥을 위한 투쟁에있어서 그들에게 향도선으로 되였으며 또 국제반동과 국내반동을 반대하는 제 자본국가들에서의 로동계급의 투쟁과 식민지 반식민지민족국가들에서의 민족해방운동의 세계사적승리는 레닌—쓰딸린의 전략과 전술의 위력성을 증명하는 사실이다。

다음으로 쓰딸린은「레닌주의의기본에 대하여」란 자기의 저서에 당에대한 레닌의 학설을 사회주의적 건설의 환경에서 해석하면서 더 발전시켰다。주지하는바와같이 레닌은 맑쓰 엥겔쓰의 풍부한 유적물들을 연구하면서 프로레타리아트당에 대한 그들의 학설을 더발전시키면서 새형태의 프로레타리아트당에대한 완전하고 정연한 학설을 창시하였다。레닌과 쓰딸린은 수년간 인민파 에쓰에르 멘쉐위끼 무정부주의자 부르죠아민족주의자 역시 뜨로쯔끼주의자 부하린과 민족주의적경향자들과 기타 반레닌주의적 구루빠들과의 투쟁에서 새형태의 당인 혁명적맑쓰주의당 즉 볼쉐위끼당을 강경하게 각방면으로 준비시켰다。

쓰딸린은 레닌과함께 새형태의 맑쓰주의적당 즉 볼쉐위끼당을 창건하면서 벌써 一九〇五년에 발표된 당의 규약의 일조에 공헌한「프로레타리아계급과 프로레타리아트당」이란 자기의저명한 론문에 당에 대한 레닌이 창시한학설을 지지하였고 레닌의 유명한 저서「일보전진 이보퇴각」에 창악한 볼쉐위끼당의 조직적기본을 지지하였다。볼쉐위끼당의 볼동요적 이 기본에 의하여 볼쉐위끼당은 위대한 력량으로 장성하였고 十월의 위대한 승리를 보장하였다。쓰딸린은「레닌주의의 기본에 대하여」란 자기의 저서에 새형태의 당으로서의 그의 특징에 대하여 로

도계급의 선봉적 조직적부대로서 프로레타리아트의 계급적 최고조직형태로서• 또 프로레타리아트독재의 무기로서 통일된 의지로서의 프로레타리아트당에대한 레닌의 학설을 더 발전시켰다。

그러면서 쓰딸린은 당내에서의 발생하는 프락치야적경향에 대하여 특히 무자비한 볼쉐위끼적투쟁을 전개함으로써 통일된 가장 강경한 당으로 만들것을 지적하였다。

十월혁명후 볼쉐위끼당의 거대한 활동과 사회주의건설의 실천을 종합한 기초위에서 쓰딸린은 볼쉐위끼공산당의의의와 또 프로레타리아트독재의 체계에서의 지도적 기본적 그의역할과 사회주의제도의 발전과 공고를 위한, 그들의 투쟁에서 제반 문로대중의 선봉적부대로 또 주권이 핵심으로 새로운 계단에 올려세웠다。

평화적건설시기에서의 볼쉐위끼당의 거대한 조직적활동을 종합한 기초위에서 쓰딸린은 볼쉐위끼당의 조직적기초를 더 한층 발전시켰다。

레닌 쓰딸린당의 지도밑에서 쏘련의 로동자 농민 인테리들은 자유로운 행복한 생활을 쟁취하였고 적대적 계급없는 사회주의적 사회를 창설하였다。

독일팟쇼를 반대한 쏘련인민의 조국애호적쟁당시에있어서 레닌당은 파시쓰트강점자들을 반대한 전인민적투쟁의 조직자로 고무자로 전세계의 근로대중앞에 나섰다。 그와같이 볼쉐위끼공산당은 독일팟쇼를 반대하는 제二차세계전쟁에서 전세계의제반 진보적천열을 동원 출동시켰다。 그러한 결과에 볼쉐위끼공산당의 지도밑에서 쏘베트동맹의 무력은 파시쓰트독재를 동남구라파와 적들의 소굴인 독일에서 소탕시켰고 쏘베트국가는 팟쇼의 기반에서 해방된 동남구라파와 중부구라파의 제국가들의 민족적독립국가와 부흥과• 그 국가들의 사회주의적 사회의 창설로 매진함에있어서 원조하고있었다。 그렇기때문에 레닌 쓰딸린적 볼쉐위끼공산당은 전세계근로인민의 무한한 사랑과 지지를 받으며 전세계근로인민은 그를 자기의 구원자로 가장 강유력한 대전때승의 당으로 보고있다。

× × ×

쓰딸린의 유명한저서 「레닌주의의 기본에 대하여」가 세상에 나온지도 벌써 二十五년이 되었다。

이 기간에 쏘련의 공산당 (볼쉐위끼)은 쓰딸린의 영명한 지도밑에서 레닌이 가르친 길로 나아가면서 쏘베트국가의 모든 경제를 근본적으로 재전화하였나니 국가의 공업화와 농촌경리의 단합화가 필성되였음으로써 쏘련은 가장 위력한 공업 꼴호즈 강국으로 되였다。 쏘베트의 인민들은 레닌 쓰딸린의 지도밑에서 세, 제, 제, 르에서의 사회주의승리를 쟁

취하였고 이위대한 승리들을 세계에서의 가장 민주주의적인 쓰딸린헌법에 법적으로 고착시켰다。

쓰딸린의 「레닌주의의기본에 대하여」란 저서는 특히 오늘의 국제환경에 있어서 다시 말하면 민주와 반민주의 진영간의 명렬한 투쟁이 전개된 환경에서 전세계근로인민의 해방의 기치로 되었으며 또 전세계 근로인민을 맑쓰—레닌주의적 리론의 위력한 무기로 무장시킨다。

쓰딸린의 「레닌주의의기본에 대하여」란 저서는 쏘련에있어서의 공산주의승리를 위한 투쟁에서의 이 위력한 무기를 적용함에 대한 방법을 가르치며 또 세계의 반동진영을 분쇄하는 투쟁에있어서 이 위대한 무기로 무장한 근로인민만이 승리를 쟁취할수있다는것을 전세계근로인민들에게 가르치고있다。

쎄, 쎄, 쎄, 르에서의 사회주의승리는 레닌 쓰딸린의 위대한 사상의 승리인것이다。 쏘련볼쉐위끼당과 쎄, 쎄, 쎄, 르의 제반인민들의 이 력사적승리는 레닌의 학설과 사업의 위대한 계승자인 쓰딸린의 이름과 유기적으로 련결되었다。 또 오늘에있어서의 민주주의적 진영의 거대한 장성들과 식민지 민족국가들에서의 외국침략정책을 반대하는 해방투쟁의 위대한 승리들도 세계인류의 구성인 쓰딸린대원수의 이름과 긴밀한 인연을 가지었다。

그렇기때문에 쁘라우다 주필 쁘• 느• 뽀 쓰뻴로브선생은 레닌서거二十五주년 기념보고에서 다음과같이 말하였다「위대한 레닌의 학설은 세계력사의 전행정에 보다더 심오한 영향을 주고있으며 자본주의국가들의 수백만 근로자들을 그 해방투쟁에서 사상적으로 무장시킨다。」

쓰딸린의저서「레닌주의의 기본에 대하여」가 세상에 나온후 二十五년간은 전세계근로인민과 피압박식민지민족들이 제국주의의압박으로부터 해방되는시기이며 쓰딸린이 이저서에 명시한 새 사회의 원칙위에서 생활을 건설할 유일하고 정당한 길을 가르친것이 력사적발전의 행정으로서 확증된 시기이다。

「인민 민주주의 국가들의 실례에서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로 과도하는 시기에 각종 정치적 형식들의 본질로 보아서 프로레타리아트독재의 국제적의의에 대한 레닌과 쓰딸린의 론증들은 력사적 정당성을 확증한다。

사회주의 사회 건설에 관한 쏘련공산당의 경험은 인민민주주의국가들에있어서 특별히 중대한 의의를 가지고있다。」 (뽀 쓰뻴로브)

이 二十五년간에 레닌주의는 수백만 피압박근로자들이 자본주의를 반대하여 혁명적으로 투쟁하도록 훈련시켰으며 교양시켰다。 이에 대한 실례는 오늘의 중국민주정체의 승리와 또는 월남 마

타이 인도네시아에서 전개되고있는 정치적 사변들이 명백하게 증명하여준다。

이 사변들은 『식민지 및 예속국가에대한 평화적 착취와 압박의 시기는 이미 지나갔다』는데 대한 쓰딸린의 말씀을 증명하고있다。

레닌주의사상의 생활력을 가진 대력량은 공산당의 장성과 대중에게 주는 그의 영향에서 더욱 심각하게 표시되었다。 이영향과 위신의 장성을 쓰딸린은 력사적 발전법칙이라고 칭하였다。

쓰딸린의 『레닌주의의 기본에대하여』란 유명한 저서가 바로 세상에 나오기전에 『외국공산당의 수효가 약 五十만명에 달하였다면 현재에 와서는 외국공산당과 련합로동당이 자기의 대렬에 一천八백여만명의 성원을 가지고있다。』(쁘쓰뻴로브)

이와같이 레닌주의는 근로대중속에서 공산당과 련합로동당을 장성시키고있다。

이 당들은 『제국주의침략을 반대하고 확고한 평화를 위하여 인민민주주의를 위하여 사회주의를 위하여 싸우는 진실하고 철두철미한 투사들이다。』(쁘쓰뻴로브)

그러므로 맑쓰—레닌주의로 무장하는당만이 근로인민의 정치적 경제적 생활을 개선시킬수있는 위력을 소유하고 타민족과 타국령토를 침범하는 제국주의의 야욕적 정책을 타승할수있는 만능적위력을 가지게 된다。 그렇기때문에 우리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 허가이동지는 우리당원과 당간부들이 맑쓰—레닌주의를 철저하게 소유할 과업을 자기의 보고에 내세웠다。 『맑쓰—레닌주의는 어떠한 환경과 복잡성가운데서라도 능히 곤난을 극복하고 앞길을 전망하는 힘으로 되며 백전백승의 무기로 됩니다。』 또 이어서 허가이동지는 『우리당의 사업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허다한 곤난성이있으며 이곤난성을 타개하는 유일한 "라침반"으로 되는것은 맑쓰—레닌주의와 볼쉐위끼당의 사업경험이며 또 맑쓰—레닌주의만이 이를 해결하여주는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오늘의 국내정치적환경에서 당원들과 당간부들에게 맑쓰—레닌주의 교양사업을 강화하는 사업은 우리당의 가장 긴급한 과업으로 되는것입니다。』(당중앙위원회 제五차회의보고에서)라고지적하였다。

참고자료

받는 노예들의 눈초리를 이들의 빈곤의 진정한 원인으로부터 다른데로 돌리기 위하여 온갖 것을 다하고 있다。 즉 로동운동에 있어서의 모든 진보적인 것과 량심적인 것을 비방하는것、 근로자들의 「진정」한 리익을 교활하게 옹호하는체 하는것、 로동자들의 자기의 력량에대한 신념을 없새버릴 목적으로 로동계급을 사상적으로 무장해제하는 것등이 그러한 것이다。

로동계급의 반역자들은 제국주의에 대한 자기의 충실한 복무를 조금이라도 「리론적으로」 「철학적으로」 론증하는 외관(外觀)을 차리기 위하여 광분하고 있다。 부르죠아지의 이 종복들에게는 직능의 일정한 분배가 존재하고있다。 즉 「사회주의자들인」 대신들은 자기의 절실한 생활상 리익을 위하여 투쟁하는 로동자들을 무력으로 탄압하며 「사회주의자들」인 철학가와 사상가들은 우익사회주의자들의 변절적 정책을 「리론적」 고안(考案)으로 은폐하고 있는것이다。 그러나 현하의、반역에 대하여 새로운 한개의 특징으로되는것은 지적할 필요가 있다。 즉 그것은 수정주의와 개량주의의 이전 승냥이들이 대중들을 기만하기 위하여 자기들을 어느정도 「맑쓰주의자」로 가장하려고 기도하였다면 오늘날의 개량주의 대변자들은 맑쓰주의 학설이 「로폐(老廢)」하여졌다고 로골적으로 거듭 떠들어대고 있다는것이다。

우익사회주의자를 리론에 있어서나 그의 실제활동에 있어서나 보통의 부르죠아정치가와 사상가로부터 구별하기는 곤난하다。 이 자들은 동일한 주인에게 복무하고 있다。 단지 그 차이점은 우익사회주의자들이 자기의 부르죠아적 본성을 「사회주의자」란 가면으로 엄폐하여 가지고 더 교묘한 방법으로 대중들을 기만하고 있다는 그것이다。 혁명적 맑쓰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에 있어서의 이들의 교활한 정책은 오늘날 이들이 자기의 분노(憤怒)를 레닌주의를 반대하는데로 돌리고 있다는데서 특히 나타나고있는 것이다。 왜냐 하면 현하의 력사적 시기에 있어 맑쓰주의의 온갖 혁명적 본질이 레닌주의에 구현(具現)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레닌주의가 맑쓰와 엥겔쓰의 위대한 학설을 프로레타리아트의 계급투쟁의 새조건에、제국주의와 프로레타리아혁명의 시대에、사회주의건설의 시대에 창조적으로 적용하고 맑쓰주의를 계승 발전시킨 때문이다。

대중을 리론적으로 타락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각별히 광분하고있는 것은 독일우익사회주의자들인 슈마헬도배들이다。 영미점령당국의 비호하에서 그들이 발행하는 잡지 「사회주의 세기」에는 매호 마다 「철학적」 「리론적」 론문들이 게재된다。 이 론문들은 현

현대 사회—반역자들의 철학

므·로젠탈리

제二차 세계전쟁후 최고조에 달한 민주주의와 사회주의의 진보적 력량을 일방으로하고 제국주의진영의 반동세력을 타방으로한 두사이의 투쟁에 있어서 특히 비겁한 역활을 놀고 있는 것은 우익사회주의자 즉 낡은 수정주의와 개량주의의 훌륭한 계승자들인 베른슈타인도배、카우츠끼도배、막도날드도배등등이다。 전쟁의 제 결과는 사회당들의 내부에 엄중한 변화를 일으키지 않을수 없었다。 이 당들내에 있던 모든 량심적인 사람들은 진보적 력량의 진영에 가담하여 로동계급의 통일을 위하여 투쟁하는 진영에 들어섰다。 새 민주주의나라들에서는 로동자당들이 맑쓰—레닌주의의 학설을 그 토대로 하고 제국주의를 반대하며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의 기치하에서 진출하는 통일적 혁명적 당들로 통일함에 있어서 사회주의사업에 유리한 과정을 밟고있다。

세계로동운동이 큰 성과를 달성하면 할쑤록 혁명적 프로레타리아트와 그의 사업에 대하여 더욱 큰 증오심을 표시하는자들은 「사회주의자」인 브룸도배、슈마헬도배、뻬빈도배、렌네르도베 및 그들의 졸도들이다。 이자들은 제二차세계전쟁과 전후발전의 전체교훈이 이들의 반역적 정책을 광범한 인민대중들의 목전에서 폭로하고 있다는 것과、로동계급 근로자들이 가일층 결정적으로 예속과 압박의 부르죠아재도를 반대하여 나서고 있다는 것을 보지 않을수 없는 것이다。 우익사회주의자들은 「사회주의적」개량적 정당들이 최근에 특히 사회주의건설의 도상에 들어선 인민민주주의나라들에서 자기들을 지지하던 대중을 상실함으로써 어떠한 손실을 당하였는가를 알고 있다。 또 이자들은 부르죠아지에 대한 그들의 충실한 복무가 자본주의를 멸망으로부터 구해내지못할것을 알고 있다。 그리하여 이자들은 발악한 나머지 발광까지 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것이 이 사회주의의 원쑤들의 행동의 론리인 것이다。 즉 프로레타리아트가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에서 전진하는 그 매걸음은 자본주의를 옹호하며 그에 복무하는 이자들에게 이자들이 보호하는 자본주의적 착취제도의 완전무결에 대한 공포심을 일으켜주고 있는 것이다。 이자들은 자본에게 압박

재의 우익사회주의자들에 있어서 무엇이「리론」인가를 여실히 보여 주고 있다。로동운동에 대한 지도를 요구하나 사실에 있어서는 근로대중들을 기만하며 그들의 의식을 마비시키기 위한 부르죠아지의 이데올로기 기관이외의 다른 아무것도 아닌 자칭「사회주의자」란 인간들이 어떠한 몰락에까지 어떠한 추악한 아첨추종에까지 이르렀는가를 똑똑히 보여 주고 있다。

이에 있어 독일우익사회주의자들의 리론적 및 철학적 탐구는 현하 국제적 전체 개량주의의「리론」으로부터 고립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노예적 비굴성을 가지고 슈마헬도배들은 레이버당의「민주주의적 사회주의」가 완전히 그들 자신의 견해임을 표시한다。이들은 대반역자 브룸의「인도주의(人道主義)적 사회주의」를 자기의 리론적 학식의 첫 원천의 하나로 인용한다。이들은「애국적 구라파사회주의」를 제창한 이태리반역자 사라가트의 그루빠에 관해서 만족을 가지고 말한다。이와 같이 이들의『사회주의적』리론은 국제 개량주의의 모든「성과」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때문에 현하의 변절 일반의 철학의 표본으로될수 있는 것이다。이러한 관점에서 그들의 리론련습(理論練習)을 간단히 고찰함은 흥미 있는 일이라 할수있다。

리성(理性)과 과학을 반대하는 전쟁、우익사회주의자들의「인서적마술(魔術)」

개량주의는 어느때든지 현대류행의 부르죠아―철학사조들을 닥치는대로 리용하는 특색을 가지고 있다。베른슈타인도배、카우츠키도배、아드러 및 그 동류들은 맑스주의가 마치 자유롭게 칸트철학 마하주의등등과 결합되여있다고 루차 주장하고 나섰던것이다。레닌은 제二인터나쇼날 수령들의 반동적 부르죠아 사상에대한 이 노예적 추종을 지적한바있다。「맑스주의와 수정주의」란 유명한 론문에서 레닌은 다음과 같이 썼다。

「철학분야에 있어서 수정주의는 부르죠아 교수들의「과학」의 꼬리를 따라다니고 있었다。교수들이「칸트에로 후퇴」하였을 때에 수정주의는 신칸트파에 매달렸고 교수들이 철학적 유물론을 반대하여 천번이나 말한 승려(僧侶)적 관념을 되풀이하였을 때에 수정주의자들은 겸손하게 미소를 띠우면서 유물론은、오래전에「론박되였다」고、우물쭈물하였다。교수들이 헤겔을「죽은 개처럼」랭대(冷待)하고 자신들이 헤겔의 관념론보다 천배나 세소하고 저급한 관념론을 설교하면서 변증법을 멸시하였을때에 수정주의자들은 교수들의 뒤를 따라 과학을 철학적으로 속

악(俗惡)화하는 길에 들어서서「교활한」(또 혁명적인) 변증법을「평범한」(또 안심할수있는)「진화론」으로 바꾸어 버렸다。교수들이 중세기에 지배하였던 철학(즉 신학)에 자기들의 관념론적 및「비관적」체계를 맞추면서 관록(官祿)을 버렸을때 수정주의자들은 종교를 현대국가에 대해서가 아니라 선진계급의 당에 대해서「사적(私的)인 열」로 만들려고 시도하면서 그들에게 접근하였다」(레닌전집 제四판 十五권 一九페지)

레닌의 이 말은 오늘에도 생생하다。이 말은 四十년전에 이 말이 씌어졌던 때처럼 똑똑히 또는 절실하게 들리고 있다。이말은 우익사회주의자들의 현계단의 반역적 활동에 완전히 적용된다。

현대 수정주의자들의『철학』리론들은 오늘날 부르죠아사회에서、지배하고 있는 객관적―관념론적 소체계(小体系)들과 구별되는 점이없다。아는바와 같이 현대 부르죠아철학의 주요 방향은 비리성론(非理性論)직관론(直觀論)즉 인간의 의식과는 독립하여 존재하는 객관적인 세계와 또는 과학의 힘으로써 그것을 인식할 가능성을 부정하며 리성대신에 신념、직관등을 내세우는 리론들인 것이다。

이 부르죠아 철학의 영향하에 있는 우익사회주의자들은 자기네들의 사이비(似而非)철학을 가지고 인간리성을 반대하는 전쟁을 수행하여 왔다。리성을 반대하는 우익사회주의「리론가」들의 이 진군(進軍)에서는 여러의 사회적기능 즉 대중들을 맹인(盲人)으로 만들며 제국주의자 자본주의나라 인민들을 끌고 갈 그 막다른 골목에서 오직 가능한 그리고 합법칙적인 력사행정에 일치하는 출구를 대중들이 발견하는 것을 방해하는 기능이 가장 잘 폭로되고 있다。

개량주의철학자들의 여러 론문들은 리성과、진앙칸에 수행되는 세기적 투쟁이 마치 리성의 완전패배로 끝났다고 하는 사상을 근로자들의 의식속에、집어넣어주고 있다。「리성론」위에 건설된 과학도 사회도 파멸되었다는것이다。이 비개화주의자(非開化主義者)들은 말하기를 리성의 패배는「내계(內界)로의 길」즉 인간정신 영원한 인간본능의 신비하고 리해하기어려운 세계로의 길을 열어 주었다고 한다。그리고「사회주의」잡지에서 계속해 나오는 소리는「인간정신의 내계의 부름을」들어라、슈마헬도배의 철학가들이 적의(敵意)없이는 말할수없는 여하한 그「경제관계」와도 관계없는「절대적 가치물」에 돌아가라는 등의 호소인 것이다。

이 관점에서 특징적인것은 一九四八년「사회주의세기」지(誌)九월호에 게재된 피를레호만자의 론문이다。이 론문의 제목은「정신적공허(空虛)」라는것이다。현하의 력사적 발전계단을 특징지으면

제국주의의『인도주의적 사명』에 종속하여야된다는 것을 의미 한다。또한 개별적 계급들의 리해도『트란스첸덴트』하여야 한다고 틸리흐는 쓰고 있다。로동계급은 자기의 독자적 리해와 목적을 주장할 권리가 없으며 또 로동계급은 이것을 일반적『정신적 상징』에 즉 로동자와 자본가、피압박자와 압박자의 감동적인 일치에서 통일되는『정신적 상징』에 종속시켜야 된다는것이다。

「제계급을 트란스첸덴트하라! 그러면 당신은 어떠한 계급이∴정신적 중심부를 조성할수 있는 계급이라는것을 믿지않게 될것이다」。(「사회주의세기」지 一九四八년 二〇호三〇四페지)

이와같이 우익사회주의자들의「원시적 마술」의 명확한 계급적 의미는 폭로되고 있다。

이 온갖 리해하기 곤난한「철학적」잠고대를 정상적인 인간의 말로 번역한다면 이것은 제인민이 자기의 민족적인 리해와 자기의 독립을 주장할수 없고 강도 미제국주의의 의사(意思) 앞에 무릎을 꿇어야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제계급을 트란스첸덴트하라」는 이 일부러 알수 없게 애매하게 만든 말의 리면에는 로동계급이 자기의 계급적 목적을 거부하고 부르죠아지의 단순한 부속물 즉 그의 영원한 노예로 되어야 한다는 사상이 숨어 있는 것이다。

과학과 리성을 반대하며—신앙과 신비를 위하는 기타의 다수 론문들도 이와 똑같은 정신에서 진술되고 있다。『기독교적 협조』라고 제목한 론문에서(一九四八년제一五—一六호) 에도와드·헤이만 이란자는 과학과 신앙、리성과 종교간의『분렬』의 해독을 증명하기에 힘이 지치고 말았다。만약 리성이 한계(限界)를 가지고 있다는것을 특히 고려한다면 실제에 있어 어느 것도 서로 배제하지 않는다고 그는 말한다。이 론문의 출발점은『사람들은 똑 같지 않다』는 명제(命題)인 것이다。만약 사람들이 똑같다고 한다면 국가적 경제적 군사적 권력의 존재에 대한 요구는 없었을 것이다라고 저자는 생각하고 있다。그러나 마치 사람들의 불평등은 출생할 때부터 존재한다는것은 물론 헤이만이 확언하는 바와같이 리성에 기초한 사회조직체는 강자(强者)와 약자(弱者)、자본가와 로동자、종족(種族)과 민족간의 투쟁을 야기시킨다。왜냐하면 강자는 약자와의 평등을 원치않으며 강자의 리성은 약자와의 평등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지않기 때문이다라고 한다。

이러한 것이 리성의 한계이다。동시에 이상과같은 것이 현대 사회가 도달할수 있으며 또 도달한 한계인 것이다。그러면 출구(出口)는 어디있는가? 이 론문의 저자는 사람은 원래(元來)부터 똑같지 않으나 신(神)의 창조물로써는 똑같다고 대

서 이 저자가 도달하는 결론은 현하 사회상태의 전체혼란(混亂)이 (물론 개량주의의 정신적목사(牧師)들은 자본주의의 이 사회적 혼란속에서 합법칙적인 운동 즉 공산주의에로 부단히 이끌고 가는 운동을 보려고 하지않는다)「정신적 중심부」즉 인간이 그곳에서「자체를 발견할수 있는」「상징」의 부족에서 발생한다는 것이다。「그속에서 무의식적 집단과 개별적 매개인이 다시금 자체를 발견할수 있으며 또 그것이 이들에게 대하여 외부적인 표준적인 강제적인 어떤것을 또 그들이 그곳에서 직접 살수 있으며 그들이 그것에 대하여「그렇다」하고 말할수 있는 그러한 어떤 것을 의미하지 않을수있는 그러한 상징계(象徵界)가 부족하다」고 그는 쓰고 있다。(동서三〇四페지)

여기에 있어 이 론문의 저자는 원시(原始)인들을 인용하고 있으며 저자가 쓰고 있는 것과같이 이 사람들의 생활은『인간이 그에대하여「정신적 중심부」로 되어있는「상징계」를 알게되었다는 그것에 기초를 두고있었다』는 것이다。

이와같이 원시적 마술에의 복귀(復歸)—이것이 우익사회주의자들의 기관지의 최신의 발견인것이다! 이 론문의 저자는 더 나아가 확인하기를 경험한것의 결과에『정신적 공허』가 사람들속에 형성되었다고 한다。즉『우리는 우리가 공허(空虛)한 사람으로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여야된다」는 것이다。그리고 이곳이 좋다고 그는 성명한다。이 공허로부터는「존재의 비밀을 표시할수 있는」새로운「상징」이 나타나지 않으면 안될것이다。이러한 때에 새로운 정신적 중심부가 창설될 것이며 또 지상(地上)에는 평화와 온갖 행복이 올것이 라고 한다。

슈마헬도배들이「사회주의적관」인 잡지의 전체지에 충만되어 있는 이 중려적 잠고대를 구역질 없이는 읽을수없다。그러나 저자는「상징계」의 추상적 고처(高處)에 그냥 있지않고 또는 원시미개인들의「정신적 완전(完全)」의 실례에 따르라는 호소에만 그처지 않고 있다。그가 지상에 내려옴으로써의 철학적 주장은 부르죠아지의 대변인 즉 제국주의의 결코 상징적이 아닌 리익의 복무자의 면모(面貌)를 완전히 밝혀주고있는 것이다。

문제는 저자가 상기한 것에「상징」이 단독적 부분적 성격을 가져서는 안된다는 것을 첨부한데 있다。상징들은 저자의 술어에 의하면「트란스첸덴트(초월)」하여야 한다。즉 특수한 리해를 초월하여야된다는것이다。제민족의 리해는「트란스첸덴트」하여야한다。즉 일반적 리해에 의하여 흡수(吸收)되어야한다고 틸리흐는 지적하고 있다。이것은 즉 구라파인민들의 민족적 자주권이「마샬안」에 즉 미

답한다。 출구는 신(神)적 출신에 있어서 똑같은 사람들의 『정신적 융합(融合)』에 있는 것이다。

쏘베트독자들에게는 승려들의 여사한 설교들이 『사회주의적』이란 명칭을 가진 잡지에 게재 될수 있다는 것을 믿기 곤난하다。 사회적 불평등은 원래부터의 불평등이며 또 착취계급들의 정치적 권력은 이 『원래부터의』 불평등에 의하여 존재하는 것이고 자본주의 나라들에서의 부르죠아지의 경제적 지배에 의하여 존재하는 것은 아니며 또 대중들에게 대한 자본주의적 압박과 탄압에 대한 죄는 『리성』에 있다고 주장할수 있는 것은 광신적(狂信的) 비개화주의자들 이외에 다른 누가 있단 말인가! 자기를 『사회주의자』라고 인정하면서 이러한 『철학』을 로동자들에게 설교하기 위하여 그렇게까지 추락(墜落)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러나 그러한 자에게 그러한 철학이 있는법이라고 태고(太古)부터의 진리는 말한다。 슈마헬도배들과 같은 제국주의의 종복들은 물론 기타별종의 우익사회주의 반역도당들인 래이버리스트、브룸、렌네르도당들에게 필요한 것은 과학으로서의 철학이 아니라、즉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대중들의 혁명적 에네르기를 압살하며 대중들의 손발을 얽어매고 대중들을 제국주의자들에게 예속시켜 두기에 편리한 이데올로기적 수단인 것이다。 『철학』도 이 목적에 적합하게 불라진 것이다。 신앙철학은 항상 부르죠아지의 무기일뿐만 아니라 개량주의의 무기였던 것이다。 현대 변절자들의 선조들은 간혹 숭 스럽지 유물론적 문구들로 자기의 정체를 엄폐하였다。 그러나 이들의 오늘날의 후손들은 이렇게 하는 것을 필요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들은 로골적으로 철학적 유물론을 반대하고 나서며 유물론을 반대하여 부르죠아적 관념론철학의 총진군을 개시한 선봉대의 하나를 이루고 있다。

슈마헬도당들의 『리론적 기관지』는 유물론을 반대하는 방향을 가졌으며 또 『유물론극복』、유물론과 관념론의 『화목』、진정한 철학으로서의 부르죠아실증론등등에 관하여 알리는 제목들로 가득차 있다。 깐트、베르그손、프레이드、현대의 에크지스텐시아리스트 인격론자 및 기타의 과학청산 옹호자들은 바로 슈마헬도배들이 존경하는 철학적 우상(偶像)들이다。

슈마헬의 잡지 一九四七년도 제一五—一六호에서 이 잡지의 가장 적극적인 협력자의 한사람이며 맑쓰주의에 대한 명백한 증오자인 콜라우스・슐로츠는 『유물론극복(克服)』이란 론문을 가지고 나섰다。 맑쓰주의적 유물론을 반대하는데 있어서 맑쓰주의에 대한 어제의 반대자들이 사용하지 않았던 론증은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고서 그는 부르죠아철학

가들이 애용하는 론증 즉 사람들의 물질적 생활조건과 인간의 자유의 대립이라는 론증을 사용하고 있다。 하나는 다른 것을 배제한다고 그는 말한다。 혹은 경제적 제관계에 의한 인간활동의 제약이나 혹은 『인간의 자유』이나, 하는것이 그의 론문의 기본적 명제이다。 가장 속악 저급한 관념론은 『새로운 사회주의』 즉 『민주주의적 사회주의』의 리론적 기초이다。 슐츠가 이 사회주의의 기초라고 하는 철학적 『원칙』에 의하여 이 사회주의의 본질을 판단할수 있다。 이 원칙은 『자유』 『진리』 및 『법』이라고 슐츠는 쓰고 있다。 그리고 이개념의 사실상의 성격에 관하여 독자에게 하등의 의심을 남기지 않기 위하여 슐츠는 설명하기를 이것은 모이세이 나 시나에 및 말틴・루테르도 주장한 그 영원불변의 『절대적 가치들』이라고 한다。

이와같이 우익사회주의자들은 프로레타리아 사회주의 리론에 『진리』 및 『자유』에 관한 허위적 잡담을 대립시키며 이 『진리』와 『자유』는 인류에게 구원을 가져와야 된다는것이다。

레닌과 쓰딸린이 가르치는 바와 같이 맑쓰주의적 철학적 유물론은 자본주의가 근로자들을 얽어매고있는 정신적 노예상태로 부터의 출구를 프로레타리아트에게 지시하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주의의 반역자들은 이것을 싫이 한다。 그리고 이 점에 있어서 철학적 관념론은 이들의 동우이되고 있다。 관념론은 대중들을 정신적으로 노예로 만드는데 있어 이미 경험 있는 무기이며 또 우익사회주의자들은 이 무기를 광범히 사용하고 있다。 바로 이러한 리유로써 로동계급의 반역자들은 그렇게도 빈번하게 『정신』『상징』 또 이와 류사한 관념론적 잠고대를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다。

쓰딸린동지는 자기의 로작 『변증법적 유물론과 사적유물론』에서 맑쓰주의적 철학적 유물론을 사회생활에 적용하는 것이 프로레타리아적인 공산당의 정책에 대하여 진정으로 어떠한 의의를 가지고 있는가를 가장 명백히 보여 주었다。 유물론을 사회생활에 대한 인식에 적용하는것은 『보편적 도덕』이란 추상적이며 허구적인 진리에서 출발하지 않고 물질적인 사회생활의 구체적 조건에서、근로대중들의 리해에서 출발함으로써 엄격히 과학적인 원칙위에서 당의 정책을 세울수있는 가능성을 준다고 쓰딸린동지는 가르쳐 주었다。 프로레타리아트의 투쟁에 대하여 또는 그의 혁명적당의 정책에 대하여 맑쓰주의 세계관이 가지는 가장 위대한 의의가 이 점에 있는것이다。

바로 이때문에 우익사회주의자들은 변증법적유물론을 손상시키며、이것으로부터 로동계급의 정책을 리탈시키며、정책에 있어서 과학적 세계관으로 지도될수 없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힘을 아끼지 않고 있

는 것이다. 결국 이것으로써 과학적 리성을 발때하며 「신앙」「본능」「내계(內界)」등등을 옹호하는 이자들의 온갖 전쟁은 설명된다.

「리성의 한계」와 「정치의 한계」

정치의 과학적 원칙에 대한 부정

잡지 「사회주의세기」 一九四七년제二三―二四호에는 우익사회주의자들이 어데로부터 자기활동에 대한 기준(基準)을 얻어내야 될것인가 즉 경제적 관계로부터 얻어낼것인가 혹은 「내적 도덕적 법칙」에서부터 얻어낼것인가 하는 문제를 취급한 「토론」에대한 개관(概觀)이 실려있다. 토론행정에서 모든참가자들은 「사회주의적 정책의 기본토대가 물질적 리해가 아니라 또 계급의 도덕이 아니라 무상명법(無上命法)에 대한 의식(意識)이다」라는점에 귀착되었던것이다. (三七二페지)

무상명법 이란것은 일찌기 제二인터나쇼날의 개량주의적 반역자들을 무장시킨 낡은 칸트철학의 찌끄러기인 것이다. 정책은 어떠한 세계관과도 련결되어있지아니하며 또 원칙적으로 련결될수도 없다는 것과 혹은 슈마헬도당들중의 한자가 성명한바와 같이 「사회주의 운동은 정신적으로 온갖 세계관으로부터 해방되어있다」는 것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수十페지를 사용하면서 우익사회주의자들은 거기에다 철면피(鐵面皮)한 기만의 장구한 관습에 의하여 조금도 사양함이 없이 소잡한 기술(奇術)을 롱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온갖 세계관으로부터의 자기의 완전한 「독립」을 성명하고서 그들은 거기에다 칸트적 관념론 즉 부르조아적 관념론적 세계관을 자기의 종복적 정책의 철학적 기초로 선포하며 대중들의 계급적 자기의식(自己意識)을 마비시키는데 그것을 리용하고 있다.

슈마헬과 「철학가」들에게 세계관과 정책에 관한 문제의 주위에서 일어나는 온갖 소동이 필요한 것은 오직 한가지의 목적을 위한것이다. 즉 자본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에 있어서의 진정으로 프로레타리아적인 혁명적 정책을 론증하는 유일한 과학적 세계관인 변증법적 유물론을 반박하기 위한 것이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들은 이마에 땀을 흘리면서 자기들의 더럽고도 비방적인 잡지의 전면(全面)을 추악한 허언(虛言)으로 메우기에 애쓰고 있다. 그들의 「로작(勞作)」들에서 무엇이 우세(優勢)를 차지하고 있는가 즉 맑쓰주의에 대한 완전한 무지인가 혹은 의식적인 위조인가하는 것을 말하기는 곤난하다.

이점에 대한 한가지 실례가 있다. 아는바와 같이 「과학의 과학」으로서의 또는 전부를 망라하는 체계로서의 철학이 발달한 과학지식의 조건하에서

존재할수 없다는 것을 엥겔쓰는 루차 지적하였다. 여기에 있어 엥겔쓰자신은 「과학의 과학」으로서의 철학을 부정하는 것이 기타 과학에 대하여 또는 프로레타리아적 사회주의를 론증하는데 대하여 거대한 의의를 가지고 있는 세계관으로서의 철학을 부정함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슈마헬도당뜰의 무식쟁이들과 광대들은 맑쓰주의가 마치 세계관 일반의 가능성을 부정한다는 정신에서 이 엥겔쓰의 규정을 「해설」한다. 그들은 「맑쓰주의의 이데올로기화」란 문구를 꾸며놓았다. 이러한것은 맑쓰주의를 총체적인 유익한 과학적 세계관으로 리해하는 사람들을 비판하는 것을 의미할수 밖에 없는것이다.

슈마헬도배들은 페이버당출신의 그들의 형제들과 기타 우익사회주의자들과 같이 자기를 오직 「행동」「행위」만을 인정하며 더러운 「이데올로기」를 거부하는 부르죠아 실증론(實證論)의 지지자라고 선포한다. 맑쓰주의와 실증론은 하늘과 땅처럼 서로 거리가 멀다는 것을 솔직히 또는 관심적으로 말하기를 두려워 하면서 그들은 맑쓰자신을 실증론자로 만들기에 날뛰고 있다. 브릴이란자는 그와 같은 수작을 하면서 성명하기를 맑쓰에게는 여하한 철학도 없었으며 또 이때문에 맑쓰의 저작들에 대한 「철학적주해(註解)」만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전반적 개념(변증법적유물론에 의하여 규정되는 전반적 법칙을 념두에 두고서 말하는 것이다. ─필자)을 력사에 적용할 목적으로 이 개념을 운운하는 자는 맑쓰주의를 이데올로기적으로 리해함으로써 혼란에 빠지고 있는 것이다」라고 빌훈이란자는 쓰고 있다. (「사회주의세기」지 一九四八년 제十九호)

현대 개량주의자들은 맑쓰의 변증법을 벌써 一九세기말엽에 그것을 반대하고 나선 그들의 선조들처럼 발광적으로 증오한다. 그들은 독자적인 유물론적 변증법이 존재하지 않으며 또 맑쓰는 단지 변증법에 「추파를 보냈다」고 누구를 설복시키려 한다. 「나는 사회―경제리론으로서의 맑쓰주의가 변증법과의 자기의 희롱(戱弄)을 버릴때만이 승리하리라는 것을 확신한다」고 슈마헬도배의 어떤자는 말한다.

이 위조자들은 맑쓰자신이 자기의 사회―경제리론에 대한 기본적 저작인 「자본론」제一권 결문(結文)에서와 또 자기의 다수의 기타 저서에서 자기의 연구방법으로서의 유물론적 변증법에 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하등 언급하지 않는다. 슈마헬도배들은 맑쓰주의와 혁명적 변증법이 불가분리한 것이며 변증법이 맑쓰주의의 정신이라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

어떠한 의식적 로동자든지 개량적 위조자들을 현장(現場)에서 잡을수 있으며 또 맑쓰자신의 말

로써 변증법에 대한 부르조아 옹호자들의 증오의 지정한 원인을 알아낼수 있다. 맑쓰는 쓰기를 『…변증법은 부르조아지와 그의 공론가(空論家)―대변가들에게 오직 증오와 공포만을 일으킨다. 왜냐 하면 변증법은 현존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리해하는 동시에 그것에 대한 부정을 그것의 필연적인 멸망을 리해한다. 변증법은 실현된 매개의 형태를 운동속에서, 따라서 또한 그의 순간적 측면에서 본다. 변증법은 어느 것에든지 굴복하지 않으며 또 자기자체의 본성에 의하여 비판적이며 혁명적이다』라고하였다. (『자본론』제一권二○페지 一九三七년판)

이러한·리유에 의하여 우익사회주의자들은 또한 혁명적 변증법에 대하여 악의를 품고있는것이다. 슈마헬 도베의 철학가들이 변증법적 유물론을 론박하는데 쓸데 없는 노력을 하게된 것은 론쟁에 대한 사랑에서가 아니다. 맑쓰주의적 변증법이 사회력사 프로레타리아트의 당의 정책에 정용되면서 가르치는것은 사회를 발전시키며 발전의 결정적 력량으로 되는 것이 자본주의의 큰 모순에 대한 개량주의적 완화와 엄폐가 아니고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프로레타리아트와 전체 피압박 대중들의 혁명적인 대담한 투쟁이라는 것이다. 맑쓰주의적 변증법이 가르치는 것은 근로대중들의 불행 빈곤 령락을 때재할수 있는 것이 현존자본주의 제도에 주는 사소한 점차적 개선인 것이 아니라 착취제도를 근절하며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방법으로서 착취제도를 근본적으로 격적으로 변경하는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우익사회주의자들은 바로 그러한 투쟁을, 바로 그러한 혁명적 비약을 싫어하는 것이다. 이로부터 변증법을 반대하며 변증법적 유물론을 반대하는 그들의 가렬한 투쟁의 혼갖 불결이 솟아나오는 것이다.

우익사회주의자 진영출신의 가짜 철학가들은 사회발전의 객관적인 합법칙성에 대한 지식에 기초하였으며 또 과학적으로 론증된 정책이 불가능하다는것을 증명하기 위하여는 아무것도 가리지 않는다. 그들와 견해에 의하여 혁명적 맑쓰주의의 명확하고 확고한 원칙들을 폐기하게 할수있는 모든 것은 무엇이든지 그들의 목적에 대해서는 소용되는 것이다. 례하면 맑쓰주의는 사회현상의 인과적 제약성(因果的制約性)에관한 명확하고 과학적인 관념에서부터 출발하여 자기의 정책을 수립한다. 인과적 합법칙적 련결을 확정함이 없이는 사회과학은 물론 과학일반도 없으며 또한 있을수 없는 것이다. 맑쓰주의적 사회과학을 반박하기 위해서는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인과성 합법칙성을 반박할 필요가 있으며 또 과학일반을 없새버릴 필요가 있었다. 인과성과 합법칙성이 자연과 사회에는 존재하지 않으며 또 이것들은 공산주의자들의 유해(有害)한 고안(考案)이라는 것에 대한 『증명』을 어데서 또는 어데로부터 가져올수있는가? 이『증명』을 우익사회주의자들은 이데올로기 상품의 고정적 상인들에서 즉 부르조아반동철학에서 취하고 있는 것이다. 맑쓰주의를『반박』하기 위하여 그들은 자기네들의 물리학리론에서 신학(神學)적 반(半) 신비적 결론을 짓는 부르조아학자들의 관념론적 유희(遊戲)를 특히 리용한다.

다 아는바와 같이 부르조아철학가들은 미생물계에 대한 물리학적 연구가 마치 관념론의 『정당성』을 확증하며 또 전자(電子)는 그 운동에 있어서 어떠한 인과성에도 복종하지 않으며 또 전자는『자유』이며 따라서 인과성은 없으며 인과성에 대한 개념은 낡아지고 말았다고 단언한다. 우익사회주의 철학가들은 앵무새와 같이 부르조아철학가들의 이 반동적 잠고대를 되풀이하고 있다. 부르조아철학으로 혼란된 물리학적 관념론자들이 인과성을 부정하는 것을 가지고 우익사회주의자들은『현대과학』의 『성과』라고 가장하며 또한 따라서 인과성 또는 합법칙성의 원칙은 사회생활에 대해서도 정책에 대해서도 적용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린다. 낡은『고전적 맑쓰주의』는 이 원칙에 의거하였기 때문에…하고 그들은 ,말을 계속하나 이 후에 나오는 말을 독자에게 설명할 아무 것도 없다. 왜나 하면 현대 물리학에 대한 온갖『학술적』공소(控訴)는 위에서 이미 루차 말한바와 같이 혁명적 맑쓰주의를 『근절』할목적과 동일한 목적을 위해서 오늘날의 변절자들에게 필요하기 때문인 것이다.

一九四八년 제十三―十四호의『사회주의세기』지에 게재된『정치의 한계』란 제목을 가진 론문에서 후스타브 피트슈란자는 현대 소량력학(素量力學)에 특별한 학설을 보충하려고 계획하였는데 그것은 오직 다음과 같은 결론을 하기 위해서 만이었다. 즉 그의 말에 의하면 현대 소량물리학의 원칙들이 성공적으로 사회생활에도 적용되는 날에는「오늘날까지 존재하던 견해들 특히 고전적 맑쓰주의(저자는 혁명적 맑쓰주의를 념두에 두고 말하는것이다―필자)멸망은 불가피적이다. 현대물리학에서 고전물리학이 당하던 것과 똑 같은 것이 발생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변절하는 철학가들과 철학하는 변절자들이 시도하는 주요한 것은 이상과 같은 것이다.

『정치의 한계』란 제목을 가진 론문은 주목할만한점이 있다. 저자는 부르조아물리학의 위기를 리용하면서 물질계에 대한『인식의 한계』즉 현대과학이 마치 확정하였으며 또 저자의 견해에 대하여 자연

잡지 一九四八년 제十九호에는 슈테이엘만이란 자의 로문이 게재되었는바 그는 사회주의를 위한 백년간의 실제투쟁이 소용 없게 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기도하고 있다。사회주의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는 마치 어그러지고 말았다는 것이다。그 기대로부터는 한가지 파편(破片)만이 남았다는 것이다。슈테이엘만의 견해에 의한다면 이것은 「낡은것」의 즉 맑쓰주의적인것의 사회주의의 파산을 의미하는 것이다。「새로운」사회주의가 필요하다고 저자는 결론으로서 말한다。이상과 같은 것이 사회주의에 관한 우익사회주의자들의 모든 서술의 주되는 취지(趣旨)인 것이다。「새로운」사회주의에 관한 문구뒤에 무엇이 숨어 있는가를 우리는 시방 알게될것이다。

로동계급의 현대 변절자들은 그들의 선조보다 편곤난한•지경에 있다。베른슈타인배、힐훼르딩그배、아드러배 및 기타들은 사회주의를 머나먼 명확치 않은 미래로 끌고 가면서 사회주의에 관하여 운운할수가 있었다。그들 시대의 로동계급은 단지 사회주의를 위하여 투쟁하였을 뿐이다。사회주의는 그 당시 실생활에서는 아직 확증되지 않았다。그러나 오늘날은 강력한 쏘베트사회주의공화국동맹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이 동맹은 승리하였으며 또 실제로 평화적인 건설시기에 있어서나 전쟁시기에 있어서나 사회주의의 불패의 위력을 지위하였다。사회주의 이것은 이미 공상이 아니고 현실인 것이다。일련의 구라파인민들은 사회주의적 발전의 길에 들어섰다。여기로부터 우익들의 「사회주의적」리론에서의 새로운 동기 즉 사회주의국가를 반대하는 가증한 투쟁이 발생하는 것이다。우익사회주의자들의 「새사회주의」전체는 쏘련을 반대하는 이 가증한 투쟁에 귀착되는 것이다。

슈마헬도배는 물론 브룸 멘네로 및 현대 반역도당들의 기타 수명들의 추종자들은 로동자 농민들이 처음으로 사회주의국가를 건설한 쏘베트동맹에 관하여 안심하고 말할수는 없는 것이다。전세계 근로자들에게 등대와 희망으로 되어있는 쏘베트국가의 존재는 우익사회주의자는 물론 그들의 주인들로 하여금 편안히•살수없게한다。쏘베트인민에 대한 또한 쏘베트 사회주의제도에대한 비방、누구 앞에서든지 멈추지 않는 비방은 그들의 「사회주의 리론」의、기본내용과 주되는 의미로 되어있다。그들은 다른나라들이 사회주의로 이행함에 대해서 쏘베트국가의 경험이 어떠한 의의를 가지고 있는가를 잘 알고 있는 것이다。그들은 쏘베트동맹의 존재와 또는 레닌—쓰딸린에 의하여 창조적으로 발전된 맑쓰—엥겔쓰의 과학적 사회주의 리론에 기초한 쏘련에서의 사회주의건설의 온갖 실천이 그들의 모

은 종교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가능성을 주는 「안식의 한계」가 과학의 리용에 대하여 또는 정치부문에 대하여 한계를 주고 있다는것을 증명할 과업을 자기앞에 제기하였다。

그는 말하기를 정치는 우선 행동 행위이며 또 정치는 「인과성의 법칙에따라 정확히 규정될수 없는」일정치 않은 다수의 수량(數量)을 취급하는 것이다。이 때문에 정치는 도덕에 의거하여야 되며「자유스러운 정신의、표현」등등으로 되어야 한다고 한다。

세계의 모든 선진적 인사들 수백만의 의식적 로동자들은 「자유스러운 정신」「도덕」운운에 관한 우익사회주의자들의 잡담뒤에 무엇이 숨어 있는가를 알고 있다。이미 맑쓰가 설명한바와 같이 인과성 합법칙성에 대한 공포는 세계관의 표현이며 또 인과성과 합법칙성에 대한 부정은 지배계급에 유리한 것이다。왜냐하면 사물의 련결 사물의 인과적 제약성이 명백히 되자 「현존질서의 몰락의 필연성에 대한 온갖 리론적 신념은 파괴되며 또 현존질서가 실제로 붕괴되는 정도로 그리론적 신념은 파괴된다」。(맑쓰—엥겔쓰서한선집 一九四七년판二○九폐지)

대중들이 정치를 평가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하여 우익사회주의자들은 또한 그러한 「무의미한 허연」을 지지하려고 애쓰는 것이다。그들이 이것에 성공할이 적으면 적을수록 또는 자본주의 존재가 모든 사회적 불행의 유일한 원인이라는 것을 대중들이 더욱 명백히 인식하면 인식할수록 변절자들은 더욱 광분하는 것이다。현실은 무엇보다도 강한 것이다。공산주의에로의 대중들의 운동은 부르죠아지와 그의 「사회주의적」종복들을 소탕하고 있으며 력사의 합법칙적인 진행을 제지하려는 그들의 노력을 분쇄하고 있다。

독일 우익사회주의자들의 「새사회주의」란 무엇인가?

리성과 과학을 반대하며 합법칙성과 인과성을 반대하여 우익사회주의자들이 수행하는전쟁 또는 신앙적관(直觀) 사물의 본체로서의 「심적(心的)」인것」등에 대한 주장은 말하자면 그들의 「사회주의적」리론이 기초하고 있는 「철학적 토대」로 되고 있는 것이다。변증법적 유물론과 사적유물론을 반대하는 우익사회주의자들의 가렬한 투쟁은 과학적 사회주의를 반대하는 그들의 가렬한 투쟁의 일 구성부분인 것이다。

독일의 반동적 사회주의자들은 기타 나라들에서의 그들의 동류와 마찬가지로 맑쓰와 엥겔쓰의 과학적 사회주의 리론을 로골적으로 부정한다。슈마헬도배들의

쓰고 있다。「세계에 대한 사회주의적 개조는 사회주의가 오늘까지 알고있었던 것처럼 한계급의 사업은 이미 아니다。」(二八八페지)

틸리흐는 일반적으로「로동자」「프로레타리아」란 개념을 부정하며 이 개념을 추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우익사회주의자들은 맑쓰가 부르죠아지와 프로레타리아트의 두계급으로 사회를 나눈 것이 오늘날 비현실적이다 라는 견해를 근로대중들에게 강청하려고 시도하고 있다。그들이 이러한 리론적 날조를 유리하게하는 한개의 론증도, 가져오지못하는 것은 물론이다。그렇다면 어떠한 론증을 그들은 가져올수 있을까? 오늘날의 독점의 주인들과 모든 자본가들의 부(富)의 원천은 로동자들에대한 착취에 의하여 만들어지는 잉여가치(剩餘價値)가 이미 아닐수 있는가? 자본주의나라들의 로동자들은 빈민굴에서 살지 않게되었고 대자본가들의 궁전으로 이사하였다고 하는것인가?

제국주의적 자본주의는 현대부르죠아사회의 두개의 기본계급인 부르죠아지와 프로레타리아트간의 근본적 대립을 없새버리지않고 있을뿐만 아니라 반대로 혐하여 모든 정치적 투쟁이 이 점에 관하여 증명하고 있는바와 같이 이 대립을 심각 첨예화하며 독점의 압박을 강화하여 자본주의나라들의 피압박계급과 식민지인민들의 투쟁을 야기시키고 있는 것이다。미국 이태리 불란서 독일 및 기타 나라들에서의 로동자들의 파업, 선거에 있어서 부르죠아 정당들을 반대하는 프로레타리아트의 정치투쟁, 식민지 및 반식민지나라들에서의 강력한 민족해방운동 등 이 모든것은 우익사회주의의 자들의 허위적 고안(考案)들을 완전히 분쇄한다。

자본주의사회의 계급적 분렬을 부정하며 불상용적인 계급적 대립을 엄폐하는 것은 부르죠아지와 프로레타리아트의 계급적 평화 계급적 협력등의 구호를 실시하기 위하여 슈마헬 도배들에게 요구되는 것이다。

「계급투쟁」이란 개념은 붉은천(布)이 격노한 투우(鬪牛)에게 작용하는 것처럼 우익사회주의자들에게 작용한다。그 대신 독일변절자들은 영국 레이버리스트들의「무언(無言)의 혁명」을 감동적으로 묘사하고 있다。그들은 무혈(無血) 사회화」및「무풍(無風)」이란 찬미가를 부르며 또한 이것을 가지고 레이버리즘의 위인(偉人)들은「폐빈적 사회주의」를 실시하고 있는것이다。레이버리스트들의「사회주의」는 전체개량주의적 거만이라는 그것으로서 이「무풍」이 또한 설명된다는것에 대해서는 그들은 위선적으로 침묵을 지키고 있다。「무언혁명」(一九四八년 제一五—一六호의「사회주의 세기」)이라고 제목한 론문의 어떤 저자가 쓰고 있는바와 같이 만약 레이버리스트들이 자본가들을 완전히 만족시킬만치「교묘

든 부르죠아—개량주의적 리론들을 전복하고 있다는것을 리해하지 않을수 없는 것이다。이 때문에 그들의 모든「사회주의 리론」은 그들이 최후 발악적인 증오심을 품고있는 쏘련을 반대하는 투쟁에 종속되고 있는것이다。다시 말하면 이 점에 그들의 사회주의의 모든「새것이」이 있는 것이다。다른점에 있어서 그들의 리론들은「고전적」인 개량주의의 낡고 낡은 찌끄러기를 되씹고 있으며「륜리적(倫理的) 사회주의」로의 자본주의의 평화적인 이행등등이란 이미 분쇄된 개념들을 싫증이 나도록 되풀이하고 있다。

브룸, 애트리, 렌네르의 발굼치를 따라 다니는 독일 우익사회주의자들은 불상용적인 모순을 가진 적대적 계급들로의 사회의「이전」의 분렬은 현재는 이미 현실적이 아니라고하는 규정을 자기네의「사회주의 리론」의 출발점으로 취하고 있다。새 시기가 도래하였는바 그 특징은「사회주의 운동의 한계의 확대」이라는 것이다。달리 말한다면 개량주의자들이 생각하고 있는바와 같이 맑쓰주의적 계급투쟁론을 반대하는데 주되는 공격을 돌리고 있는 것이다。우익사회주의 변절자들이 계급투쟁을 부정함은 실상 자본에 대한 개량주의의 충실한 복무가 낡은 것인 것과 똑같이 낡은 것이다。그러나 현대 변절자들은 개량주의의 낡은전물을 조금이라도 수리하려고 하는 것이다。이리하여 현하 자본주의사회에서 마치 계급으로의 분렬이 소멸한것과 같은 명제(命題)가 무대위에 나타나는 것이다。

이 점에 관하여 슈마헬 도배들은 자기 잡지의 대호에서 해석을 주고있다。一九四七년 제十三—十四호에 게재된「사회주의의 정신적 원칙에 대하여」란 틸리흐의 론문에는「새로운 한계」란 것이 애매하게 기술되어 있다。이「새로운 한계」내에서 마치 오늘날 사회주의의 운동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이러한 한계가 우익사회주의자들의 노력에 의하여 이 한계내에서 슈마헬도배와 취칠도배가 편안히 지낼수 있을만치 확대되고있다는 것만은 확실하다。주되는 목적은 사회주의의 지지자가 로동계급도 아니며 프로레타리아트도 아니며 부르죠아지를 포함한 사회전체이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는 점에 있는 것이다。

「한계의 확대는 사회주의에 대하여 계급운동으로부터 국가—사민적 전반적 운동에로의 일보를 의미한다」「…오늘날 사회전체는 자유를 위한 투쟁의 단체로서 또는 차기성원(成員)의 공적(功績)으로서 고찰되어야한다」고 틸리흐는 쓰고 있다。(一九七페지)

이 점에관하여 이미 위에서, 인용한 슈헤이엘만은 一九四八년도 잡지 제十九호에서 다음과 같이

하게」 자기의 「사회주의적」 정책을 실시하였던들 「무풍」이란 착종가는 발생치도 않았을 것은 물론이다。

바로 계급투쟁을 부인하기 위하여 또는 「계급적평화」를 설교하기 위하여 독일슈마헬 도배들은 물론 불란서의 브룸 도배들도 레이버리스트들앞에 굴복하고있는 것이다。 클라우스 술츠는 잡지의 독자들로하여금 애틀리와 베빈의 「민주주의적 사회주의」가 과학적 사회주의의 변체(變体)가 아니며 이것이 「진정한 창조물」이라는 것을 슈마헬 도배들이 믿게하려고 서둘고 있다。

「낡은 형태의 과학적 사회주의는 전적으로 힘의 원조로써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생각하였다。그것은 대중들을 의식적인 사람들로 만들려고 기대하였다。……민주주의적 사회주의는 대중의 힘을 거부하면서 개인의 사려(思慮)에 립각하고 있다。…」(「사회주의 세기」一九四七년 제一五―一六호)

「개인의 사려」란 이름밑에서 브룸은 불란서 로동자들에게 자본가와 협력할것을 설교하는 동시에 불란서 변절자들의 도움을 얻어 드·골의 독재를 위하여 길을 닦아주고있다。「개인의 사려」란 이름밑에서 독일 슈마헬도배들은 로동자들로부터 순종(順從)을 요구하며 작일의 반동적 독일을 재생시키려는 영미인들을 힘닿는데까지 도와 주고 있다。이와같이 「개인의 사려에 립각하면서」 모든 우익사회주의자들은 활동하고 있는 것이다。

「개인의 사려」란 이것에 립각하면서 독일의 우익사회주의자들은 혁명운운의 구호를 내걸고 있다。그러나 그들이 운운하는 혁명의 구호란 단지 도덕적인 혁명의 구호인 것이다。 더구나 이 신성하고 위험한 말을 그들은 간혹 「도덕적」이란 말을 붙여서 사용한다。그들「도덕적혁신(革新)」이란 덜 위험한 개념을 더 좋아한다。

사회주의에 관한 슈마헬 도배의 모든 서술들은 도덕을 가장 저급하게 론하는 것으로 충만되어있다。자기의 선행자들의 이미 파산된 「륜리(倫理)적 사회주의」를 재흥하려고 기도하면서 그들은 대중들의 불행에 대한 죄가 자본주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브룸이 말하는바와 같이 「도덕에 있어서의 위대한 체제(体制)」의 결함(缺陷)에 있다고 대중들에게 설교한다。 이 인용구(引用句)는 니체의 말이다。「사회주의자」 브룸은 로동계급의 불구대천의 원쑤의 이 말을 자기의 주되는 사상으로 하였다。

개량주의적 대변자들은 제국주의의 현실적이며 용인할수 없는 모순을 엄폐할 능력이 없다。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보통의 개량주의적 수법을 사용하는 것이다。 즉 위선적이며 허위적인 「도덕」 운운의 잡담으로써 죽어가는 자본주의의 모순을 엄폐하는 것이다。「자본주의를 반대하는 운동의 론쟁(論爭)

계단은 이미 끝났으며」 현재는「투쟁은 하등의 의미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브룸은 말한다。그는 「인류의 규준(規準)에서」란 자기의 저서에서 쓰기를 제二계단 즉 정신적 계단이 도래하였다고 하였다。

「사회주의는 사도행전(使徒行傳)으로 또는 정신적 쟁취물로 그칠수있다。」고 브룸은 성명한다。

그리하여 개량주의의 사도(使徒)는 허언과 비방으로써 로동자들을 계급투쟁으로부터 다른데로 돌리기 위하여 또는 그들을 부르죠아지 편으로 「정식적으로 쟁취」하기위하여 전력을 다하고 있다。

개량주의적 도덕론자들의 위선과 철면피는 일정한 한계를 가지고 있지 않다。 고상한, 도덕성을 설교한다는 구실하에서 브룸은 제二차 세계전쟁에 있어서의 불란서의 패배에 대하여서는 역시 불란서프로레타리아트도 죄가 있다고 불란서 프로레타리아트를 감히 비난하고 있다。 즉 불란서 프로레타리아트에는 「공동의 행복을 위한 큰사랑、리념적행동、자각적인 무욕(無慾) 그리고 또 자기희생…」이 부족하였다는 것이다。

「공동의 행복을 위한 자기희생」이란 것은 브룸의 말에있어서는 부르죠아지에 대한 로동계급의 순종、자기의 생활권을 위하여 감히 투쟁할수 없는 노예들의 도덕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노예의 도덕을 또한 우익사회주의자들은 로동자들에게 설교하고있으며 이것을 또한 그들은 「도덕적 혁신」이라 칭한다。

독일 우익사회주의자들은 브룸의 발굼치를 따라다니고 있다。 그들은 「도덕」「륜리(倫理)」인간의 「도덕적 자기완성」이란것을 인용하지 않고서는 자기들의 론문에서 아무것도 쓸수없는 것이다。

대중들을 기만하는데 있어서의 명인(名人)들 즉 로동계급의 리익을 옹호한다는 잡담으로 엄폐되어 부르죠아지에게 추종함에 있어서 도덕의 잔재라고는 도저히 볼수없는 명인들은 또는 우익사회주의자들은 프로레타리아들과 전체 근로자들로 하여금 자본주의의 현실적 모순으로부터 다른방향으로 돌리게 하기 위하여 눈초리를 위에로 즉 「초계급적」 도덕이란 추상적 분위기로 돌리고 있다。그들이 도덕운운하는 것은 자본주의의 현실적 모순을 의식적으로 엄폐하는 것이다。 이것은 프로레타리아트와 근로대중들의 공격을 반대하며 자본주의를 위한 장벽인것이다。 세계는 우익사회주의자들의 「도덕」 이상으로 모욕을 당한 도덕을 일찌기 보지못하였다。

제국주의자들이 그렇게도 조심스럽게 우익사회주의자들과 그들의 도덕을 옹호하고 있다는 것에는 이상한 점이 없다。

변절자식(式)의 「국제주의적 련대성」— 로동계급 근로대중들의 통일대전에 제국주의자들과의 통일

우익사회주의자들은 과학적사회주의의 근본원칙을 반대하기 위하여서뿐만 아니라 프로레타리아트와 전투적인 당면 구호를 반대하여 투쟁하기 위하여 자기들의 반동적 관념론적 철학과 「인간일반」에 관한 자기들의 가장 저급한 론문들을 리용한다. 이와같이 취급되고 있는 것은 례하면 로동계급의 통일 프로레타리아트의 국제주의적 련대성등에 대한 구호인 것이다.

만일 자본주의 나라들의 로동계급이 우익사회주의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분렬되지 않는다면 부르죠아지가 근로자들의 강력한 통일전선과 부닥치게 되며 여하한 자본주의적 폭력기관도 소용이 없게 되리라는 것을 우익사회주의자들은 잘 알고있는것이다. 그들은 또한 사회주의 당들의 하부당원들이 로동운동의 통일을 갈망하고 있다는것을 역시 잘 알고 있는것이다. 그들은 모든 나라의 로동계급의 행동통일이 새 전쟁을 조발하려는 제국주의자들에게 대하여 불패의 방벽을 구축할 것이라는 것에 관하여 하등의 환상도 가지고 있지 않다. 바로 이러한 원인에 의하여 그들은 로동계급대렬의 통일과 단결을 불처럼 무서워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자기주인에게 오랫동안 충실이한 자들처럼 그들은 부르죠아지의 주문 즉 통일을 백방으로 방해하며 로동운동을 붕괴시키며 로동계급의 통일의 진정한 옹호자인 공산주의자들을 비방하는 주문을 충성을 다하여 수행하고 있다.

우익사회주의자들은 「국제주의적 련대성」에 대한 자기네의 견해를 프로레타리아트의 전투적 통일에 또는 진정으로 프로레타리아적인 국제주의적 련대성에 대립시킨다. 반동적 사회민주주의는 항상 부르죠아지의 정책의 당면요구를 정확히 규정한 또는 반영한 계량기(計量器)이었다. 이 우익사회주의적 계량기는 현재도 작용하고 있다. 현하 영미의 제국주의적 부르죠아지의 정책은 세계지배의 쟁취를 지향하고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것은 제인민의 민족적 자주권을 근절하며 제인민의 국가적 독립을 말살하는 그것이다. 부르죠아지의 철학가들과 대변인들은 민족적 자주권에 대한 개념자체를 란폭하게 공격하며, 또 민족적독립 또는 자주성에 대한 사상을 박탈 비방하기 위하여 모든 이데올로기적 수단을 가리지 않는다. 미국과 영국의 제국주의자들은 현재 자기들의 협소한 민족적 리익을 추구하면서 「모든 인민들」의 리익에 관하여, 민족적 장벽을 제거할데 관하여, 「제인민들을 서로 소원(疎遠)케하는것」을 근절할데 관하여 격정하는 「국제주의자」로 즉 코스모폴리스트로 현재 가장하고 나선다. 취칠은 입에 거품을 물고서 「구라파 합중국」 「세계정부」를 주장한다. 구라파인민들을 미독점에 예속시킬 목적을 추구하는 「마샬안」은 잘 팔리는 람작가(濫作家)들에 의하여 구라파 나라들에 대한 미제국주의의 「야심없는 원조」로써 표현되고 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부르죠아지의 제국주의적 정책과 이데올로기의 일정(日程)에는 략탈자(掠奪者)와 피략탈자와의 「국제주의적 련대성」에 대한 문제가 들어 있는 것이다.

우익사회주의 변절자들은 미제국주의자들의 침략적 계획을 실현함에 있어 그들을 도웁기 위하여 전력을 다하고 있다. 렌네르배 라스킨배 브룸배 슈마헬배들은 제인민의 민족적 자주권에 대한 리념을 파탄시키기 위하여 또는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에 있어서의 로동계급과 전체근로자들의 진정하고 전투적인 국제주의적 련대성을 로동자와 제국주의자와의 「련대성」으로 바꾸기 위하여 잉크를 아끼워하지 않고 산데미 같은 종이를 사용하고 있다.

렌네르는 제四인터나쇼날을 창건할 필요에 관하여 쓰고있다. 그는 국제련합기구를 이 「인터나쇼날」의 표본으로삼고 있다. 국제련합기구가 그의 마음에 들지 않을수 없는 것은 영미제국주의자들이 그곳에서 자기에게 순종하는 다수에게 자기의 의사를 강요할수 있기 때문인 것이다.

라스킨은 「우리운명의 위기」란 자기론문에서 제一차 및 제二차 세계전쟁의 주요 원인과 또는 히틀러가 정권을 잡은 원인이 민족적 자주권에 대한 리념(理念)속에 있다고 쓰고 있다. 라스킨에 의하면 모든 악(惡)은 자본주의에서 생기는 것도 아니며 죽을때가 멀지 않은 제국주의가 압박을 강화하며 새 전쟁을 부단히 일으킨다는 것에서 생기는 것도 아니며 단지 제인민이 자기의 민족적 자주성을 거부하기를 싫어하기때문에 생긴다는 것이다. 민족적 자주권은 마치 높은 기술의 시대에 모순된다는 것이며 그리하여 출구는 「세계정부」에 있는것이며 이 「정부」의 수립은 모든 사람에게 용인되는 일반적인 「진리」의 발견여하에 달렸다는 것이다.

브룸은 「인류의 규준(規準)」이란 자기의 소책자에서 역시 「세계민주주의 질서」를 주장하고 있다. 이것은 그의 견해에 의하면 「완전한」……미국식 민주주의를 표본삼아 건설되어야한다는 것이다.

슈마헬적 「사회주의」의 대변인들도 그들과 똑 같은 것을 말하고 있다. 잡지 「사회주의 세기」 一九

四八년 제一三一一四호에는「국제주의적 련대성」이란 제목을 가진 특별론문이 나타났다。이 론문의 저자 틸리흐는 독일 우익사회주의자들이「국제주의적 련대성」을 어떻게 리해하고 있는가를 설명하고 였다。론문은 뜻 깊은「철학적」원칙으로부터 시작된다。(이미 위에서 말한바와 같이 독일우익사회주의자들은 변절행위를, 철학적으로 변명하는 부분에 있어서 특히 열심이다。)이 원칙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즉「국제적 정치를 위하여서는 국제주의적사람들이 필요하다。」(二〇一폐지 력점은 저자의것)

이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것인가? 온갖 불행은 사회주의로 가장한 슈마헬 도배의 견해에 의하면 오늘까지 아직도 사회주의 지지자들 즉 자기의「락후성」때문에「로동자」에 관하여,「로동계급」에 관하여,「로동계급의 통일」에 관하여 운운하는 자들이 있다는 그점에 있는 것이다。이리하여 이 점에관하여 그들은 다음과같은 것을「발견」하고 있다。즉 로동계급 또는 로동자란 오늘날 그렴자조차 없는 것이라고! 맑쓰는「산업프로레타리아트」를 념두에 두고서 로동계급에 관하여 말할수 있었지만 이것은 의심스러운 것이었다。왜냐하면 이 프로레타리아트는 수많은 차이점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틸리흐는 쓰고 있다。그리고 백년이 경과한 오늘날에는「로동자」「로동계급」이란 개념자체를 사용하는 것이 불합리로된 그러한 변화가 로동계급내에 또는 기타층내에 발생하였다는 것이다。「일하는 사람」개념은 역시 로동자라고 말하는것은 무용(無用)의 동어반복(同語反復)으로는 되지않을 것이다。

이러한 술책으로서「로동자」와「일하는사람」간의 차이점을 없새버리고서 (여기에서 아는바와 같이 이것은 로동자와「일하는」취칠배 마샬배 및 모든 제국주의자들과의 통일을 론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다。)론문의 저자는「로동계급」이란 개념과 같은 그러한 (그들의 표현에 의하면)「추상」에 렵각한 온갖 리론을「민족—경제주의」라고 공포한다。「오늘날「로동자」에 관하여 말하기를 원하는…자는 불란서인, 아리안인등등만을 사람으로 보는 민족주의자와 똑같이 민족—경제주의적 이데올로기를 면치 못하는 것이다。」라고 그는 말한다。「로동계급」이란 추상적 개념은「사회주의정책에 대한 기초」로 될수없다고 틸리흐는 성명한다。

이와같이 우익사회주의자들의 노력에 의하여 로동계급은 존재하지 않는 허구의 추상물로 선포되고있는 것이다。부르죠아지를 리롭게하는 자기의 사만교(敎)적 몸짓에있어 그 한계를 모르는 우익사회주의 마술사들의 주문(呪文)에 의하여 현실의 사물이 연기처럼 없어질수 있다는 것을 만약 전세계의 제국주의자들이, 잠시라도 믿는다면 상술한「발견」이 제국주의자들에게 안심의 한숨을 일으킬수 있는 것은 물론이다。그러나 가소롭게도 불쾌한 현실은 그러한 신앙에 대하여 근거를 주지않는다。

그러나 이때까지 론문의 저자가 말한 모든 것은 단지 주요한 결론에 대한 준비에 불과한 것이다。이 결론이란 다음과 같은것에 즉 만약 로동계급이 없다면 프로레타리아트의 여하한 통일도 없으며 또 있을수 없다는 것에 있는 것이다。「로동계급의 통일이란 현재 없으며 또 그것은 미래에도 수립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틸리흐는 말한다。더우기 그는 첨부하여 말하기를 로동계급의 통일은 공고한 평화의 확립을 방해할 것이라고 한다。「만일 로동자만의 단결이 실현되는날에는 일하는 모든 사람들의 단결은 다시 말하면 로동자와 제국주의자와의 단결은 불가능하게 될것이다라고 틸리흐는 성명한다。왜냐 하면 틸리흐와 모든 우익사회주의 자들은 로동계급의 통일이 전체 피압박 근로대중들의 통일을 방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세계의 진보적 전체 력량의 통일전선을 수립하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라는것을 훌륭히 잘알고 있기때문 인것이다。

더우기 틸리흐는 파학, 예술, 자기나라, 자기인민의 영예를 고수하는 것을 가능하다고 인정하는자들에 관하여 흥분하여 말하면서 자기의 부르죠아적 마샬화한 코스모폴리탄니즘을 시위하고 있다。민족적 학자는 없다。학자는「세계에 속한다!」고 그는 고함을 친다。

철두철미 부르죠아민족주의자들인 우익사회주의자들은 제인민을 압살하며 그들의 민족적 자주권을 탄압하는 정책에 있어서 정신적 무기로써 제국주의자들에게 필요한 코스모폴리탄니즘을 또한 열심히 주장한다。우익사회주의자들은, 근로자들의 계급적 및 민족적 리익을 표현하는 공산주의자들을 반대하여 란포한 투쟁을 한다。

공산주의자들은 프로레타리아적 국제주의의 기치를 높이들고서 또는 부르죠아민족주의를 제국주의 강탈자들의 이데올로기로써 배척하면서 제인민의 민족적 독립을 위하여 그들의 민족문화의 전면적 발전을 위하여 근로자들의 투쟁을 지도하고있으며 또 제국주의를 반대하며 사회주의를 위한 근로자들의 투쟁에 있어서의 그들의 국제주의적 련대성을 민족적 자주권을 위한 이 투쟁과 결합시키고 있는것이다。오직 프로레타리아적 국제주의에 있어서만이 전세계의 로동계급과 근로자들의 민족적 및 국제주의적 리해는 일치결합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국제주의를 불처럼 무서워하는 자들은 바로 부르죠아지의 개량주의적 충복들이다。

이와같이 우익사회주의자들의 철학의 의미는 지극히 간단하다。즉 로동자는 없으며 부르죠아는 없오며 있는것은 사람일반이며 이때문에 또한「프로레타리아트의 련대성」은 있을수없으며 「사람들의 련대성」은 있으며 또 있어야한다는 것이며 사람이라고 칭할수있는자는 민족적 자주권이란 낡은 리념에 사로 잡히지 않으며 그가 바로「국제주의적」이라는 것이며 이 때문에 브룸은 진정한「국제주의자」라는 것이다。왜냐하면 그는 불란서인민의 리익을 배반하면서 같은 진정한「국제주의자」인 배빈과 마샬과함께 루로를 독일 대공업가들 즉 제二차세계전쟁을 일으키였으며 또 새로운 세계전쟁을 준비하기 위하여 미국과 영국에 의하여 리용되고 있는 독일 대공업가들에게 양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또한 변절자식(式)의「국제주의적 련대성」인 것이다。이는 또한「국제주의적 정책을 위하여서는 국제주의적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철학적 문구외 의미인 것이다。

쏘베트동맹과 새 민주주의나라들을 반대하여 투쟁하기 위하여 또는 자국의 로동계급과 근로대중을 반대하여 투쟁하기 위하여 제국주의침략자들과 우익사회주의자 진영출신이 그들의 옹호자들의 통일전선을、만들것—바로 이것을 위하여 우익사회주의자들은 노력하는 것이며 바로 이것을 그들은「국제주의적 련대성」이라 칭하는 것이다。

그러나 반역자들의 노력은 허사인 것이다。평화를 위한 근로자들의 행복한 생활을 위한 철저한 투사인 쏘베트동맹이 령도하는 민주주의와 사회주의 력량의 강력한 전선은 장성하고 있으며 부단히 확대되고 있다。맑쓰—엥겔쓰—레닌—쓰딸린의 위대한 학설에 또는 공산주의를 위한 전세계의 로동계급과 전체 진보적 력량의 공동투쟁에 립각한 프로레타리아적 혁명적 국제주의는 장성 강화하고있다。

× × ×

현대 변절도당들의「철학」이란것은 부르죠아적 주관—관념론적 철학의 한개의 가지(枝)이며 분파(分派)인 것이다。우익사회주의자들의「리론」의 부르죠아적 본질을 엄폐하고 있는「사회주의적」어귀(語句)는 그들의「리론」을 로골적인 부르죠아리론보다 더한층 구역질 나는 것으로 만들고 있다。

전동맹공산당(볼쉐위끼)제十八차당대회에서 쓰딸린동지는 다음과같이 말하였다。

「모든나라의 부르죠아지와 그들의 개량주의적 충복들이 특히 달성하고 있는 주요한것은 자기의 력량에 대한 확신、그의 승리의 가능성과 필연성에 대한 확신을 로동계급속에서 근절시키며 또 이렇게 함으로써 자본주의적 노예상태를 영구화 하려는 그것이다。」(「레닌주의의 제문제」十一판六一〇페지)

쓰딸린동지의 이말은 진보적력량과 반동세력간의 현하의 투쟁에 있어서 로동계급속에 있는 부르죠아지의 앞잡이들 즉 소위 우익사회주의자들의「철학」이 놀고 있는 그 계급적 역활을 철저하게 평가하여 주는 것이다。이것은 민주주의와 사회주의의 가일층 장성되여 조직되는 세력의 목전에서 자본주의를「구원하는 철학」이며 제국주의자 달구지에 대중들을 얽어맬 목적으로 그들을 예속으로 만드는 철학인 것이다。

여기로부터 우익사회주의자들의 더러운 본질을 폭로하며 그들의 진정한 본성(本性)을 즉 자본주의의 앞잡이들의 본성을 드러내는 긴급한 과업이 나오는 것이다。(「볼쉐위끼」지 제二三호)

계졌다。「이러한수령들은 단번에 생긴것이 아니라 그들은 로동운동에서 장성된것이며 그들은 영국자본이 잉여 리득을 끌어모으면서 영국로동계급과 타협하기 위하여 로동자들의 수령을 친절히 대우하며 또는 리용할수있었으며 그와 함께 이 로동계급의 수령들은 자기의 생활상태와 처지에 있어서 부르죠아와 접근함으로써 로동대중으로부터 분리되었으며 그와 등을졌으며 또는 그를 망각하고 있는 이러한 시기에 있어서 영국에서 주지하고 있는 로동자들의 수령에 대한 훈련의 학교를 통하였던 것이다。이것은—자본주의의 광채에 눈멀게 되었으며 자본의세력에 진압되었으며 또는 어떻게 「사람이될것과」 또는 「부유하게 사는 사람들과」 결합할것을 몽상하는 이러한 로동계급의 수령들이다。」(레닌전집八권一六一페지)

로동운동의 분렬과 그의 와해에 관심을 가진 독점자본은 이러한 「로동귀족계급」층과 북미합중국에서의 개량주의적 수령들인 홈페르쓰、호린、영국에서의 토마쓰、힌크쓰、떼르쎄르、불란서에서의 수오 등에 립각하였던 것이다。로동계급에 있어 부르죠아의 이러한 밀정의 활동은 북미합중국과 서구라파 직업동맹운동이 전면적 발전에 있어서 자기의 자취를 남겨 놓았던 것이다。직업동맹운동이 여하한 형식을 취한다 하더라도—앙글로 싹쏜민족의 트레드 유니온、오독(墺獨)사회민주개량주의의 또는 영국 신지케트리즘—협소한 직장조합、정치에 대한 무관심、계급투쟁의 거부、계급적 협조에 대한 전도、개량주의의 각종형식등이 서구라파 직업동맹운동의 근본적 특성으로 되어 있었다。

서구라파에 있어서의 직업동맹들의 발전조건의 특질에 관하여 쓰딸린동지는 이렇게 저술하였다。

「첫째로、그들은 자기의 실천의 「실험적」 직장이 협소하였으며 또는 사회주의에 대하여 적대적이었다。왜 그러나 하면 그들은 사회당들이 발생하기 전에 있었으며 그들의 원조를 받지 못하고 발전하면서 자기의 「독립성」을 위장(威張)하기를 습관하였으며 직장의 리익을 계급적 리해관계 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으며 또는 「금전」이외에는 아무것도 인증하지 아니하였다。

둘째로、그들은 정신적으로 봉쇄되었으며 전체 혁명적 단서에 대하여 적대되고 있었다。왜 그러나하면 그들은 되물에 좌우되는 부르죠아가 양육한 낡은 직업동맹의 관료를 자기들의 선두에 가지고 있었는데 그들은 항상 직업동맹들을 제국주의에 복종시켜려하는자들인 것이다•」(레닌전집제六권二九四—二九五페지)

서구라파의 개량주의적 직업동맹운동에 있어서 지배하고 있던 특징들 즉 혁명적 계급투쟁의 부인、

세계 직업련맹 운동의 통일을 위한 투쟁

드 · 모 닌

제국주의 진영이 침략정책과 새 전쟁을 폭발시키려는 정책을 실시하며 또는 자본주의국가들내의 로동계급에 대한 공세를 확장시키고 있는 현재 조건하에서 민주와 평화 지지자들 진영의 력량의 장래 장성을 위한 투쟁과 로동계급의 국제적 통일의 강화를 위한 투쟁은 특별한 의의가 있다。전 세계의 七천만의 단결된 로동자들과 사무원들의 리익을 대표하는 국제 직업련맹은 새 전쟁 방화자들과 선전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큰 역활을 놀아야할 의무를 가지었다。그렇기때문에 로동운동에 있어 제국주의의 밀정—우익 사회주의자들과 직업동맹들의 개량주의적 수령들—은 어떤 한 국내에서 또는 국제적 범위에서 직업동맹의 통일을 파탄시키려고 애쓰고 있는 것이다。우익 사회주의자들의 파괴적 공작에 반대하여 전세계의 수백만의 로력자들은 완강하고 가혹한 투쟁에서 쟁취한 직업동맹의 통일을 결정적으로 옹호하고 있다。

제국주의의 전 력사적 기간에 있어서 로동운동내에는 두 조류간의 투쟁이 있었다。즉 혁명적 조류와 개량주의적—기회주의적 조류이었다。맑쓰—레닌주의의 혁명적 학설의 지지자인 볼쉐위끼들은 계급투쟁을 인정하는 직업동맹운동의 통일을 위하여 각국내에서와 또는 국제적 범위에 있어서 항상 로동계급의 세력단결을 위하여 출현하였다。볼쉐위끼들은 전투적 프로레타리아의 국제주의와 로동자의 통일을 수호하여 왔으며 직업동맹운동의 원칙들을 항구적으로지켜왔다。

볼쉐위끼들은 서구라파 직업동맹운동의 개량주의 지도자들의 반역적 정책을 항상 결정적으로 폭로하였는바 이곳에서는 레닌이 지적한 「우리 국내에서 보다 직업적 협소한 리기적 완고한 람욕적 소시민적 제국주의적 기분을 가진 또는 제국주의에 매수된 또는 제국주의에 의하여 방탕하게 된 「로동귀족」이 훨씬 더 유력한 층」이라고하는것이 눈에띄운다。(레닌전집二五권一九〇—一九七페지)

영국 트레드유니온 콘크레쓰의 개량주의적 지도자들에 대하여 특징지으면서 쓰딸린대원수는 이렇

협소한—민족적리익의 선위(先位)와 개량주의의 승리를 반영시키면서 직업동맹의 시초의 국제적편합들은 착취계급을 반대하여 투쟁하기위하여 로동계급의 세력에 대한 질지적 단결을 자기의 과업으로 내세우지 않았다。직업동맹의 령수들은 사실에 있어서 협소한—사회를 목적으로 한 민족적 리익과 로동계급에 대한 민족적시장을 자기나라를 떠나서 품팔이를 구하려고 이주하여온 외국 로동자들의 경쟁으로부터 방어하려는 지향에서 출발한 것이다。

서구라파에 있어서 직업동맹운동의 이특정적 특성들은 一九一四—一九一八년 제一차 제국주의전쟁당시에 자기를 날날이 표시하였던 것이다。계급투쟁에대한 거부、전쟁에서 자기나라의 부르조아의 승리를 위하여 로동계급의 생활적리익에 대한 보호의 거부 이러한 표어밑에서 쌍방의 교전련합국(交戰聯合國)의 개량주의적 직업동맹의 령수들은 활동하였던 것이다。

불란서、영국、오쓰트리아、항가리、이태리 기타 서구라파 제 국가들의 직업동맹의 사회—배외주의적 령수들도 로동계급의 근본적 리익의 공공연한 배반의 길에 나섰던 것이다。

一九一四—一九一八년 전쟁은 로동자단체들의 국제적 련락의 해체와 二十세기 첫十년동안에 발생되였던 국제적 련락 또는 수다한 생산서기국등의 실패를 가져 왔던 것이다。

로씨야에서의 十월혁명의 승리는 로동계급의 국제적 련대성의 강화에 대하여 위력한 비약을 준 것이다。여러나라의 로동대중들은 제국주의적 련합국측의 침범을 당하고 있는 젊은 쏘베트공화국을 보도하기에 결정적으로 나섰던 것이다。세계에서 처음 탄생한 로동자 농민의 정부와 제국주의적 살육전쟁중지、평화 및 쏘베트국가 인민들과의 련대성에대한 호소가 외국 프로레타리아에 향하여 발포되었던 것이다。이 호소는 반응이 없을수는 없었다。련합국의 로동자들과 병사들은 쏘베트 로씨야의 근로자들을 반대하여 싸울할것을 거절하여 불란서에서는 안드레 말치의 지도하에서 일어난 해군폭동、시위、파업、항의를 제출하는 군중대회등으로써 이 호소에 호응하였던 것이다。독일、불란서、오태리、체코슬로바키아、이태리 로동자들은 위대한 사회주의 十월혁명의 전취를 말살시키려고 시도하는 간섭자들의 군대에 보내는 군용화물의 운반을 거절하였던 것이다。영국 로동자들은 쏘베트로씨야의 옹호를 위한「활동위원회들」을 조직하였던 것이다。이것은 쏘베트국가와 외국 근로자들의 국제적 련대성에 대한 최초의 자연 생장적 표시이었다。

자본주의국가들에 있어서 로동계급의 혁명적 장

쟁은 공산당들의 력량 장성과 로동자들에 대한 직업동맹들의 군중적 흡수에 가장 선명하게 반영되었던 것이다。一九一九년초에 독일의 직업동맹들은 五四六만명의 맹원을 가지고있었으며 영국에서는 四七五만명、북미합중국에서는 三六〇만명、불란서에서는 一五〇만명 이태리에서는 一〇〇만명의 맹원들을 흡수하고 있었다。

十월혁명후 서구라파에서와 북미합중국에서 전체 직업동맹원이 一、八〇〇만명에 달하였었다。근로자들은 자기의 절실한 리해를 위하여 투쟁에 대한 조국의 의의를 인식하였다。직업동맹들은 직업동맹 관료주의자들의 반항에도 불구하고 비록 과거의 개량주의적 중하에서 해방되지 못하였으나 대중화하였다。

레닌은「공산주의에 있어서의「좌익적경향」의소아병」이란 자기의 저서에 이렇게 썼다。「이 사실들은 진실로 무산대중속에서、「하층사회」에서、탁후자들중에서 의식이 장성하고 조직에 대한 지향이 장성하였음이 증명되는 것을 말하여 주는것이다。영국、불란서、독일의 수백만의 로동자들은 완전한 무조직적으로부터 처음으로 초보적 하급적 단순하고 가장 편리한(부르죠아—민주주의적 편견에 의하여 교양된 그들에게있어서) 조직형식으로 즉 직업동맹으로 전환하는것이다。」(레닌전집二五권一九八페지)

그러나 벌써 十월혁명후 첫해부터 자본주의적 국가들의 직업동맹운동에 있어서나 또는 총체로 로동운동에 있어서 두조류 사이에 투쟁이 극단적으로 첨예화되었다。즉 十월혁명의 영향하에서 강화된 혁명적 조류와 개량주의적 조류—이들 사이의 투쟁은 제一차 세계대전으로부터 제二차세계대전에 달하는 기간에 차고 있었다。

一九一七—一九二三년간의 혁명적 폭풍의 시기에서 더욱 밀접히 부르죠아와 결탁한 개량주의진영은 로동운동을 분렬시키고 쏘베트로씨야의 직업동맹들과 기타 혁명적 직업동맹 단체들을 고립시키는 정책을 써 왔다。一九一九년여름에 암스텔담에서 개최된 국제 직업동맹대회에서 소위 암스텔담국제직업동맹을 조직하였다。이것은 직업동맹들에 혁명적 사상이 침투하는것을 방어하기위함이며 로동운동의 분렬에 대한 근본적 무기로 되기위하여 조직된 것이다。

이「인터나쇼날」은 한번도 진정한 국제적통일로 되어 본적이없었다。여기에는 다만 서구라파국가들의 약간의 개량주의적 직업동맹들과 미국로동련맹이 참가하였던 것이다。쏘베트 로씨야의 수백만의 직업동맹단체、구라파각국의 직업동맹련합、식민지 또는 예속국가들의 새 직업동맹들은 로동계급의 통일

과 국제적협조의 분렬을 중요한 과업으로 내세우는 암스텔담 인터나쇼날과는 분리되어있었다。

암스텔담 인터나쇼날의 모든 활동의 출발점은 한국가의 경제적 또는 정치적 생활의 전체부문을 장악한 자본과의 협조이었다。그것은 국제관계에 있어서도 로골적으로 나타났던 것이다。

민족적 또는 국제적 범위에 있어서 로동계급의 통일을 반대하는 투쟁을 암스텔담 인터나쇼날은 자기의 주요목적으로 생각하였다。「암스텔담 주동자들의」첫걸음은 벌써 통일의 지지자—공산주의자들—을 민족적 직업동맹련합에서 구축하는 것이였으며 각국내에서 직업동맹의 분렬을 일으키는 것이었다。공산주의자들이 지도하는 혁명적 직업동맹들은 一九一九—一九二二년 기간에 있어 암스텔담 인터나쇼날의 구성에서 제외되었다。민족적 직업동맹의 중심인—불란서、체코슬로바키아、유고슬라비야、루마니야 또는 기타국가에서도 분렬이 생기었다。로동계급의 국제적통일의 결렬에 대한 그 목적을 추종하면서「암스텔담 주동자들은」쏘베트 직업동맹들과 가타 진보적 직업동맹들의 통일전선에관한 제의를 거부하였으며 암스텔담 영향하에 있는 국제적 생산서기국들에 그들이 가입하는 것을 방해하였으며 쏘베트적 직업동맹들이 서구라파 로동단체들과 친선 또는 협조하는 것을 백방으로 방해하였다。

쏘베트직업동맹들은 암스텔담 개량주의를 폭로하고 로동계급의 통일과 무산자들의 단체의 국제적 협조와 련계성을 위하여 꾸준한 투쟁을 하였다。

쏘베트직업동맹들과 직업동맹들의 붉은인터나쇼날(국제직업련맹)을 선두로한 진보적 직업동맹련합들은 호상관계를 설정하고 파시즘과、전쟁의 위협을 반대하고 로동계급의 절실한 리익을 옹호하기위한 투쟁에서 통일전선을 조직할것을 암스텔담 인터나쇼날에게 수차나 제의하였다。그러나 그것은 항상 거절을 당하고 말았던 것이다。암스텔담 인터나쇼날과 그와 관계를 가진 단체들의 령수들은 쏘베트국가의 로동계급과의 련결을 맺을 것을 적극적으로 원치 아니하였으며 그를 다른나라의 로동자들로부터 고립시킬 것을 목적하고 있었으며 부르죠아에게 유리한 국제적 직업동맹운동에 있어서의 분렬상태를 지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근로대중의 국제적 련대성의 사상은 개량주의자들이 조성하는 모든 장애물들을 통하여 자기의 갈길을 개척하였다。쏘베트 직업동맹들은 외국 로동조직과의 친선을 하대 강화하는데서 성공하였다。초시기에 있어서 이 친선은 쏘베트국가로 외국 로동단체들의 대표를 초청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아직 국내전쟁이 끝나지않았고 젊은 쏘베트공화국의 거대한 지역내에서 아직 간섭자들의 군대가 활동하고있는 그때 一九二〇년에 전련맹직업동맹중앙위원회의 초청에 의하여 영국 기계제조로동자 대표단이 처음으로 모쓰크바에 도착하게 되었다。귀국한 대표들은 영국 로동자들에게 쏘베트로씨야에 대한 진상을 설명하였으며 또는 쏘련내의 근로대중의 생활에 대하여 부르죠아와 개량주의적 출판물들이 류포하고 있는 적지 않은 허위적악선전들을 헤쳐버리였다。붕괴와 인민경제복구의 간난시기에 쏘련을 강력한 사회주의국가로 개전하는 쓰딸린적 五개년계획이 진행되던 시기에 구라파와 미국에서 수십개의 로동자 대표단들은 쏘련을 방문하였다。세계에서 첫번인 사회주의적국가에 대한 세계무산계급의 동정과 애호、쏘련과의 통일전선에 대한 또는 근로대중의 국제적 협조에 대한 전세계로동자들의 동경은 암스텔담 인터나쇼날을 경유하지 않고 쏘련에 로동자의 대표단을 파견한 것으로써 명백히 나타난 것이다。

쏘련근로대중과의 련대성은 로동자 대표단들의 파견에서만 표현된것이 아니라 자본주의국가들의 직업동맹이 쏘련직업동맹과 함께 자본과 반동의 공세를 반대하고 파시즘과 전쟁의 위협을 반대하고 로동계급의 통일전선을 위하여 공동으로 출연한데서 또한 표현된 것이다。즉 이 목적을 위하여 一九二五년四월에 개최된 영쏘(英쏘) 직업동맹대회에서 영、로통일위원회를 구성하였다。영국트레드•유니온 총회의의 개량주의적 령수들은 쏘베트적 직업동맹들이 제기한 통일전선에 대한 사상을 지지하여 성명한 대중의 직접적 압력에 의하여 위원회조직에 동의하지 않을수 없었다。

영、로(英、露)위원회는 즉 뿔럭의 표현이며 우리동맹과 영국동맹의 합의의 표현이며 또 이 뿔럭은 정치적 성질을 상실한것은 아니다。

이 동맹은 자기앞에 두가지 과업을 내세우니。첫과업은 우리 직업동맹과 영국직업동맹간의 련계의 설정、자본의공세에 반대하기 위한 통일운동의 조직、암스텔담과 영국 직업동맹운동 사이에있는 틈(間隙)을 확장하는데 있으며 그 틈은 현재존재하며 그것을 백방으로 또는 어떠한 방식으로라도 확장시킬 것이다。마지막으로 직업동맹에서 개량주의자들을 구축하고 자본주의국가들의 직업동맹들을 공산주의쪽에 전취하기위한 필요되는 조건을 준비하는데 있는 것이다。

이동맹의 둘째 과업은 대체적으로는 새 제국주의전쟁을반대하고 부분적으로는 (특히) 구라파의 가장 유력한 제국주의열강측의 영국측의 우리나라에 대한 간섭을 반대하기위하여 로동계급의 광범한 운동을 조직하는데 있는 것이다라고 쓰딸린동지는 설명하였다。(「쓰딸린전집」八권一八三—一八四페지)

영、로위원회 조직(一九二六년)은 쏘련로동계급과 외국 무산자들사이의 련결강화에와 개별적 국가내에서의 개량주의적 령수 및 암스텔담 인터나쇼날의 반역적행동의폭로에 있어서 막대한 역할을 놀았다。

례를들면 一九二六년에 영국에서 총파업으로 인하여 확장된 사변이 이것을 증명하여 준다。 주지하는바와 같이 이 파업은 영국자본가들이 로동계급의 생활수준、첫째로 광산로동자들의 생활수준을 급격히 저하시킬 시도에 대응하여 발생한 것이다。一五〇만의 광부들이 선언한 파업을 트레드·유니온의 총회의는 지지하지 않을수 없었던 것이다。탄광로동자들을 옹호하기 위하여 영국의 전체로동계급은 동원되었다。 五월초사흗날밤에 총파업은 시작되었다。국내의 경제생활은 정지되었다。영·로위원회의 호소에 의하여 각국내에 련대성을 위한 시위와 의연금 모집이 시작되었다。(암스텔담 인터나쇼날만이 이 사업에 참가하지 않았다。) 쏘련의 로동자들은 파업로동자들을 위하여 一일당 임금의 四분의一을 기여하였다。五월十일에는 전련맹 직업동맹 중앙위원회로부터 영국 트레드·유니온 총회의에 二백만여루블을 금으로 송금하였다。

영국의 지배자들은 총파업과 로동계급의 국제적 련대성이 점점 파급되는것을 두려워하였다。 그들은 국가기관의 모든 힘을 리용하였다。 심지어 계엄령을 나리였으며 또는 경찰과 군대를 동원시키었던 것이다。가장 최후적순간에 있어서 총회의의 령수 우익인(토마쓰와크)파 또는 「좌익」을 가장한자(쾌세로와 히크스)들은 적에게 투항하였다。 그들은 쏘련직업동맹에서 보낸 재정원조를 거절하였다。 그리고 五월十二일광부들을 되는대로 내 버려두고 파업중지에 대한 선언을 하였다。 쏘련과 기타나라의 로동자들의 적극적지지와 동정을 리용하여 광산로동자들은 一九二六년 十二월중순까지 파업을 계속하였다。

영국내에서의 총파업은 거대한 국제적의의가 있었다。그것은 영국로동계급의 개량주의적 령수들과 암스텔담 인터나쇼날의 배반적 역활을 폭로시켰다。 영국파 전세계의 수백만의 로동자들은 근로자들의국제적 련대성의 강화、자본의 공세를 반대하는 투쟁의 통일전선을 위하여 나선 쏘련의 직업동맹들의 정당성을 확인하였다。 一九二六년六월八일에 「전세계무산계급에게」 라고 발표한 전련맹 직업동맹 중앙위원회의 제六차 확대위원회의 격문에는 총파업의 실패의 원인에 대하여 심각한 분석을 하였으며 개량주의 반대와 로동계급의 통일전선을 위한 투쟁의 활동적 강령이 제출되었다。「전련맹직업동맹 중앙위원회의 선언서발표로 인하여 영국 로동운동의 개량주의적 령수중에서 비명(悲鳴)이 일어난것을 보면 전련맹직업동맹 중앙위원회는 그들의 정

통을 마친것이다고 자신 있게 말할수있다」고 쓰딸린동지는 지적하였다。(쓰딸린전집八권一九八페지)

로동계급의 통일을 지지하는 모든사람들이 이격분을 만족하게 환영한 것은 우연한사실이 아니다。「전세계무산계급에게 영국 로동자들의 파업은 암스텔담 인터나쇼날의 직업동맹들이 로동과 자본과의 국제적 계급투쟁의 전정한 인터나쇼날이 되기에는 완전히 무능하고 아무 소용도 없다는 것을 또 다시 증명하였다。……사변은 국제적로동운동의 통일적업동맹들의 유일적 계급적—자제력(自制力)과 능력있는 인터나쇼날을 위한 전세계 로동자축의 결정적 투쟁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특별히 명료하게 지적하였다고 격문에는 설명되었다。」

쏘련의 로동계급의 국제적관계를 파탄시키려고 시도한 뜨로쯔끼—부하린 파의 배반자들의 반항을 극복하면서 쏘베트직업동맹들은 세계 로동운동의 통일을위하여 투쟁을 진행하였다。영、로위원회와 통일을 위한 기타 위원회와함께 직업동맹들의 붉은인터나쇼날의 근본적 핵심이 되는 쏘베트직업동맹들은 매일같이 어떠한 연단이든지 빠짐없이 리용하여 암스텔담 인터나쇼날의 배반적 본질을 폭로하였으며 전세계의 로동계급의 전투적 통일의 기초를 닦아 놓았다。

一九三三년 히틀러의 정권장악、에찌오피아에서와 서반아에서、다음으로는 오태리에서의 최초의 팟쇼적 침략행위、四대강국의 뮌헨에서의 협정등은 새로운 세계전쟁 위협이 박두하였다는 것을 명확히 증명하여 주었으며 자유애호인민들의 통일전선 조직에 대한 필요성이 우선적으로 제기되었다。

이러한 조건하에서 대중의 압력에 의하여 암스텔담 인터나쇼날의 령수들은 一九三七년만에 할수없이 전련맹직업동맹 중앙위원회와 교섭을 진행하게 되었다。모쓰크바에 도착한 암스텔담 인터나쇼날의 대표단은 파시즘과 전쟁에대한 반대투쟁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제적 직업동맹운동의 혁명적 익축(翼側)과 개량주의적 익축간의 활동에 대한 통일을 설정하려는 쏘베트 직업동맹들의 제안을 접수하였다。그러나 암스텔담 인터나쇼날의 집행위원회는 자기의 대표들이 조인한 조약을 승인하지 아니하였다。이것은 그들이 전쟁위기에 직면해서 팟쇼침략자들을 억제하는 실지적 대책을 취하기를 싫어한다는 것을 또다시 표시하는것이었다。암스텔담 인터나쇼날 령수들의 행동이 그후의 자체의 신용타락과 자체의 파멸로 인도하였다는 것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

× × ×

팟쇼침략자들을 반대한 전쟁과 히틀러독일과 그의 동맹국들을 반대한 투쟁의 근본적총하를 전며

어낸 쏘베트인민의 력사적 승리는 인민들의 의식에 결정적전환을주었다。사회주의제도는 자본주의제도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전세계에 시위하였으며 쏘련의 승리는 수백만의 근로대중의 목전에서 만주주의와 진보적력량의 선두에서 나아가는 쏘베트동맹의위신을 높이었다。광범한 근로대중들은 자본주의적 착취로부터 해방되고 새 전쟁의 위협을 청산하는 유일한 길을 사회주의에서 보고있다。

전쟁은 자본주의적 국가들의 로동운동에 있어서 세력의 중요한 재편성을 이루었다。그 개량주의에 중요한 타격을 주었으며 도처에서 공산주의자들의 력량의 장성을 초래하였다。

「공산당들의 세력은 동구라파에서만 장성된것이 아니라 구라파의 이전 팟쇼가 통치하고있은 (이태리、독일、항가리、불가리야、루마니야、핀란드)혹은 독일 이태리 항가리가 점령한 지대이었던 (불란서、백이의、화란、노르웨이、정말、파란、체코슬로바키야、유고슬라비야、희랍、쏘련、기타) 각나라에서까지 장성되었다。

공산주의자들의 세력장성을 우연한것으로 생각하여서는 안된다。그것은 완전한 법칙적 현상이다。구라파에있어서 파씨즘의 통치가 감행되고있던 곤난한시기에 공산주의자들은 팟쇼제도를 반대하며 인민들의 자유를위한 믿음성있고 용감한 헌신적 투사로 나섰기때문에 그들의 력량이 장성된것이라고 一九四六년二월 쓰딸린동지는언명하였다。공산주의자들의 세력은 전후시기에있어서도 계속장성하고있다。공고한 평화와 인민들의 독립과 자유를 위하여 세계통치를 위하여 새로 나타나는 략탈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의 조건하에서와 또는 서구라파 제국가의「마샬화」와 전쟁정신병의 발동의 조건하에서 공산당들은 군중을 장악하며 로동계급의 다수당으로 변화하여간다。인민민주주의 제국가내의 공산당들과 혹은 맑쓰주의 레닌주의적 원칙에의하여 합당된 로동당들이나 불란서、이태리 또는 기타 다른나라의 공산당들은 이 례로 될수있는것이다。

전쟁의 진행중에와 또는 전쟁의결과 로동계급의 조직성은 강화되었다。생활자체가 로동자들로 하여금 통일조직 또는 군중적단체들의 강화를 촉진시키었다。一九四一—一九四六년기간에 전세계에있어 직업동맹원의 총수는 四천만으로 부터 八천만에 이르기까지 장성되었으며 직업동맹운동에있어서 진보적—민주주의 력량은 발전되고 공고하여졌다。전쟁시기에있어서 분산적이었으며 소수적이었던 인민민주주의 국가들의 직업동맹들은 이나라들의 근로대중을 광범히 포함한 단체들로되었다。파란에서 직업동맹원수는 三백만을 초과하였다。체코슬로바키야의직업동맹들은 약 二五〇만의 맹원을가졌으며 항가리에도 一五〇만여명이있으며 루마니아에서도 一五〇만여명、불가리아는六〇만이명이되다。팟쇼강점자들을반대하는 지하투쟁진행중에있어、「암스텔담월들」이 파괴한 불란서 직업동맹들의 통일이 복구되었으며 五五〇만의 맹원을 단결시킨 총로동평의회가 조직되었다。이태리 로동평의회는 지금 약六백만의 맹원이있다。인도、인도네시아、북아프리카 기타 식민지국가들내에는 대중적직업동맹단체들이 발생되었다。

이 모든것은 근로대중이 팟쇼아만들과의 포악한 전쟁에서 자기에게 가장 중요한 교훈을 받았으며 즉 그들은 파씨즘과 침략의 새세력의 파멸에 대한 결정적 승리를 위하여 또는 근로자들의 근본적 리익을 위하여 투쟁하는 로동계급의 통일과 련대성의 고상한 의의를 리해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여주는것이다。이 원칙에의하여 로동계급의 광범하고 능력있는 새로운 국제적단체의 결성을위한 유리한 조건들이 이루어졌다。직업동맹운동에대한 진보적력량들은 수십년간에있어 이곳으로 진행하고 있었던것이다。三년전 즉 一九四五년에 탄생한 전세계 직업동맹련맹은 로동계급의 통일에대한 강력한 동경(憧憬)의 체현(体現)으로되는것이다。

전세계직업동맹련맹은 단번에발생된것이아니다。발기자들은—쏘베트직업동맹과 기타 진보적 직업동맹 암스텔담 인터나쇼날의 비참한 기억을 회복할것을 추구하고있는 개량주의적 직업동맹 령수들이 지어놓은 적지않은 난관들을 극복하여왔다。그런데 영국 백이의 화란의 직업동맹령수들은 력사의 바퀴를 뒤로 돌리려는 시도에있어서 실패를 보았다。팟쇼침략자들을 반대하여 전쟁한 교전국들의 직업동맹 협조에대한 정치적 또는 조직적 전제조건들이 이미 전쟁시기에 이루어지고있었다。쏘베트인민의 영웅적 투쟁으로인하여 고무된 로동자들은 승리적 사회주의강국의 로동계급과의 우호적 관계설정을 요구하였다。전련맹직업동맹 중앙위원회는 영국、북미합중국、불란서、기타국가들의 직업동맹들과 밀접한 관계를 취하였다。한창 전쟁중에있어 전쟁에서 로동계급의 노력을 집중할것을 목적하며 또는 근로자들의 일반적과업인 전쟁종말을위하여 성과적으로 투쟁할것을 목적으로 내세운 영—쏘、불—쏘、또는 미—쏘 직업동맹위원회들이 조직되었다。영국직업동맹 트레드·유니온의 제七五차및 七六차대회의 지지를 받은 쏘베트직업동맹들의 강경한 요구의 결과로 총회의의 반항을 극복하면서「세계직업동맹 운동의 재조직」을 목적하여 론돈에서 국제직업동맹 대회소집에대한 그의 동의를 얻었다。대회소집의 기한을 련장시키려는 영국직업동맹 트레드·유니온 총회의의수차에 걸친 지도가실패된후 준비위원회가 조직되었으

며 도머어 一九四五년二월에 론돈국제직업련맹대회가 성립되었다。

론돈대회는 최초부터 쏘베트직업동맹이 지도하는 세계적업동맹운동의 진보적인 측(側)과 영국직업동맹트레드유니온령수 또는 그들의 영향하에서 노는 백이의 화란 기타국가들의 직업동맹령수들이 주장하는 개량주의적측사이에 일어나는 투쟁의 활무대로 되었다。개량주의자들은 로동계급의 대중적 또는 투쟁적 능력을가진 국제적단체 조직을 용인하지않고 적업동맹운동을 또다시 암스텔담 개량주의의 습지로 몰아 넣으려고 갖은 수단을 다써왔다。시트린과 기타령수들은 직업동맹의 새 련맹조직과 이태리、불가리야、항가리、루마니야、핀란드 국내에서 파씨즘 붕괴후에 발생된 유일 직업동맹이 그에 가입하는데 대하여 절대적으로 반대하였다。영국 트레드·유니온 총회의는 자기의 새 단체에 가입하는것을 암스텔담의 유산인 국제생산서기국들의 동의에의하여 실시하겠다고 약속하였다。이와 병행해서 이 서기국들을 지도하는 총회의 대표들은 그들이 전세계 직업동맹련맹에 가입하지못하도록 모든 수단을 다써왔다。

개량주의적 적업동맹령수들의 노력은 성과를 보지못하였다。론돈대회는 전세계직업련맹의 새 헌장의 헌장작성에 관한 위원회조직과 직업동맹의 국제대회소집에 관한 결정서를 채택하였다。

一九四五년九월二十五일에 파리에서 전세계직업동맹대회가 개최되었다。대회는 五十六개국 六천七백만의 조직적 로동자들을 대표하였다。十월三일에는 대회에서 전세계직업동맹련맹의 헌장을 일치 가결로 접수하였다。

전세계직업동맹련맹의 구성은 거대한 정치적 사변으로 되었었다。력사에있어서 처음으로 로동계급의 전부를 포옹하는 진정한 국제적단체가 조직되었다。이것은 결코 세력범위가 서구라파와 북미합중국에서밖에는 전파되지아니하였던 암스텔담 인터나쇼날의 잡종적 상층부의 단체가 아니다。전세계 직업동맹련맹은 전세계의 자유적 직업동맹들 그중에는 라틴·아메리카와 대부분의 식민지 반식민지 국가들의 새로운 직업동맹단체들을 통합시킨다。전세계직업련맹에 가입된 단체들은 로동자와 사무원들을 그들의 정치적견해、신앙、민족 또는 인종소속을 불문하고 포섭한다。전세계직업동맹련맹의 외부에는 다만 소소한 련맹을 자기의 적으로 공개발표한 기독교직업동맹의 국제적련합 국제적 생산서기국과 미국로동련맹들이 남아있을뿐이다。

개별적 나라에(불란서、이태리、백이의、서부독일) 존재하고있는 기독교직업동맹들은 항상 근로자들에게대한 자기세력을 펴치기위해서 군중적 토대를 조성하려고 시도한 카토릭교적 반동의 무기로

되어있었다。로마법왕청과 미국독점의 지도와 보조금을 받는 기독교 직업동맹들은 전후시기에 있어서도 로동계급의통일과 그의 중대요구를위한 계급투쟁을 반대하여 출연하며 자본과 반동적 팟쇼당들과의 협조에대하여 선동하고있다。불란서 기독교근로자련맹은 도골의 지지자들과 반동적 천주교당의 정탐이다。一九四七년十一월 총과업당시에 불란서 기독교근로자련맹은 일상적 경제적요구와 민주주의적 자유를 위한 로동계급의 통일적 출연에 참가하기를 거부하고 파업 파괴자의 태도를 취하였다。전세계 기독교근로자련맹의 지도자들은 一九四八년十월四일에 시작된 광산로동자들의 파업당시에있어서도 이와같은 로선을 취하고있었다。그러나 이단체의 보통맹원들은 다른 로동자들과 함께 파업에 참가하고있다。이태리에있는 소위「이태리천주교근로자련맹」에 련합한 직업동맹들도 이와같은 파업 파괴자의 역활을 놀고있다。천주교직업동맹들은 최근까지도 뭇쏘리니의 독재주의를 전복한후에 조직된 통일적 이태리 총로동련맹에 가입하고있었다。그러나 최근에와서 데까스뻬리―세르브의 반동적 정권이 지지하는 이태리천주교근로자련맹의 상부층은 로마법왕청과 미국로동련맹에서의 자기의 친우들의 직접지시에의하여 총로동련맹의 분렬을 실시하였다。그러나 직업동맹직원의 소부분만이 분리자들을 따라갔던것이다。천주교도 로동자들은 다른 로동자들―공산주의자들과 또는 사회주의자들과 손을 잡고 이태리의「마샬화」를 반대하는 투쟁에서 통일과 민주주의적 자유를 옹호하여 나서고있다。

천주교적 반동과 그의 미국보호자들은「기독교」직업동맹의 원조하에서 군중속에 자기의지주(支柱)를 세울것을 크게 희망하였던것이다。이 희망은 실현되시 못하였다。로마법왕청에서 전세계 직업동맹련맹에 대립시키려고 하였던 소위 기독교직업동맹 인터나쇼날은 광범한 세력을 가지지못하였으며 또는 전세계에있어서 一―二백만여명의 맹원밖에는 되지않는다。

전세계직업동맹련맹은 로동계급의 절대 다수를 통합하고 있다。전세계 직업동맹련맹이 존재하고 있는 三년간에 있어서 그의 맹원수는 七、一五〇만명으로 장성되었다。이외에도 전세계직업동맹련맹의 세력하에 독일직업동맹들(약九백만명)과 일본직업동맹들(四―五백만명)이있다。

파리대회의 결정서에와 그가 접수한 헌장에는 전세계근로자들의 희망과 기대를 반영한 전세계 직업동맹련맹의 목적과 원칙이 진술되어있다。

이것은 우선적으로 공고한 평화 파씨즘의 결말의 완전한 청산과 민주주의승리를위한 투쟁이다。전세계직업동맹련맹의 근본적 파업들을 례거하면서 헌장은 새전쟁에 관심을 가진 반동세력을 반대하여、로

동계급의 강력한 투쟁에 대한 필요성과 「모든 팟쇼형식의지배 또는 파씨즘의 어떠한 현상이든지、그것이 어떠한 형식에서 나타나든지、또는 어떠한 명칭을 가지었든지간에 완전히 청산하기위한」투쟁의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전후평화건설에 대한 이 중심적 과업에서 출발하여 파리대회와 또는 그 전에 있은 로동국제직업동맹대회는 독일문제에대하여서 특별한 주목을 경주하였다。「직업동맹들은 독일무장해제와 비무장화에 절실히 관심을 가지어야되겠다고 로동대회의 특별결정서에는 씌어있다。」대회는 독일의 장래 구성에대한 삼대강국의 얄타선언을 환영하였으며 또는「전쟁당국이 독일의 무장해제、그의 모든 군력해체 및 전쟁열의 군사시설의 몰수와 청산에대한 모든 필요한 대책을 취하리라는것」에 관해서 자신을 표명하였다。

파씨즘과 세전쟁위험을 반대하는 투쟁은 국제적 독점(獨占)동맹을 반대하는 투쟁의 과업과 불가분적 관계를가지었다。「직업동맹운동은─론돈대회의 결정서에 지적하기를─시장을 위한 독점권의 투쟁은 전쟁의 근본원인중 하나이라는것을 잊을수없다。그렇기때문에 국제대회는 사회의 리익에 반대되는 행동을 취하는 국제적 카르테르(가격협정)와 독점권의활동에대한 조사 또는 중지를 실천하는것이 총회(유·엔총회를 말하는것)의 첫째 의무중 하나인것으로 인정한다。」결정서는「경제적착취권(圈)으로서의 예속적또는 노예적국가들에게대한 식민지제도를 철폐하여야된다는것을」또한 요구하는것이다。

헌장의 이 근본적원칙에 인도네시아、월남、희랍、빠레스치나 각국에서 제국주의자들의 무장간섭을 무관심하게 보고만있으며 자기정부의 침탈주를 지지하며 악명높은「마샬안」을 구라파에 강요하도록 미독점국(米獨占國)에 협력하는 영국 트레드유니온의 총회의 북미합중국 생산직업동맹회의 및 기타단체 지도자들의 태도는 헌장의 이 근본원칙에 확실히 모순된다。

전세계 직업동맹련맹은 진보와 장성되어가는 민주진영의 거대한 부대중의 일개부대로서 로동계급의 근본적 경제적 및 사회적 요구를 위한 투쟁을 자기의 가장 중요한 과업으로 인정한다。 파리대회는 론돈대회에서 직업동맹의 권리와 자유에대하여 작성한 헌장을 만장일치로 승인하였다。 거기에는 세계직업동맹운동의 경제적 사회적 요구가 뚜렷이 나타났다。 헌장에는 아래와같은 근본적요구들이 포함되어있다。 즉 카르테르와 트러쓰트(企業合同)의 세력을 반대하는 투쟁「생산발전과 민주주의제도 및 민족안정에대하여 위협으로」변화한 독점권에대한 통제、산업의 국유화、전체근로자들이 만족한 임금을 받을만한 로동보장 국가사회보장에대한 일반적·제도 수립(주지하는바와같이 이것은 다수 자본주의적국가에는없는일이다) 로동주간(週間)의 겸소화 로동자들에게 매년 휴가부여、근로자들의 주택─생활상태에대한 조건의 향상、직업동맹의 원리와 자유의보장 및 기타등이다。

로동계급의 경제적 및 사회적 요구에대한 이 최저강령의 실천은 매개 국내에서와 국제적범위에 있어 직업동맹 통일보존강화하는 조건하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그렇기때문에 통일을위한 투쟁은 세계직업동맹련맹의 활동에대한 기석(基石)이되는것이다。

국제직업련맹에 체현(體現)된 직맹운동의 통일은 직업동맹들의 활동에 기초가되는 광범한 민주주의의 원칙에 의존하는것이다。이 원칙들은 쏘련직업동맹들의 일상적활동에서 저적표지를 다닮대고 있다。「직업동맹들내에 있어서의 민주주의」는─즉 그것은「동맹내부에있어서 무산계급적 민주주의의 정칙적(正則的) 방식이라고 칭하게되었다。─직업동맹들에 가입하고있는 수백만 로동대중들에대한 계통적인 설복(說服)방법의 적용이 가지는 필요성과 유익성의 자각을 예상하는 로동대중 단체의 자각적 민주주의를 의미하는것이다。이와같은 자각이없이는 민주주의라는것은 공허한 음성이라고 쓰딸린 동지는 벌써 一九二一년에 썼다。」(전집 五권 四五페지)

쏘련의 직업동맹들은 민주주의를 자기의 내부적생활에있어서만 기초라고 인정하는것이아니라 국제직업동맹운동의 중요한 원칙으로도 인정한다。 즉 직업동맹통일의 적들이 쏘베트 직업동맹들은 자기의 견해를 전세계직업동맹련맹에 강요하려는 의도를 가졌다고 하는 허위 중상에 대답하여 전련맹직업동맹중앙위원회는 바로 이 원칙에서 출발되어 一九四八년二월二十七일에 쏘베트직업동맹들의 선언서에「마샬안」에 관한 문제에대하여 성명하였다。

「전련맹직업동맹중앙위원회는 전세계 직업동맹련맹에있어서의 로동계급의 국제적통일은 로동계급의 생활 수준의향상에대한 목적을 추구하며 로동자들의 비정당단체인 직업동맹들의 지원과 자유적 협조에 기인한것으로인정한다。그렇기때문에 쏘베트직업동맹들은 정치적 단체가아닌 직업동맹들을 정치적 유희와 정치적간계(奸計)의 부대로 변하게해서는안된다고 생각한다。 직업동맹운동통일의 파괴를 두려워하여 영국에서 영국로동당원이나、또는 공산당원에게、미국에있어 미국공화당원이나 또는 민주당원에게、불란서와 이태리에있어서 천주교도나 또는 공산당원들에게 찬성투표하는것을 직업동맹들에게 금지하여서는안된다。이와 마찬가지로 세계직업동맹운동의 통일에대한 파괴를 감행하지않으며「마샬안」을지지하며 또는 그것을 반대하며 거수하는데 대하여 직업동맹들을 금지하여서는 안되는것이다。각국위원

업동맹 중앙은 어떠한 문제에있어서든지 자기 의견발표에 자유가 있으며 또는 적당한 결의를 취함에있어도 자유인것이다。」

× × ×

전세계직업동맹은 그가 존재하고있는 三년간에 자기의목적 실현에서 커다란 성과를 얻었다。

전세계직업동맹련맹은 독일에있어서 팟쇼잔재를 근절하는데와 또는 一독일의 민주화를위한 투쟁사업에 기여하였다。 전세계직업동맹련맹의 여러 위원회의 독일 점령지대려행, 나치즘의잔재와 영향의 근멸하는 투쟁에대한 구체적문제들의 통제의회에의제기, 독일 자유직업동맹의 조직에의 참가 또는 전세계직업동맹련맹의 총의회와 집행위원회에 대한 기타 대책들은 독일사회의 진보적 민주주의적분자들을 조직하는 사업에 적지않은 원조를주었다。

전세계직업동맹련맹은 일본의투항에대한 조건에관한 포츠땀선언 실천과 이 나라에있어서 자유적 직업동맹운동의 조직을 위하여 열성적으로 투쟁하였다。 그러나 미국점령군 사령관 맥아더의 반민주주의적 태도로 인하여 一九四六년도에 일본을 방문한 전세계직업동맹련맹대표단이 일본직업동맹운동의 통일과 국가민주화에 적극 참가할것을 제안한것은 실천되지않았다。 그러나 산업별 직업동맹평의회에 통합된 수백만의 일본 로동자들은 반동정부와 점령당국을 반대하여 또는 직업동맹운동의 자유와 권리를 위하여 일상적으로 투쟁함으로써 전세계직업동맹련맹의 호소에 호응하고있다。

전세계직업동맹련맹은 파씨즘과 전쟁방화자들을 보호하며 최근에있어 극심하여가는 반동세력에 대항할데 대하여 로동계급에게 수차 호소하였다。 一九四六년七—八월간에 전세계직업동맹련맹이 프랑코 서반아를 반대하여 진행한 국제적 대중운동과 회랍, 이란, 포로트가로및 기타국내에서 팟쇼—군주주의자들의 반동의 횡행을 반대하여 항의한것등은 로동계급의 광범한 층에서 전세계직업동맹련맹의 위신을 제고시켰다。

전세계직업동맹련맹은 독점자들과 자본주의국가들의 정부에게 무례하게 유린된 민주주의적권리 특히 직업동맹의 권리를 옹호하여 음성을 높이지 한두번만이 아니였다。 현재 미국 영국 지도자들의 팽창정책과 광포한 군비확장으로 인하여 근로대중의 생활수준과 민주주의적 자유에대한 독점귀의 공세는 국도로 강화되었다。 독점자본과 전쟁방화자들의 공격에 대립하는 직업동맹들은 특별히 심한 탄압을 당하고있다。 서반아, 포르트가르, 회랍, 인도, 국민당중국, 극동 및 라틴·아메리카의 각나라에서의 직업동맹활동가들에게대한 가장 야만적 태도와 직업동맹의 자유탄압에대한것을 매일같이 출판물들은 보도하고있다。 파업로동자들을 불대하여 경찰과 군대를

사용하고있는 북미합중국(타프트·하토리의 노예법령)이태리 및 불란서에서는 직업동맹의 권리와 자유는 위기에 처하고있다。 一九四八년五월에 로마에서 소집되었던 전세계직업동맹련맹 집행위원회의가 직업동맹의 자유를 말살하려는 시도를 반대하는 투쟁에 로동계급의 전력량을 동원함이 필요하다는 특별 결의를 채택한것도 괴이한 일은 아니다。

평화와 근로자들의 근본적 권리를위하여 투쟁하면서 전세계직업동맹련맹은 유·엔에서 쏘베트동맹대표의 직접지지하에 유·엔과의 관계와 협조설정을 백방으로 애써왔다。 미국과 영국대표들의 강경한 반항으로인하여 전세계직업동맹련맹은 유·엔에 편한된 세계로동계급의 완전한 가치있는 대표단을 설치하는데 실패하였다。 그러나 그는 소위 비정부단체로서의 권한을 가지고 경제 사회리사회의에 자기의 제안을 제출하는 제한된 권리만을 가지게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세계 직업동맹련맹의 지도기관들은 유·엔 경제 사회리사회의에 전세계근로대중을 불안하게하는 많은 문제들을 제기하였다。 즉 유·엔위원들 자체에 관계되는 직업동맹의 자유와 권리 보장에대한 보통규정 초안 또는 동일한 로동에있어 남자와 녀자에게 동일한 임금보장, 민족과 인종차별의 청산 및 트러스트(企業會同)와 독점권동과의 투쟁등에대한 권고등이다。

그러나 유·엔기구내에서 영 미 다수파는 전세계직업동맹의 정당한 요구에 대한 토의를 각방면으로 방해하였다。 례를들면 전세계직업동맹련맹이 직업동맹들의 권리에 대하여 제의한 규정초안 토의에 있어서도 그리하였던것이다。 쏘베트동맹과 인민민주주의국가들의 대표의 반대적 활동에도 불구하고 경제사회리사회의는 규정초인을 고용주와 정부측의 대표들이 대다수의 투표권을 장악하고있는 국제로동국에서 심사하도록 그에게 넘겨주었다。 국제로동국은 전세계직업동맹련맹의 제안을 부인하고 그것을 협회들의 자유에대한 규정으로 교환하였다。 거기에는 직업동맹들의 권리에대해서만 언급한것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주지하는바와 같이 자본주의적 국가들내에서 활동의 전적 자유를 부여한 고용주 단체들에 대하여 언급한것이다。 남녀로동에대한 동일임금제에 관한 문제의 토의에있어서도 이렇게된것이다。 다만 쏘련대표와 인민민주주의 국가의 대표들이 강경히 주장한 결과 미국과 영국대표들의 반항을 극복하였다。 전세계직업동맹련맹의 제안은 대체적으로 접수되었다。

전세계직업동맹련맹의 활동은 무산계급통일의 적분파의 계속적 투쟁의 조건하에서 전개된다。 이중에는 전세계직업동맹련맹에 가입한 단체들—영국 트레드유니온회의, 미국 생산직업동맹회의 및 기타—

의 특히 최근에와서 열성적인 개량주의의 수령들과의 투쟁을 의미하는것이다. 개량주의자들은 각방면으로 전세계직업동맹련맹의 실제적활동을 조애하며 그들의 참가로써 합의되어 채택된 결기를 파탄시킨다. 례를들면 직업동맹통일의 회복과 독일에있어서 자유직업동맹들의 중앙회의 조직, 전세계직업동맹련맹에 국제생산서기국 가입, 아세아의 직업동맹 대회 소집, 제二차 직업동맹 국제대회 소집등에 관한것이다. 그러나 전세계직업동맹련맹은 오늘까지 통일을 성공적으로 수호하고있다. 그것을 수호하는 초소에 쏘련의 직업동맹과 기타 진보적 직업동맹들이 구준히 서있다. 국제 민주주의 통일단체의 범위에서 근로자들의 협조가 완전히 가능하며 또는 필요하다는것을 사실이 증명하였다. 전세계직업동맹련맹의 지도기관들의 모든 결정이 일치가결로 통과되었다는 그 사실은 그에가입된 직업동맹단체들의 일치적 결의와 동작에 지향하였다는것을 증명한다. 전세계직업동맹련맹은 국제로동계급의 성새(城塞)이며 인민의 안전과 평화의 강력한 요소이며 근로자들의 자기의 주요 리해관계와 민주주의적 권리와 자유를 위한 투쟁의 무기로 되었다. 로동계급의 국제적 통일을 체현하면서 전세계직업동맹련맹은 북미합중국과 영국의 현지도자들의 침략적 모략과 새전쟁 조발 또는 인민들의 자유와 독립의 말살을 기하는 세계반동의 계획을 실천하려는 길에 놓인 중대한 장애물로되어있다. 이렇기때문에 전세계직업동맹련맹을 파괴하려하며 그의활동을 고립시키며 그의통일을 파괴하며 미국제국주의자들에게 복종시키려는 새 단체를 조직할 강경한 시도가있는것이다. 이 시도는 최근에있어서 자기의 반영을 직업동맹운동에서 나타내고있는 제국주의 진영과 반제국주의 진영 사이에있어서의 투쟁의 격렬한 첨예화로인하여 장화되었다.

미국로동련맹은 현단계에있어 로동운동에있어서의 미국제국주의자들의 근본적 옹호자로 되었으며 로동계급 분렬에대한 중요무기로되고있다. 이미 一八八一년에 발생된 이 낡은단체의 상부층은 군중적 로동운동을 반대하는 투쟁에 독점의 밀정으로 되어있다. 미국로동련맹의 수령—홈페르스와 기타에대하여서—레닌은 벌써 一九二〇년에 이렇게 저술하였다. 「그들은—「우리의 주바토브에 비해서 그들의 비렬한 정책을 지행하는 방법에 있어서 서양식양복과 광택(光澤)으로 문명적 교묘한 민주주의적 장식의 수단으로써 살이있는 틀림없는 주바토브들이다.」 (레닌전집二十五권 一九九페지)

로동운동의 모든 단계에 있어서 이 반역적 도배는 로동계급의 근본적 리익을 반대하여 나아가는 미국로동련맹의 협소한 직장성격을 주장하여 독점

자본의 리익에 직업동맹을 예속시키기 위하여 공개적으로 투쟁하였으며 파업 파괴자들과 직접적 반역의 무기로되어있었다. 一九四七년도에 발행된 「미국직업동맹운동」이라는 책에 미국공산당위원장 포스터는 홈페르스와 흐린의 활동을 이렇게 특징 하였다. 「자본주의의 솔직한 지지자들인 미국로동련맹—수령들은 사회민주주의의 가장 「기회주의적」 경향식까지도 항상 반대하였다. 그들은 로동당 조직을 반대하여 투쟁하였으며 또는 그들의 정책은 대자본주의적—정당들의 세력범위 내에서 로동자들을 파악하려고 하는것이다. 트러스트화된 공업국가 내에, 서……직장직업동맹들에 대한 낡은 제도를 강경히 견지하고있는 그들은 진정한 「부르죠아의 로동자 소위(少尉)들」인것이다.

미국로동련맹의 상층부와 자본주의적 독점권 또는 국가기관의 도배들은 현단계에있어 미국 국무성의 직접 밀정으로 있으면서 세계지배권에 대한 미국 강요자들의 모든 대외정책의 모험에 열성적으로 참가한다. 국무성의 금전을 널리 사용하면서 미국로동련맹의 수령들은 세계 로동운동의 분렬을 목적으로한 「트루맨주의」와 「마샬안」에 유리하도록 열성적으로 국제활동을 전개하였다. 미국로동련맹의 순백만의 관료들은 「마샬안」의 실천을 위하여 파리에 근거한 행정기관 내에서 사용되고있다.

미국로동련맹의 국제적 「활동」은 각종 방향에서 발전되고있다. 한편 그의 밀사(密使)들은 각종 직업동맹단체에서 분렬을 조직하며 파업 파괴자들의 집단과 중심을 부패시킬것을 시도하고있으며 또는 「반공산주의적」 새로운 직업동맹련맹의 수립을 위하여 지반을 준비하고있다. 금년 봄에 로마에서 분리파 신자들의 대회가 소집되었다. 이 대회에서는 미국로동련맹의 보호하에있는 라틴·아메리카의 새 「직업동맹련맹」의 기초를 놓았다. 이 련맹은 一九三八년에 조직된 라틴·아메리카의 진보적 근로자 동맹의 주위에 단결된 二十개의 라틴·아메리카공화국의 로동운동을 분렬시킬 목적을 자기 앞에 내세웠다.

一九四七년—一九四八년간에있어 미국로동련맹은 서구라파에있어 분리파신자(分離派信者)들의 중심을 수립하기 위하여 많은 대책을 취하였다. 시초에 미국로동련맹의 밀사들은 국내에서 많은 분렬을 실시하였다. —불란서에있어 레온쥬오 「폴쓰우브리에트」의 파업, 파괴집단조직, 이태리에있어 전국로동평의회에서 기독교 직업동맹의 분리, 백림직업동맹 내에서 반대파 조직등이다. 정부와 미국로동련맹에서 재정보조를 받는 「폴쓰우브리에트」파는 불란서의 마샬화에대한 중요한 선전원들중의 하나이며 「二〇〇가족」의 현 불란서 정부의 대내 대외정책을 천

적으로 지지하고있어。광산로동자들의 총파업 당시에 주오와까의 행동은 근로대중의 심한 분개를 초래하였다。파업로동자들께 대한 슈리모크의 경찰탄압이 한창 강력한 그당시에 파업중지에대한 호소는 지도층의 지시 실시를 거절한「폴쓰우브리에트」의 보통회원들에게 까지도 좋지못한 인상을 주었다。「미국당에」복종하는자들의 이러한 역활을 이태리에 있어서 천주교직업동맹 련합들이 또한 놀고있었다。분리파신자들의 이러한 반역적 정책이 적업동맹원 대중속에서 통속화 하지 못하였다는것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미국직업동맹련맹 및 정부기관들의 딸라의 지지를 받고있는 사소한 분리파신자들은 불상한 존재로 되고있다。그러나 미국로동련맹은 그들을 서구라파에 있어서 분리파신자의 가장 광범한 련합의 핵심으로 리용하고있다。

영국 트레드유니온의 수령들과 베네룩쓰제국「백이의」화란、룩셈부르그」직업동맹의 지도자들의 직접지지에 의하여 추린 또는 그의 밀사들이 구라파에있어서 一九四八년도 봄과 여름에「마샬화」한 영국、백이의、화란、노르웨이、서전、비죠니아、또는 기타 국가들의 직업동맹 상부층의 동맹을 조직하였다。一九四八년三월十일—十五일 경에 진행되었던 十六개국의 론돈 단독 직업동맹대회에서 전세계 직업동맹련맹의 적인—미국로동련맹과 전세계 직업동맹련맹에 가입한 영국 트레드유니온회의와 북미합중국 생산직업동맹회의 및 기타 직업동맹대표들이 협조하는 소위 철의위원회가 구성되였다。최근에와서 이 새 분렬활동 중심의 장소는 파리로 이전되었다。여기에는 (「마샬안」실천에 대한 행정청인)호프만—하리만의 기관이 집중되어있다。특징적인것은 제二차 유•엔총회회의에서「마샬화」할 나라들의 직업동맹「대회」가 파리에서 개최되었다。이 대회에서 미국무장관 마샬은 연설하였다。이와동시에 파리에서 동구라파 각국에서온 거주민 집단회의가 소집되었다。이 회의에서 인민민주주의 제국가내에서 정탐 또는 파괴사업을 조직할 목적을 자기앞에 내세우는 팟쇼적「직업동맹」의 중앙조직을 형성하였다。

라틴•아메리카에서와 서구라파에서의 파괴적 활동과 함께 미국로동련맹의 수령들은 세계 직업동맹련맹이 거대한 세력을 가지고있는 아세아와 극동 식민지 반식민지 국가들 내에서 자기들이 의뢰할만한 지반의 조직에 착수하였다。최근 수개월간에 있어서 파업 파괴적 어용「직업동맹들」이 미국로동련맹의 원조 하에서 국민당 중국、인도、이란、일본、및 기타 각국에 조직되었다。금년 하기에 쌍프란씨스꼬에서 국제로동국의 정기회의시에 미국로동련맹의 수령들은 아세아의 각나라에있어 직업동

맹운동의 분렬과「반공산주의적」직업동맹조직에 대한 사명을 부담시키는 소위 아세아직업동맹위원회를 조직하였다。라틴•아메리카、서구라파、및 아세아에있어서 미국로동련맹의 三개거점 형성은 미국제국주의자들과 그들의 봉공인들이 세계직업동맹련맹과 대립하여 새 국제적 직업동맹련합을 조직하려고 시도하는것을 의미한다。

미국로동련맹의 분렬에대한 활동이 최근에와서 이렇게 광범위에 이르게된것은 세계직업동맹련맹 내부에 강경하고 심혹한 투쟁에서 전취한 직업동맹통일을 분렬시키려고 의도하는 집단들이 있었기 때문이다。이것은 무엇보다도 먼저 영국 트레드유니온의 총회의의 수령들과 또는 그들과 함께 동작하는 서구라파 다른 직업동맹중앙의 지도자들을 말하는것이다。초시기에 전세계 직업동맹련맹내에 분리파신자들은 로동계급의 국가적 통일을 반대하는 모략에 자기의 참가를 엄밀히 은폐하였다。

그러나 비밀은 감추기 어렵다。一九四七년도말에 워싱톤에서 개최된 영국외무성 대표들의 회의에서 미국로동련맹 수령들간에 전세계직업동맹련맹을 반대하는 공동투쟁에관한 협정이 체결되었다는 보도가 외국 또는 쏘베트 출판물에 발표되었던것이다。베빈의 밀사들은 트레드유니온 총회의의 수령들에게 생산직업동맹회의와 함께 전세계직업동맹련맹의 분렬을 책동할것을「권고」하는 사명을 자기에게 부담시키었다。자기정무의 의사를 완수하면서 트레드유니온 총회의와 생산직업동맹회의의 수령들은 전세계직업동맹련맹의 통일을 공개적으로 반대하여 공격하였다。불화(不和)의 씨로서는 련맹지도기관 내에서 악명높은「마샬안」에、대해서 필연코 심의 될것이다。

서구라파의 직업동맹 그 동시에 영국자체의 직업동맹의 하급맹원 대중의 기분을 조금도 돌보지 않고 영국 트레드유니온과 생산직업동맹회의의 대표자들은 전세계직업동맹련맹을「마샬안」에대한 선전무기로 만들려고 시도하였다。파리에서 개최된 절세계직업동맹 집행부 十월회의에서 생산직업동맹회의 대표 캐리와 오르센브룬은 구라파에있어서의「미국원조」안에 대한 즉시 토의와 그의 접수에 대하여 요구하였다。그러나 그들의 요구는 거부당하고 말았다。

파리회의에서의「마샬안」선전원들의 실패는 전세계직업동맹련맹의 지도부를 반대하여 특히 쏘베트 직업동맹을 반대하여 일어나는 무제한적 운동의 시초로 되었다。그들은 쏘베트직업동맹이 련맹을「마샬안」과 투쟁할 목적에 리용하려고한다고 하였다。이와함께 전세계직업동맹련맹의 분렬에 대한 구체적 방책들이 서고있었다。영국 외무성과 미국로동

련맹간에 체결된 협정실행을 위하여 론돈에서 「마샬
화」한 국가들의 직업동맹 단독대회 소집에 대한 준
비공작이 시작되였다。「마샬안」에 관한 문제에 대
하여 상극한 쏘베트직업동맹。선언서에서 영국 트레
드유니온총회의의 단독적 행동과 또는 미국로동련
맹과의 그의 상호 우정은 전세계직업동맹련맹의 통
일에대하여 중대한 손해를 가져온다는것을 지적하
였으나 대회는 전세계 직업동맹련맹을 걸치지 않고
소집되였다。그러나 쏘베트직업동맹과 기타 직업동
맹들의 항의는 로마에서 개최되였던 전세계 직업동
맹련맹 집행위원회 회의에 일정한 희망을 가지였
면 론돈대회 주동자들을 제지하지못하였다。
그들은 개별적 직업동맹중앙들 사이에 존재하고
있는 모순들은 타개하지 못할것이라고 생각하였으
며 또는 전세계직업동맹련맹의 분렬을 예언하였다。
집행위원회 회의가 개최되기 오래전부터 벌써 반
동출판물은 전세계직업동맹련맹의 통일을 유지할 가
능성이 없다고 사회여론을 설복할것을 시도하여왔
다。미국「유니온 헤랄드 트리뷴」영국「타임쓰」및
이태리 반민주주의적 출판물등은 이 생각을 일치
하게 독자들께 고취하였다。회의를 전후하여 로마
의 기독교—민주주의적 또는 사라가트출판물은 전
세계직업동맹련맹와 통일을 반대하는 자기운동을 강
화하였다。그는 집행위원회 회의주위의 공기를 험
악하게 하기위하여 모든 허위적 보도를 발표하였다。
一九四八년五월三일에 사라가트 선문「우미니타」
는 생산직업동맹화의 대표들을 전세계직업동맹련맹
의 분렬에 대하여 구라파에서 직접책동하는 미국
로동련맹의 유명한 밀사 엎원호 브라운의 성명을
보도하였다。
이러한 분위기하에서 전세계직업동맹련맹 집행위
원회의 회의는 개최되었다。진보적 세력과 개량주
의적 세력간에 강력한 투쟁이 전개되고있는 환경
에서 진행된 로마회의의 十월간에 걸친 사업은 반
동과의 희망을 실현시키지않았다。분리파들은 로동
계급의 국제적 통일을 구원하려는 회의 참석원 대
다수의 결단성앞에서 필연적으로 퇴각하지 않을수
없였다。전세계직업동맹련맹은 또한번 중대한 시련
에 능히 견디어 냈으며 또는 계속적 론쟁을 통
해서 유일하고 전투력있는 단체로 나타났다。
세계직업동맹운동에 관한 각종 문제에 대하여 회
의에서 일치가결로 채택된결의—전세계직업동맹련맹
의 정책과 행정에관한것、생산부에대한것、독일에있
어서의 직업동맹 운동 및 기타문제—는 유일적 전
세계직업동맹련맹의 범위내에서 각종 방향을 가진
직업동맹들의 앞으로의 협조를 위한 새로운 기회
를 열어주었다。직업동맹의 광범한 맹원대중은 로
마회의 결정을 찬동하였다。그들은 이결정서에서 로

동계급의 국제적 통일의 보존 강화에대한 보장을
본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영국 트레드유니온의 회의 수령
들과 그들의 지지자들께 만족을 주지아니하였다。
그들은 새 책동을 취하기 시작하였다。그들은 전
세계직업동맹이 순전한 정치적 단체로 변하였으며
또는「공산주의적 선전」도구로 되어있다고 떠들고
있다。九월초순에 소집되었던 영국 트레드유니온 정
기대회에서 지킨은 자기가 지도하고있는 전세계직
업련맹에대해서 충성을 다할것을 확인하는데 관한
제의는 지킨파 티유손(영국트레드 유니온회의 책
임비서)의 진력으로 파탄되고 말았다。영국과 미
국 부르죠아 출판물들은 지킨과 그의 친우들의 책
동을 찬성 환영하였으며 세계직업동맹 운동
의 통일에 방해되는 장래 활동으로 그들을 교사
(敎唆)하였다。
一九四八년九월十六일에 파리에서 전세계직업동맹
련맹 집행부 정기회의가 개최되었다。회의에서 영
국 트레드유니온 총회의의 대표들의 전술은 전세
계직업동맹련맹 지도기관의 실제적 사업을 파탄시
키려는데 있었다。독일직업동맹、아세아직업동맹대회、
전세계직업동맹련맹에서 국제생산 서기국들의 가입、
제二차전세계직업동맹대회동 기타에 관하여 이미 채
택하였던 전세계직업동맹련맹 집행부와 집행위원회
의 결의를 거부한 영국 트레드유니온총회의의 대
표들은 전세계 직업동맹련맹 행정당국의 활동을 결
정적으로 마비시키려고 시도하였다。쏘베트직업동맹
대표들의 진력으로 분렬에 대한 위협성이 방지되
었다。
그러나 집행부회의 이후로 금년十월二十七일에 영
국 트레드유니온총회의는 전세계로동자들간에 법적
불안을 환기하는 결의를 채택하였다。이 결의의 본
질은 다음과 같다。총회의는 림시적으로(一년간) 자
기 사업을 중지할것을 전세계 직업동맹련맹에게 권
고하였다。이 결의안의 작자는 전세계직업동맹련맹
와 장래식 까지 자세하 작성하였다。그들은 이것
을 림시적 그의 마취라고도 칭하였다。그들은 전
세계 직업동맹련맹의 재산에대한 후견을 위하여 五
개의 큰 직업동맹의 대표들로써 후견회의를 조직
할것을 제의하였다。련맹의 활동 재개에관한 문제
를 결정하기 위하여「쏘련이 허락하는대로」후견회의
는 十二개월 후에나 또는 더 일찍기 반드시 소
집하여야할 것이다。결의안에는 만일 총회의의 제
의를 련맹이 거부하는 경우에는 영국 트레드유니
온이 전세계직업동맹련맹에서 탈출할 위험성을 표
시하였다。
十월二十七일부 영국 트레드유니온총회의의 결의
가 전세계직업동맹련맹과 또는 그에 가입한 어떤

직업동맹 중앙들의 활동에 결코 작용하지못했다는 것은 더말할 것도없다。련맹에 가입한 진보적 직업동맹 첫째로 쏘베트직업동맹들은 영국 트레드유니온회의와 협조할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자기의 책임을 다 지키어왔다。

一九四八년十월二十七일부 영국 트레드유니온총회의의 성명서에는 자기의 결의에 대하여 전세계직업동맹 내부에 의견불일치가있는것과 그의 활동을 위한『전전한 기초』가없다는것으로 리유를 붙이였다。의견 불일치가있는것을 각국직업동맹들의 협조에 대하여 극복하지못할 장애물로 된다고 인증하는것이 정당할것인가? 그것은 옳지않다。一九四八년 十一월十四일에 쏘베트 출판물이 발표한 전련맹직업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웨·웨·꾸즈네초브의 성명서에는 전세계직업동맹련맹 내부에서 약간의 문제에 대하여 각종 견해가 있는것은『자연한 일이다。왜 그러냐하면 련맹은 자기의 대렬에 인종、민족、신앙、정치적 사상에 대한 구별이 없이 세계직업동맹들을 련합시킨 때문이라고』지적하였다。그러나 웨·웨·꾸즈네초브동지는 또 지적하기를『어떤 문제에있어 각종 견해가 있는것은 련맹에있어서 천혀 피치못할 또는 극복하지못할 의견 불일치라고는 보지않으며 또는 전세계직업동맹련맹의 활동을 중지할것과 또는 거기에서 어떤 민족적 직업동맹 중앙들이 탈출할 원인으로 될수없다。』고하였다。

전세계직업동맹련맹의 三년간의 활동은 만일 전세계직업동맹련맹의 현장에 있는바와같이 건전한 기초에서 이 국제적 협조가 출발하여 그리고 로동계급과 근로자들의 공동적 리익에 전적으로 의거한다면 직업동맹들의 국제적 협조의 실천에 대하여 각종 견해가 현존함은 방해가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적으로 증명하였다。전세계직업동맹련맹은 헌장과 전세계직업동맹대회 및 지도기관들이 채택한 결의에 의거하여 자기의 사업을 조직하였으며 또는 결정적 성과를 달성하였다。만일 최근에있어서 련맹의 사업이 큰 성과를 얻지못하였다면 즉 여기에대한 원인은 어떠한 의견 불일치가 있다는 거기에있는 것이아니라 그것은 영국 트레드유니온총회의의 대표들이 련맹의 현장을 존중히 여기고 또는 그의 정신에서 활동할 의사가 없다던 그점에 있는것이다。

이와 같이 총회의가 자기 결의에 대하여 국제적 단체의 력사상에 전례없는 론거에 인용(引用)한 리유들은 확실히 납득·할수없는것이다。짐작하건대 총회의 수령들은 어떠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모양이다。거기에 대하여서는 그들이 침묵을 지키고있다。총회의 대표자들이 강국들·사이에 의견 불일치가 존재 하고있는한 전세계직업동

맹련맹의 통일은 가능성이없다고 수차 성명한것은 우연한 사실이 아니다。이 리유의 모든 불합리성을 증명하기는 어렵지않다。사실에 있어서 무엇때문에 로동계급의 국제적 통일을 체현(体現)한 전세계직업동맹련맹의 활동은 반드시 강대국 정부들의 상호관계에 의존하여야만 될것인가? 국제로동계급은 전세계직업동맹련맹 헌장에 정확히 씌어있는 공통적 목적과 과업을 가지고있는 것이다。자본주의적 독점권의 침해로 부터 근로자들의 중요 리익을 옹호 하는것과 또는 세계전쟁방화자들을 반대하며 평화를 위하여 투쟁하는 것이 과연 개별적 국가 정부들의 외교정책에 의존함이 없이 각국직업동맹들의 긴급한 과업이 될수 없는것인가?

강대국들 간에 의견차이가 있기 때문에 전세계직업동맹련맹의 활동을 중지하고있다。영국 트레드유니온총회의의 수령들은 련맹이 정부들께 의존함이 없이 독립적으로 현재 실시하고있는 정책에 불만을 자지고있는 모양이다。그들은 전세계직업동맹련맹이 자기의 정책과 활동을 영국이나 미국 량국중의 어느 한나라의 리익에 복종시키기를 원한다。

그러나 전세계직업동맹련맹에 가입한 민족적 직업동맹 중앙의 다수가 헌장에 의거하여 또는 개별적 정부들의 정책으로 부터 련맹의 완전독립성의 지반에 서있는것을 확신한 총회의는 전세계직업동맹련맹의 활동을 비록 六—十二개월 간이라도 중지시키는데 출구(出口)를 얻어냈던것이다。

영국트레드유니온총회의의 제안은「국제직업동맹 운동에있어서나 영국 로동계급에게있어 심각한 결점이며 또는 해독이된다。」라고 十一월十四일 웨·웨·꾸즈네초브동지의 성명에는 지적되었다。전세계직업동맹련맹의 활동의 일시적 중지에대한 제안접수는 국제적 로동운동에 대한 사업에는 근로대중의 중요리익에 막대한 타격을 줄것이며 또는 로동계급의 대렬을 분렬시킬것과 그를 현재 긴장된 국제정세의 정면에서 쇠약케 할것을 회망하고있는 자들에게만 유리할것이다。현재 자본주의적 독점권은 로동계급의 생활수준과 또는 그들이 전취한 민주주의적 자유에 포악한 공격을 하고있는 이때 또는 평화와 인민의 자유의 적들이 방화하고있는 새 전쟁 위협이 목전에 나타나고있는 이때―국제직업동맹 통일은 어느때보다도 가장 필요한것이다。그것은 전세계 근로대중에게 필요하다。동시에 영국 근로자들에게도 필요하다。그들은「전세계직업동맹련맹의 활동의 중지는 로동계급의 국제적 련대성을 미약하게하며 반동과 제국주의적 침략의 진영에서 활동하는 취칠과 그의 측근자들에게 유리한 조건을 지어준다」는것을 인식한다고 꾸즈네초브동지는 언명하였다。

쏘베트직업동맹들은 모든 직업동맹 중앙들과 그와함께 영국트레트유니온회의와도 앞으로 협력할 준비를 하고있다。 또는 로동계급의 국제적 통일과 전세계직업동맹련맹의 성과적 사업의 보장을 위하여 꾸준히 투쟁할것도 준비되고있다。

로동계급의 통일과 전세계직업동맹련맹의 통일을 위하여 쏘베트동맹의 직업동맹들의 수백만 맹원 군중만이 투쟁하는것이 아니라 이 통일을 위한 초소에는 민주주의 인민공화국들의 강력한 직업동맹련합、 불란서、 이태리직업동맹、 미국、 영국의 수백만의 로동자 식민지와 반식민지 국가들에있는 젊은 로동자단체들이 투쟁하고있다。

(「볼쉐위끼」지 一九四八년 제二一호게재)

쏘련 연극평론가들의 한 비애국적 그루빠에 관하여

쏘베트문학의 사상적 예술적인 커다란 교육적힘은 쏘베트예술 쏘베트연극의 그것과 같이 생활과 그들과의 관계가 가장 밀접하고 직접적이고 깊은데있다。 쏘베트문학 쏘베트연극예술이 인민에게 귀하고 가까운것은 인민이 자기들의 사업과 감정과 사상의 반영을 그속에서 발견하고 그가 자기들의 질의에 대답하여 주고 사회주의적 건설과 공산주의에로의 부단한 전진운동속에서 그들과 더부러 참가함으로써이다。 쏘베트연극예술은 우리나라에 영웅적정신을 대중적으로 만들었고 우리 보통사람을 부르죠아세계의 어떤 대표자보다 머리 열개 높이나 더 높이 쌓아올린 쏘베트애국주의의 원기를 북돋아주는 힘을 예술적수법으로 보여준다。 인민의 모든 력사적 창작과의 가장 밀접한 관계에야말로 사회주의적 리알리즘의 가장 깊고 생기를 주는 원천이있다。 쏘베트애국주의의 원기를 북돋아주는 근원도 또한 여기에 있나니 그 리유는 쏘베트땅에 대하여 속마음으로부터 충실하지않고서는、 공산주의사회의 창조자인 자기인민에 대한 사랑의 불길로 불타지 않고서는 쏘베트인민의 생활에서 새로운것을 창조할수 없기때문이다。

여기에 관하여서는 공산주의의 건설을 지도하는 볼쉐위끼당이 쏘베트작가들、 쏘베트극작가들에、 말하고있다。 사회주의적 리알리즘도 역시 인민의 생활과 활동에 대한 생기있고 또 젊고 사랑에 찬 관심과 깊고 고귀한 애국적감정과 떨어져 있지 않다。 그것은 부르죠아적 울라·코스모폴리타니즘이 인민과 그들의 창작에 대한 아무래도 좋다는 무관심한 태도와 무관심하고 거세(去勢)한것과 같고 싸늘한 유미주의(唯美主義)와 형식주의와 관련되어있다는것과 같다。

이것은 로씨야의 선구적 문학의 온 력사도 가로치고 있는바이다。 리알리즘을 위한 벨린스끼의 열정적인 투쟁에는 고도의 애국적감정이 일관하여있

었던바 이렇다고 하는것은 그가 작가들 극작가들 배우들에게서 요구한 예술의 진리가 자기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압제자들로부터의 인민의 자유를 위한 투쟁을 낳은 조국에 대한 사랑에 투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벨린스끼는 유미주의와 「예술을 위한 예술」과 예술유희에 락인을 찍었는데 그 리유는 어떤 종류의 유미주의도 비단 허위적이었을 뿐만아니라 반인민적이고 자기본질에 있어서 반동적이고 비애국적이고 반민족적이었었기 때문이었다.

췌르니쉡스끼와 도브로류보비에 의하여 지지되고 발전된 벨린스끼의 유언들은 온 로씨야의 선구적 문학을 거쳐왔고 가장 고귀한 그의 전통을 이룩하였다. 위대한 계몽자인 로씨야의 이 평론대가들은 리알리스틱한 문학과·리알리스틱한 연극의 평론가는 어떠해야만 된다는것을 바로 그의 모습을 그려서 보여주었던것이다. 연극에 관한 벨린스끼의 론문들은 오늘날에 있어서도 감격되지 않고는 읽을수없다. 그는 무대위에서 창조되는 예술적 수법들을 자기의 혁명적 민주주의적 사상을 구체화하는데 있어서의 가장 억센 수단으로 보았다. 벨린스끼는 로씨야인민을 뜨겁게 사랑하였고 그들을 알고있었다. 그리하여 그는 로씨야인민은 연극에 있어서도 력사가 그들을 만든 그대로 나타날것을 요구하였던것이다.

세월은 벨린스끼가 연극에 관하여 쓰던 때로부터 변경되였다. 쏘베트인민은 사회적반동의 보지자(保持者)들을 쓸어 치웠고 기생동물—착취자들의 계급들을 깡그리 청산하였고 모든 생활부면에 있어서 인민의 창작이 훌륭히 벌어졌다……사회주의적 건설、위대한 조국전쟁당시에 있어서의 고무된 애국주의 사상의 앙양、전쟁후의 창조적로동의 전인민적인 거창한 업적、쏘베트사람의 성격에 있어서의 새 특징들의 발전、생산과 과학에서의 새로운것에 대한 부단한 탐구—이 모든것이 예술을 위한 또는 문학과 시가(詩歌)를 위한 가장 고마운 자료가 아닌가! 그리고 온 인민이 생활속에 가지고있는 그 창작적열정에 포옹된 쏘베트인민의 훌륭한 작가들은 우리당이 인민에게 리로운 일체 량심적 이데올로기적 로작을 어떻게 높이 평가한다는것과 또한 우리당이 작가들을「사람의 넋의 기사(技師)들」이라고 부르면서 작가의 작품을 어떻게 높이 평가하였던가를 명심하고 자기들의 기여(寄與)도 공동적사업에 넣으려고 애쓰고있는것이다.

쏘베트인민의 생활과 투쟁에서 떨어지는것이 작가를 어떠한 비참하고 파멸적인 결과로 끌고간다는것과 쏘베트애국주의의 위대한 사상들이 작가의 창작을 어떻게 "결실많게하고 고무하는가는 당이

여러번 지적한바이다. 광포한 코스모폴리타니즘은 비단 반인민적일 뿐만아니라 결실없는것이다. 그는 유용한 풀의 싹을 쏠아먹는 저 식물계에 있어서의 기생충들과 같이 유해하다. 그는 우리에게 적대적인 부르죠아적 반동적영향을 끌어 들이는 자의 역활을 한다.

당은 이데올로기 전선에 있어서의 투쟁에 관한 자기의 결정들 가운데서 쏘베트평론에 특별한 주의를 돌렸다. 평론가—이는 문학과 예술에서 창조되는 새롭고 중요하고 긍정적인것의 첫 선전원이다. 유난히 큰것은 연극평론가의 역활이다. 그는 반드시 광범히 출판물을 통하여 예술적 연극적수법의 효과를 널리 알려야한다. 자기의 사업을 사랑하고 사회주의적예술에 충실한 참다운 쏘베트평론가는 열렬한 애국자가 안될수없으며 또한 무대에 새로운 작품이 나타날때에 그것이 비록 아직 충분히 완전한것은 아니로되 새·사상을 용감하게 내세웠고 쏘베트사람의 새 형상을 창조하였을때에—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을수없는것이다. 연극평론가—이는 나라가 그것으로 살고있는 가장 훌륭하고 가장 충실하고 또한 예술적 수법들로써 가장 철재적으로 구체화하는것을 탐구하는데 있어서 연극의 첫 보조자이다.

유감스럽게도 평론 더우기 연극평론 이는 우리 문학에있어서 가장 뒤진 부면이다. 그뿐이 아니다 바로 연극평론에 있어서는 쏘베트예술에 대한 비애국적이고 코스모폴리티하고 썩은 관계를 가리우는 부르죠아적 유미주의의 소굴이 요사이까지 보존되어왔었다.

× × ×

• •

연극평론면에 있어서는 부르죠아적 유미주의의 막내동이들의 비애국적 그루빠가 이루어져있었는데 이 그루빠는 우리출판물에 뚫고 들어오는 잡지「연극」과 신문「쏘련예술」의 지상에서 가장 진지러뜨리고있다. 이 평론가들은 인민에 대한 자기들의 책임을 잃었다. 왜냐하면 그들은 쏘베트사람에게 대하여 몹시 넌더리나고 그에게 적대적이고 본색모를 코스모폴리타니즘의 보지자(保持者)들이고·그들은 쏘배트문학의 발전을 [illegible]이아치고 그의 전진운동을 제동(制動)하기 때문이다. 그들에게는 민족적으로되는 쏘베트적 긍지감(矜持感)은 인연이 먼것이다.

이런 종류의 평론가들은 우리문학과 예술의 선진적 현상들의 신용을 떨어뜨리려고 피하면서 바로 애국적이고 또한 정치적으로 목적이 확립된 작품에 대하여서는 다짜고짜 광포하게 대드는데 그들의 구실언죽 예술적 미완성이라는것이다.

회상하여 유익할것은 위대한 작가 막심·고리끼의 여기에

창작과 끄・뜨레넵호의「륙보비・야로바야」와 같은 값있는 작품과 다른 작품들이 일찌기 바로 이때 울로기적 원수의 이런 공격을 받은일이 있었다는것이다。

사상적이고 예술적인 커다란 외미를 가지고있는 것은 므・고리끼의 희곡「평민들」가운데 로동자인 혁명가 닐의 형상이다。 그러나 평론가 유・유좁흐스끼는 이 희곡에대한 소사스러운 찬사(讚辭)들 가운데서 닐은「고리끼의 완성되지 않은 자태」이니 또한 마치 작자는「여가서 시사평론가로 나서고있그만 이 경우에 있어서 희곡의 예술적피륙에 이런 시사평론의 간섭이 얼마큼 알맞을까에 대하여서는 마음을 좀 덜 쓰고있다」는등 하는것을 독자에계 불어넣으려고 피하였던것이다。

고리끼의 훌륭한 창작가운데서 닐의 행동이 망친다고 하는 주제(主題)의 론리인「예술적 피륙」ㅡ바로 이것이 그가 위대한 프로레타리아작가 아・므・고리끼에 의하여 영원히 책에 박힌 혁명가요 불쇄위끼인 첫 로동자들가운데 한 사람의 용감하고도 고귀한 형상을 내리키려고 피하면서 자기와 바혁명적 비애국적 본질을 가리우는데 쓰는 부르죠아적 유미주의자들의 말이다。

바로 이 유・유좁흐스끼가 아・쑤롭흐의 희곡「쓰딸린그라ㅡ드에서 멀리」와 쓰딸린상을 받은 희곡인 브・취르스꼽흐의「승리자들」과 희곡「진리에 관한 이야기」에 나오는 조야의 역할 즉 녀배우 느・라지오노바가 그 역할을 연출하고 쓰딸린상을 받은 역할에 관하여서「주제」평론로서에 따라 빈정거리는 야유(揶揄)를 가지고 주인이하임을 고무하는듯한 말을 중덜거리면서 쓰고있다。 평론가 유・유좁흐스끼는 이 조야의 역할에 관하여 긴 사설을 늘어놓으면서「희생자의 흰 화관」이라는 말을 쓰는것보다 더 나은것은 아무것도 발견하지않는다。「이 희생의 서정시는ㅡ하고 평론가는 쓴다ㅡ우리가 찾고있는 로만티즘과는 아주 멀다。」

그가 쏘베트희곡들에 나오는 주인공들의「행복스럽고도 씩씩한」모습에 관하여서와 극작가들이「헤ㅡ재에서」가끔 떨어진다는데 관하여서와 주인공의「자기만족」이니,「우리 예술을 좀먹는」다고하는 경향들이니, 희곡작가들은 자주「생각」하고자 하지 않음으로써「자기의 주인공이 생각」하지 못하게 한다느니 하는데 관하여 독서을 퍼붓고있는 글의 론문은 야유에 짜 차있다。 그럼 다음과 같은 명제는 무슨 소용이 있는가ㅡ즉「쏘베트의 영웅일 이상 그는 반드시……꼭 승리를 획득하여야만 한다。 이런 종류의 철학은 생활의 변증법과는 하등의 공통점도 가지고 있지 않는것이다。」평론가는 보기

싫고 서툴은 굴져를 쓰면서 거기에 과학의 형태를 부여하려고 피하면서「쏘베트의 영웅이 일단 그것을 위하여 싸우는 이상 반드시 성공하여야한다는 신비한 가정」을 넌더리나게 비웃고있다。 가정이란 말은 알며진바와 같이「그 올바름이 반박되기전에 진실한것으로 간주되는 가상」을 의미하는것이다。 평론가의 짓궂이 애매하게 표현한 이 굴귀는 만일 그것이 쓰딸린그라드에 있어서의 쏘베트군대의 위대한 승리가 있은후인 一九四三년에 씌었다는것을 고려에 넣을때에는 더우기나 선동적 의미를 띠운다。 그리고 무의미한 형식을 가진 자기의 이 유해한 잡고대를 그는 예술적 결점들에 대한 비판이니「예술적 동원해제성」과의 투쟁이니 하고 거짓 일컫는다。 아니다, 여기에는 쏘베트사람의 완전하고 모든것을 이기는 특성을 묘사하려는 지향을 반대하는 비단 은폐된 투쟁뿐만아니라 뚜렷한 투쟁이 있었다。

아・구르위취의 론문들에는 유・유좁흐스끼의 것과는 다른 가장(假裝)의 형식이있다。 아・구르위취는 고전에 쏘베트연극예술을 대립시키고 뜨루계넵흐…의 권위를 리용하여 쏘베트연극예술이 명예를 훼손시키려는 감대사나운 기도를 하고있다。 그는 쏘베트연극물에 관하여 언급하면서 다음과같이 말한다。「오직 한개의 형상이 우리로 하여금 분기케하고 의미있고 가까운 그 무엇을 느끼게하였다。……이는 뜨후제넵흐의「마을의 달」에 나오는 웨로취까였었다。…우리는……수집고 정열적인 이 아가찌 하나만이 해변을 지나서 우리 회곡들의 수많은 녀주인공들의 머리를 넘어로 자기의 손을 조야・까스마제미안스까야에게 내밀고 그 녀자와더부러 굳은 악수를 바꾼다。」

좀더 자세히 쓰기로하자。「우리는 이런말」ㅡ이는 쏘베트애국주의의 감정을 여의고 조야・까스마제미얀스까야의 형상도 쏘베트인민이 우리생활의 영웅적 아름다움 즉 쏘베트사람의 정신세계의 아름다움의 올바른 묘사로해서 값있게 여기는 우리문학의 작품들도 참으로는 귀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그러나 만일 아・구르위취가 쓰기를「극작가의 세계감촉의 민족적 성격」이 그들속에 표현되었다고하는 빠고진의 희곡들의「너그러운 유모아와 슷되게 잘 믿는 락천주의」에서 관객은 자기의 반영을 보았고 또한「인지(認知)의 기쁨을 맛보았」는바 그러유는「로찌야사람들에게는 너그러움도 인연이 먼것이 아니기」때문이라고 쓴다면 그 아・구르위취에게 로찌야쏘베트사람의 민족적성격에 관한 어떤 개념이 있을수 있을것인가。

이는 로찌야의 쏘베트사람에 대한 중상(中傷)이다。 넌더리나는 중상이다。 그리고 바로 우리들에

제는 너그러움이 몹시도 인연이 먼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민족적인 쏘베트적 성격을 훼방하려는 이기도에 라인을 적지 않을수 없는것이다。

아·구르위취는「사냥총을 든 사람」이라는 희곡에 나오는 이완·와드린의 형상에서 혁명의 물결에 붙잡히고 둘로 갈라진 그리고 혁명의 거센 호름에 몸을 맡기기전에「쓸데없는 반항을 하면서 버둥거리는」사람을 본다。이것은 레닌과 만난 농민병사 즉 그의 의식이 볼쉐위끼인 로동자의 영향밑에 각성된 사람에 관한 이야기다。

당은 문학과 예술에 있어서의 새롭고 진보적인 모든것을 지지하였고 또한 지지하고있고 쏘베트애국주의정신에 일관된 작품들의 명예를 손상시키려는 기도들에대한 결정적인 반격을 주고있고 비애국적 출격들을 무자비하게 폭로하였고 또한 폭로하고있다。

그러나 부르죠아적 이데올로기의 잔재들에 전염된 사람들은 자기들의 유해한 호흡으로 쏘베트예술의 진전하고 창조적인 분위기를 아직도 군데군데에서 더럽히려고 꾀하고있다。혹은 보다 로골적으로 혹은 보다 은폐된 형식에서 그들은 파멸적 패배의 운명을 지닌 성과없는 자기의 투쟁을 수행하려고 꾀하고있다。

유미주의적 형식주의적비관의 칼날은 실지로 유해하고 완전히 값 없는 작품들을 반대하는 방향을 가지지않고 쏘베트애국자들의 형상들을 보여주는 선진적이고 훌륭한 작품들을 반대하는 방향을 가지고있다。바로 이것이야 말로 유미주의적 형식주의란 오래 비애국주의적 본질을 덮는 베일에 지나지 않는다는것을 증명하고있다。

이런 종류의 평론가들이 있기에 특히 아늑하다고 느낀곳은 브또—전로씨야연극협회부속 연극평론가합동(합동사무국 의장은 그·바야쥐옙호였다)—와 작가동맹의 연극예술위원회(위원장은 아·끄론이었다)의 곰팡내나는 분위기의 속이였었다。거기서는 사물의 본질을 어름어름하게 만들기 위하여서만 요구되는 과학의 형태를 가진 소용돌이 모양과 무의미한 잔말과 고의적인 핑계들의 뒤에 숨은 자기의 말의 빈번히 결함있는 내용을 감춤으로써 자기몸을 거짓 차리고 딴 자리들에 나서는 사람들의 배짱이 아주 추저분하게 드러나고있다。

바로 거기서 연극평론가 아·바르쫘곱흐스끼는 쏘베트의 실지와 쏘베트사람들의 형상들은 꼽새기는 작품들에 관하여서는 입을 봉하고 자기의 비애국적비관의 온 불길을 아·쏘프로놉흐의 희곡「모쓰크바의 성격」과 이 희곡을 상연한 말리·쩨아뜨르에로 돌렸던것이다。일찌기 아·까르네이추끄의 희곡「우끄라이나의 스쩨—쁘속에서」의 명예를

손상시키려고 꾀한일이 있는 바로 그 아·바르쫘곱흐스끼가 지금은 느·비르따의「우리에게 없어서 아니될 흘렙」과 아·쑤롭흐의「커다란 운명」및 다른 작품들과 같은 작품들을 까는데 이름이 높아졌다。

바로 거기서 평론가 르·말류긴은 브·라마숍흐의「위대한 힘」과 느·비르따의「우리에게 없어서 아니될 흘렙」과 아·쏘프로놉흐의「어떤 도시에서」와 같이 인민의 광범한 인정을 받은 철저한 애국주의적 작품들을 반대하여 무기를 잡았던것이다。

브또의 회의들에 있어서, 평론가 예·할라돕흐는「어떤도시에서」와「우리에게 없어서 아니될 흘렙」같은 희곡들을 반대하는 공격을 하였던것이다。

본색없는 코스모폴리타니즘을 반대하고 인민에게 인연이 먼 부르죠아적 영향들의 출현을 반대하는 투쟁이라는 과업들이 아주 날카롭게 우리앞에 서고있는데 한편 이 평론가들은 우리문학의 가장 선진적인 현상들의 신용을 떨어뜨리는것보다 나은 아무것도 발견하지 않고있다。이는 쏘베트문학과 예술의 발전에 직접적인 해를 가져오고 그들의 전진운동을 제동하고있다。

감히 말한다면 바로 이「사업」을 일삼고있는 사람으로는 우리가 보아온 바와같이 아·구르위취, 유·유좁흐스끼 및 다른 사람들이 있다。 그들의 행비고 통통 부풀은「권위」가 어때 참답게 폭로되지 않았다。평론가들인 바르쫘곱흐스끼, 구르위취, 유좁스끼, 와르숍흐스끼, 바야쥐옙호와같이 비애국적견지에 서있는 사람들의 결함있는 견해들은 많은 평론가들의 활동에서 인민에게 인연이 먼 온갖 종류의 곡해를 기르고있다。

아·바르쫘곱흐스끼가 말리·쩨아뜨르의 예술적지도자 끄·주봅흐를 놓고「모쓰크바의 성격」이라는 연극을 심의할때에 열렸던 소위「창작회의」를 걸고 다음과같이 비웃은것은 무슨 값이 있는가, 즉「주봅흐가 쏘프로놉흐는 우리시대의 사상을 호흡하고있다고 비창하게 말하기 시작하는때에 그 어떤 기음(氣音)이, 그 어떤 근행(動行)이 예술가인 무대감독가의 온 몸에 생기고있다。나는 이 의고주의적(擬古主義的) 기질을 말리·쩨아뜨르에 있어서의 쏘베트적테마에 대한 연극과 비교한다。」

이것이 당적 테마에대한 희곡의 작자와 현대적 쏘베트적테마를 가지고 열성적으로 활약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가장 오랜 극장을 비난하고 까려는 기도가 아니고 무엇인가?

평론가의 감대사나운 비웃음을 받은 끄·아·주봅흐의 연설가운데서 열정적이고 충심에서 나오는 말을 인용하기로 한다。

「재가 무엇보다도 먼저 몇마디 말하고자 하는

것은 왜 말리·제아뜨르는 희곡「모스크바의 성격」을 취하였는가 하는데 관하여서입니다。……쏘프로놉흐의 희곡가운데 놓인것은 너무도 크고 너무도 반갑고 너무도 우리의 생활에대한 믿음을 숨쉬고 있고 너무도 락천주의적이어서 이것은 그냥 묵살할수는 없는것입니다。 이에 도움을 줄 필요가 있습니다…제 생각에는 우리의 생활, 우리의 현실, 우리의 미래, 그리고 우리가 그것으로 살고, 우리가 그것을 호흡하는 사상들에 대한 믿음에 감염(感染)된 시적(詩的)희극 순수한 희극 락천적 희극—이는 이미 너무도 중요하여 이들을 위하여 만족하여 일하는것을 거절할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략 이런것이 극장이 매력을 가지게된 리유입니다。……당신들은 그(극작가—편집자)와 더부러 우리의 훌륭한 현실에대한 믿음에 차십시오。…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이것을 주목하여야합니다。 그러나 한걸음 나아가서 말한다면 주제가 올바른가입니다。……극장은……이런 의미에 있어서 작자를 열렬히 옹호하는바이며 원조를 요구할 권리가 있으되 자기의 힘을 믿지않을 가능성을 줄지도 모르고 희망을 꿇우지도 모를「비판」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위대한 쏘베트조국에 대한 자랑과 조국에 대한 자식으로서의 사랑에 찬 모든 훌륭한 희곡들에도 해당될수 있는것이다。

그리고 이 말은 연극예술과 극장을 쏘베트애국주의감정에 고무된 테마들에서 떼어버리려고 꾀하고있는 평론가들의 그루빠의 해를 가져오는 역활을 잘 폭로하고있다。

현대적 상연목록과 특히 연극「모쓰크바의 성격」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아주 추악한 태도를 취한 자료는「문학신문」편집국이있다。「문학신문」은「상연목록에 관한 이야기」(一九四八년 十二월四일부)라는 흉감스러운 표제를 붙인 편집국 보고에서 새로운 희곡들에 관한 회의에 있어서의 아·바르좌곱흐스끼의 결함있는 보고를 방패로 들고 현대적 애국적희곡들을 상연한데 대하여 말리·제아뜨르의 로선을 반대하는 그의 원협있는 혹평에 참동하였던것이다。

× × ×

연극극장들의 상연목록과 그의 개선에관한 대책들에 관하여 당이 준 지시들을 몇몇 평론가들은 어떻게 접수하였는가? 자기들의 견지를 재검토하다는 가혹하고도 정당한 당의 비판은 그들을 일깨웠는가? 이 평론가들은 자기비판을 하였는가? 아니다, 마침 평론은 이들 애처로운 평론가들에게는 힘에 벅찬것이였었다。 그들은 비판적으로 자기들에게 대하고자 하지 않았던바 그 리유는 그들은

자기들의 리념적인 완전한 파산을 폭로하기가 두려웠기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은 이제 와서는 직접 당의 지시를 반대하는 방향을 가진 자기들의 활동 즉 그루빠적이고 비애국적인 활동을 멈추지도 않았다。 역활들이 갈라졌다。 이 그루빠의 어떤 지도자들은 브도의 곰팡내나는 위원회들속에서 자기주위에 도당을 꾸렸다。 여기서 그들은 자기네 주위에 친구들을 몹고 새로운 쏘베트희곡을 반대하는—사실상으로는 쏘베트상연목록 일반을 반대하는 허위적인「여론」을 만들기 시작하였다。

어떤 지도자들은 낌새 잘 채는「말찰리니끄들」(침묵을 지키는 로찌야의 한 종파의 무리)로 자기들을 꾸미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실지에 있어서는 침묵하지 않았다。 쏘베트작가동맹의 확대총회석상에서는 이들「말찰리니끄들」의 연설들의 수기원고들의 발췌(拔萃)들이 랑독되었는데—이는 현대 쏘베트상연목록과 우리 극작가들의 애국주의적 작품들에 대한 적의를 호흡하는 부끄럽고도 버르장이없는 토로(吐露)이다。

그들은 썩썩 소리를 내고 골을 내면서 어떤 문학지하실을 만들려고 피하면서 쏘베트연극예술에 나타난 훌륭한 모든것을 비난하였다。 그들은「위대한 힘」과「모쓰크바의 성격」과「우리에게 없어서 아니될 훌렙」과「커다란 유명」과 같은 연극들에 대한 좋은 말을 발견하지 않았다。 그들의 감굿고 비방적인 혹평의 표적(標的)은 특히 쓰딸린상을 받은 희곡들이었다。

물론 쏘베트 현대 상연목록중의 많은 희곡들 가운데는 아직 적지 않은 결점들이 있었다。 이들 결점들은 적다 물론 사상적이고 예술적이며, 창조적이고 동지적인 비판을 받아야할것이다。 그러나 유미주의적인 잔소리군들은 이런 비판에 관하여서는 마음도 쓰지않고 생각도 아니하였다。 그들은 이 희곡들을 전면적으로 비난하였는데, 그것도 바로 이 희곡들은 모든 결점들이 있는 위에 쏘베트의 사상적인것과 원칙적인것에 차 있으며 가장 중요한 정치문제들을 제기하고 부르조아적 외국문화에 대한 굴종파의 투쟁에 있어서와 관료주의와 략탈파 사회적 동기들에 대한 개인적동기들의 우세와의 투쟁에 있어서 당과 쏘베트인민을 도와주고있다는 탓에서이다。 이 모든 희곡들은 쏘베트애국주의를 기르고 무대에서 예술적수법들에 의하여 쏘베트사회에 생기고있는 새롭고 진보적인 모든것을 보이려고 지향하고있다。

오래전에 파산당한 유좀흐스끼파와 구로위취파는「침묵하였고」 그들을 위하여는 바르좌곱흐스끼파와 다른 사람들이 진출하였는데, 이들은 예술학 연구식의 특별한 출판물에서부터 일반적출판물에 이르

도록 돕고있었고 쏘베트애국주의 사상을 예술작수밝둔 에 의하여 구체화하는데 대한 점에와 똑같은 작의를 소리 높은 글귀들로써 가리웠던것이다。

우리는 쓰딸린동지의 말씀을 회상하자。「침묵은 비판이 아니라고 말할수있다。 그러나 이것은 옳지 못하다。 무시의 특별한 방법으로서의 침묵의 방법도 역시 비판의 형식이다。 아닌게 아니라 어리석고 우스운 형식이겠만 어쨌든 비판의 형식이다。」 비판에 있어서 문제를 솔직하게 원칙적으로 제우는 대신에 내내 침묵하려는 기도들과 페롤 파우려는 기도들은 평론가들, 이 비애국적 그루빠에게 도움을 주지않는다。

우리앞에는 우연적인 개별적 과오들이 아니고 우리 문학과 예술의 발전에 손해를 주는 비애국적 견해의 련속이 반드시 분쇄되어야할 련속이있다。 본책 모를 코스모폴리탄들이 우리의 민족적 자랑인 후도졔스뜨벤니·쩨아뜨르와 말리·쩨아뜨르의 예술에 공격을 주는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다。 그들은 세계에서 훌륭한 이들 극장들이 쏘베트의 테마에 대한 희곡들을 상연하고 쏘베트사람들의 형상들을 해부하고있는데 이들 극장들의 사업에 대한 신망을 손상하려고 피하고있다。

당적 비판의 첫째 차례의 과업은 연극 평론가들의 이 비애국적 그루빠를 사상적으로 분해하는 것이다。

우리 비판이 반드시 명심하여야할것은 그는 문학과 예술에 있어서의 선진적 애국주의적 경향들을 지지하고 그들에 의하여 창조된 훌륭한 모든것을 쉬지않고 선전하고 지금 가지고있는 결점들을 용감하고、원칙적으로 폭로하고 작가들 예술가들을 쏘베트애국주의의 정신에서 교육할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것이다。

× × ×

쏘베트연극예술과 쏘베트극장은 올바른 길에 서있다。 쏘베트예술은 사회주의적 건설이라는 문화사상에 일찌기 없었던 가장 풍부한 원천에 의하여 배양되고있다。 그러나 이 원천들은 손수 새 생활의 창조와 공산주의를 위한 투쟁에 참가하는 사람들에게만 열려있다。 무관심한 관찰자의 물고기눈처럼 싸늘한 눈을 가지고 이 생활을 곁에서 보는 사람은 불가피적으로 뒤지게된다。

조국과 인민에 대한 진정한 애정이 없고 가슴속에 원혐과 과대한 자부밖에 아무것도 가지고있지않는 이 모든 유미주의적 맹랑함을 자유주의적으로 묵과하는것을 결정적으로 아예 영원히 끝장낼 필요가있다。 예술의 분위기에서 비애국적 속물(俗物)들을 숙청할 필요가 있다。

우리작가 극작가들은 인민의 생활과 인민의 로

동과 인민들 가운데 진보적인 사람들과 도시와 골호즈들에 있어서의 놀랍게 새로운 현상들과 공산주의적 풍속과 공산주의적 륜리가 화목하게 싹트고 있는데 한결 더 바싹 가까이 서야한다! 생활속에 들어가고 생활의 바로 복판으로 스며들어가야 한다。 그리고 조국과 인민에 대한 사랑은 예술적 수법의 원천을 이루 헤아릴수없이 열어줄것이다。

우리는 이것을—쏘베트독자와 관객에게서 아주 열렬한 환영을 받은 작품들을 두고 보는바이다。 세계에서 가장 순수하고 사상적이고 고귀한 이 독자와 관객인 그는 많은 요구를한다。 그는 과오들과 실패들을 엄중히 비판한다。 그러나 그는 작가와 극작가에게서 인민의 위대한 사업들에 대한 뜨겁고 진정으로 애국적인 관심을 볼때에는 그를 정답게 지지한다。

당적 쏘베트의 비판은 인민에게 인연이 먼 견해들의 보지자들을 분쇄하고 쏘베트연극의 성과있는 활동을 위하여서 활동무대를 깨끗하게 하고 당과 인민에 의하여 그앞에 제기된 과업들을 수행한다。(「쁘라우다」지 一九四九년 一월二十八일부 게재)

당생활보도

당중앙위원회 제五차회의

중앙위원회 제五차회의는 二월十二일 오후三시정각 당중앙본부 회의실에서 소집되었다。이 회의에는 당중앙위원 및 후보위원 이외에 도당위원장、도당조직부장、도당선전선동부장、시(구역)군당위원장들과 기타 당원인 책임간부들이 참가하였다。본회의는 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김두봉동지사회하에 다음과 같은 순서로써 진행되었다。

一、북조선로동당하급당단체—세포(초급당부)면당부—들의 九개월간 사업총결에 관한총회와 당지도사업강화에대하여

二、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一九四九년—一九五〇년도二개년간 인민경제계획실시에 있어서의 당단체들의 과업

三、도、시、군、구역 인민위원회 대의원선거진행에 대한 당단체들의 과업

四、조직문제

첫순서에 대한 보고를 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허가이동지가 진술하였다。보고에 근거하여 박영、박일영、김일、김숭화、차순철、한창근、김책근、기타 동지들이 토론에 참가하였다。장시간에 걸친 열렬한토론이 전개된후 허가이동지의 결론이 있었다。이리하여 오후 九시경 제一일 회의를 끝마치었다。

회의는 十三일 오전十시부터 속회되었다。둘째순서에 대한보고를 정치위원 김책동지가 진술하였다。보고에 근거하여 김찬、정일룡、송봉욱、김황일、최재린、강영창、기타 동지들이 토론에 참가하였다。

셋째순서에 대한 보고를 당중앙본부 조직부장 김열동지가 진술하였다。보고에 근거하여 박정애、박창옥 기타 동지들이 토론에 참가하였다。

이어 넷째순서에있어서는 최고인민회의 제二차회의 결정에 의한 자강도의 신설 및 일부 행정구역의 개편에 관련하여 자강도당위원회의 변경된 행정구역에 의거한 군당위원회를 조직건립할데 대한 결정서를 채택하였다。

계속하여 본회의에서는 二월총회에 걸쳐 취급된 문제들에 대한 제결정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오후七시경 중앙위원회 제五차회의는 폐회되었다。

당중앙위원회 제五차회의 결정집행을 위하여 각도당위원회 개최

지난 二월十二、十三량일에걸쳐 진행된 당중앙위원회 제五차회의 결정집행을 위하여 각도당위원회들이 개최되었다。

× × ×

二월十五、六량일에 걸쳐 진행된 평남도당 제六차위원회는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 허가이동지의 참석하에 세포(초급당부)및 면당 지도기관사업총결에 관한 총회와 당지도사업강화에 대한 문제 및 기타 당면과업들을 토의하였으며 많은 당원들이 토론에 참가하였다。허가이동지는 보고에 기초한 여러동무들의 토론이 전개된후 대략 : 다음과 같은 결론을 진술하였다。

지난 중앙위원회 제五차회의는 당 발전에있어서 중대한 의의가 있다。이 회의에서는 당단체들의 추동적역할에 의하여 쟁취한 거대한 성과들을 총화하였으며 당단체들이 당지도사업

에서 범하고있는 부분적 오유와 결점들을 명백히 명시하였다。또한 국토완정과 완전통일자주독립을 촉진시킬데 대한 중요한 과업들을 당단체앞에 제시하였다。

허가이동지는 평남도당위원회의 성과에 대하여 지적하면서 토론된 문제들중 특히 강조할데대하여 계속 다음과같이 진술하였다。

행정관리국을 적극 협조 강화함에 있어 행정관리국내 당일군들의 책임성을 제고하여 줌과 동시에 당의 조직적 영향과 군중단체들을 적극 발동시키도록 할것이다。

그리고 경제 건설협조 사업에 있어 시종일관하게 당적주목을 돌리어야 할것은 인민적 소유로된 공장 기업소들이 진실로 국가에 어떻게 얼마나 리익을 주고있는가를 생산량의 내용과 질적수준에서 평가할줄 알아야한다는 점이다。

또한 농촌에 있어서는 농촌경리가 개인소유제에 기초하고 있는것을 잊지말아야한다。또는 여기서 당적 관심을 예리하게 돌릴것은 농촌에서 일부 부화한 비근로계급적 잔재사상과의 투쟁이다。그러므로 당단체들은 농민들에게 근로정신을 적극배양하여 줄것이다。

당의 조직적 지도방법에 있어서는 항상하부당단체를 지도할때에 지도내용을 풍부히 할것이며 또한 당내 민주주의를 적극강화할것이다。당의 조직적지도수준을 제고하며 당내 민주주의를강화한다는것은 당원들의 창발성을 높여주며 그들의 의사와 권리들 충분히 보장하여 준다는것이다。이번선거사업의 중요한 정치적 승리를 쟁취함에 있어서는 당단체들이 어느때 보다도 주동적 역할을 놀며 인민대중과의 연계를 강화하여야 할것이다。

우선 유권자 등록협조에있어서 한사람도 빠짐 없겠금 심중한 관심을 돌릴것이다。

또한 공동립후보자에 대한 정당한 인식을 갖고 선전사업을 진행할것이다。

허가이동지는 평남도당단체가 자기앞에 부과된 이중요과업을 성과 있게 달성하리라는것을 확신한다고 하면서 자기의 결론을 끝마치었다。

× × ×

황해도당 제五차위원회는 二월十七、八량일에 개최되었으며 당중앙본부 조직부장 김열동지가 참석하였다。

함남도당 제六차위원회는 二월十八、九량일에 개최되었으며 당중앙검열위원회위원장 장순명동지가 참석하였다。

함북도당 제六차위원회는 二월十九、二十량일에 개최되었으며 당중앙본부 로동부장 박영선동지가 참석하였다。

강원도당 제六차위원회는 二월十九、二十량일에 개최되었으며 당중앙본부조직부부장 차영락동지가 참석하였다。

평북도당 제七차위원회는 二월二十、二十一량일에 개최되었으며 당중앙본부 선전선동부장 박창옥동지가 참석하였다。

각도당위원회들은 모두 당중앙위원회가 제시한 과업들을 성과 있게 진행할것이 토의되었으며 회의는 열렬한 비판과 자기비판의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평북도 박천군당단체의 선거선전사업 협조정형

박천군당단체는 오는三월三十일에 시행되는 도 및 군인민위원회 대의원선거사업의 승리를 정치적으로 보장하기에 당단체의 력량을 총동원하고있다。지난 二월二十五일에 소집된 군당제十차위원회는 군당위원 및 후보위원과 군당산하 전체 세포위원장 및 열성당원 참

가하에 선거사업진행에대한 협조방침을 토의결정하였다。 군당단체는 당중앙에서 제시한 기본방향에 기초하여 군중의 정치적 의식을 고도로 발휘하는 방향에서 선전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선전망은 유능한 일꾼으로 조직하고 선거민주선전실은 선거선전실로하고 선거기간에 있어서 정치적학교의 역활을 충분히 놀수 있도록 준비하였다。

선거선전사업에 있어서는 1、제二차최고인민회의에서 채택된 법령 및 문헌들。 2、최고인민회의 제二차회의에서 진술한 김일성수상의 총결연설。 3、공화국헌법、 4、중앙민전의 호소문。 5、선거에 관한 구호。 6、선거규정등을 기본내용으로한 해석사업을전개하고 있다。 선전방법에 있어서는 형식적 방법을 일소하고 정치적승리를보장하는바 중점을두고「유엔임시조선위원단」의 정체를 폭로하며 연면들을 반동에 대한 고호로 떼는 증오심을 발휘케 하고 있다。 또한 선전원은 동원된 수에만 치중하던 과거의 결점들을 퇴치하고 선전대 조직에 있어서는 선전원들의 질적 제고에 주력을 두고 그들에 대한 교양사업을 강력히 전개하고있다。 다른 한편으로 공장 직장 학교 농촌 가두에서 군중강연사업을 광범히 조직하고 선거의 정치적 의의를 널리 선전 해석하고 있다。 선전원강습조직은 당중앙에서 재시한 제강에 의하여 二월二十六일부터 三일간 一三〇명의 선전원을 강습시켰으며 유능한강사 二四명을 군내八면에 파견하여 면당부산하 선전원들을 훈련시켰다。 그리하여 지난 三월二일까지 군내에 五〇개 선전대와 一一〇개소의 분구선전대조직을 협조완료하였다。

당원인 선전원들은 군중속깊이 직장 부락의 좌담회 반회의등을 통한 선전사업에 헌신적으로 활약하고 있으며 가두 직장을 선거 일색으로 장식하면서 있다。

각세포에서는 자기세포의 실제적 환경에 비추어 직장독보회、벽보 공작등을 광범히 전개하면서 선거선전사업을 생산과 연결시켜 생산사업을 적극 협조할데대하여 특히 당적주의를 돌리고 매개당원들은 군중의 선두에서 투쟁하고 있다。

(통신원 어제우)

一九四九년三월十일 인쇄
一九四九년三월十五일 발행
「근로자」 제五호 【정가 三〇월】

책임주필 기 석 복
편 집 인 김 성 용
인 쇄 인 최 만 엽
평양특별시순수리三〇〇번지
발 행 소 로 동 신 문 사
인 쇄 소 로동신문출판인쇄소

『근로자』편집국 전화、 국장실 二五 七六번
편집실 三八〇二(二〇)번

제 ㄱ—10231